

2026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Contents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11
가. 정부 현황	11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13
3. 주요 이슈 Pick	16
가. [무역] 선진 시장의 무역 파고에 직면한 아세안	16
나. [지경학] BRICS와 ASEAN의 전략적 교차로	17
다. [대외 영향] 미국의 안보·원조 구조 재조정	18
라. [고령화] 아세안에 밀려오는 실버 물결	20
마. [에너지]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아세안의 선택	21
바. [환경] 동남아대양주가 직면한 기후변화 위기	23
사. [통합]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과 역내 포용 확대	24
아. [사회] 아세안 시위의 지역적 확산과 그 배경	25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28
가. 시장 특징	28
나. 무역	38
다. 산업	57
라. 투자	59
2. 유망 산업	72
가. 제조업 : 전자·자동차 중심의 산업 고도화	72
나. 에너지산업 : 에너지 전환 가속에 따른 발전·전력 인프라 확충	72
다. 보건·의료 산업 : 바이오·헬스케어 중심 성장	73
라. 디지털 산업 : 에너지 전환 가속에 따른 발전·전력 인프라 확충	74
마. 농업 : 스마트팜·에그리테크 육성을 통한 농업 혁신 전환	74
3. 협력 기회	76
가. 통상·G2G	76
나. 프로젝트	78
다. 공급망(자원 개발)	80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84
2. 진출전략	86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상품)	109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114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118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122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11
3. 주요 이슈 Pick	16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 경제 전망(요약)

- '26년 완만한 성장세 속에서 인플레이션 안정과 민간 소비 회복이 진행되는 한편,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회복 속도는 제한적일 전망
 - (아세안) FDI(외국인직접투자) 증가 및 민간 소비 회복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되나, 대외 불확실성과 산업별 격차로 회복 속도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전망
 - (대양주) 호주·뉴질랜드는 금리 인하와 물가 안정 효과로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나, 글로벌 수요 둔화로 성장 모멘텀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호재 요인

- 인프라 투자 및 행정 효율화 중심의 성장 기반 강화
 - (베트남)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국가 인프라 프로젝트·행정 효율화
 - * 북남고속철도, 원자력발전소 등 초대형 프로젝트 및 중소형 지역 기반 시설 개선 등 병행
 - (캄보디아) 중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 및 캄보디아 정부의 신산업 중점 육성
 - * '25년 4월 인프라, 물류, 에너지 등 총 37건 MOU 체결로 중국 투자 지속 확대 전망
 - (미얀마) 지진 복구 및 농업 기반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제 재도약
- 첨단산업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업 고도화
 - (싱가포르) 주요 교역국^{미국}의 경제 회복 및 중국 공급망 의존도 완화 추세에 힘입어 생산·R&D 투자 확대와 전자, 정밀·운송 공학 분야의 성장세 기대
 - (말레이시아) AI·데이터센터 등 첨단·디지털 분야 FDI 확대 및 국내 일자리와 임금 수준 인상을 통한 내수 안정화
 - (태국) 태국 투자청이 추진하는 동부경제회랑 프로젝트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기회로 평가
 - * EV(전기차), 전자, 데이터센터 등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에서 투자 유치 잠재력
- 소비·수출 회복과 에너지 전환을 통한 경기 부양
 - (인도네시아) 내수 부진에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완충 추진
 - (필리핀) 물가 상승 압력 완화로 실질구매력 방어, 임금 조정·고용 유지가 필수 소비 지지

- (라오스) '24년, 관광·물류·전력·광물 수출 확대로 무역흑자^{GDP의 4%} 달성
- (호주) 실질임금 상승, 고용·금리 안정에 따른 소비 회복과 에너지 전환 투자 확대
- (뉴질랜드) 아시아 수요 회복·관광 활성화로 서비스업 전반 성장

□ 부진 요인

- 미국발 보호무역 강화 및 글로벌 교역 둔화 리스크
 - (베트남) 미국 상호관세 조치로 중국계 FDI 위축 및 제3국 이전 가능성 확대
 - (인도네시아) 미국 관세 및 글로벌 교역 축소로 수출 환경 악화, 제조업 타격
 - (싱가포르) 무역 긴장 재확산으로 수출·재수출 중심 산업 직접 타격
- 내수 둔화와 재정 부담이 정책적 압박과 경기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
 - (말레이시아) 보호무역주의, 보조금 합리화, 세금 인상 등 복합 리스크로 소비 위축 및 사회적 비용 증가
 - (필리핀) 전기요금·식료품비·운송비 상승 등으로 기업·가계 모두 압박
 - (라오스) 인프라·에너지 개발 관련 중국 차입 급증으로 공공부채 리스크 상존
- 지정학·금융 불안 및 구조적 리스크
 - (캄보디아) 글로벌 경기 둔화, 투자·관광 수요 감소, 태국과의 국경 분쟁 등 지정학 리스크 지속
 - (미얀마) 금융 제재·외환 부족·수입 규제 악순환으로 경제 활동 위축
 - (호주) 중국 경기 둔화와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으로 무역 및 성장률에 적신호

□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동남아(아세안)			대양주		
		2023년	2024년	2025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인구	백만 명	681.1	687.5	693.4	32.1	32.7	33.1
명목 GDP	십억 달러	3,799	3,955	4,169	1,996	2,054	2,092
1인당 명목 GDP	달러	(SG) 85,412 (MM) 1,140	(SG) 90,674 (MM) 1,112	(SG) 94,481 (MM) 1,097	(AU) 64,640 (NZ) 48,814	(AU) 66,529 (NZ) 48,839	(AU) 65,946 (NZ) 49,383
실질성장률	%	4.1	4.8	4.3	(AU) 2.1 (NZ) 1.8	(AU) 1 (NZ) -0.6	(AU) 1.8 (NZ) 0.8
총 수출	백만 달러	1,809,112	1,945,550	N/A	412,850	388,277	N/A
(對韓 수출)	백만 달러	77,161	80,091	N/A	21,698	21,058	N/A
총 수입	백만 달러	1,716,909	1,873,972	N/A	332,127	331,359	N/A
(對韓 수입)	백만 달러	119,420	127,76	N/A	21,317	19,826	N/A
무역수지	백만 달러	92,202	66,578	N/A	84,633	56,917	N/A
FDI	백만 달러	208,340.3	225,956.6	N/A	32,285	55,839	N/A

주1: 아세안의 1인당 명목 GDP는 권역 내 편차가 가장 큰 싱가포르(SG)와 미얀마(MM) 지표로 제시

주2: 대양주 지표는 호주(AU)와 뉴질랜드(NZ)만 포함

자료: IMF(인구, 명목 GDP, 실질성장률 등), ITC(무역정보), Asean Stats(FDI)

□ 현지 경제 상황

- 경제성장률 : 물가 안정과 내수 회복으로 완만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관세·부채·관광 부진 등 구조적 제약으로 국가 간 성장 편차 확대

국가별 경제 성장 현황

국가명	주요 내용
베트남	• '25년 성장률은 6.4%로 전년(7.09%) 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나 제조업·인프라 투자 중심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
인도네시아	• '25년 성장률 4.7~5.2% 전망, 미국 관세 여파로 제조업 둔화 예상되나 재정 지출, 완화적 통화 정책이 지지 역할
싱가포르	• '25년 상반기 GDP 성장(+4.3%), 관세 시행 전 수출 선적 확대로 제조·금융 호조, 내수 업종은 둔화세
말레이시아	• 고용 개선·소득 증가·민간 투자 확대에 힘입어 4~5% 성장 전망
태국	• 2% 내외 성장 예상, 관광 부진·가계 부채 등 구조적 취약 요인 지속
필리핀	• 5.8~6.0% 성장, 물가 안정·수출 회복으로 점진적 경기 재가속, 정부의 점진적 경기 부양 정책이 성장 견인
캄보디아	• 수출·관광 회복세 지속하나 금융 연체율 8.15%로 리스크 확대
라오스	• 4.0~4.1% 성장,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으로 수출·관광 부문 호조
미얀마	• 2~3% 성장 전망, 농업·인프라 중심의 제한적 회복
호주	• '25년 제한적 성장 후 '26년 2%대 회복 전망, 금리 인하·소비 회복·에너지 투자 확대가 주요 요인
뉴질랜드	• '25년 1분기 GDP 0.8% 증가, 관광·수출 중심의 완만한 반등세 지속

- 소비 : 물가 안정과 고용 개선으로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나, 인플레이션·가계 부채·글로벌 관세 등 요인으로 회복 강도는 국가별로 차별화

국가별 소비 현황

국가명	주요 내용
베트남	• CPI(소비자물가지수) 3.25% 상승('25년 1~8월)에도 외국인 관광객 1,390만 명(+21.7%) 기록 등 관광 회복이 내수 확장 견인
인도네시아	• 노동 시장 개선에도 관세와 금융 긴축 여파로 소비심리 위축
싱가포르	• 자동차 판매 호조로 소매 판매는 상승했으나 식음료 등 내수 업종은 부진하며, 환율 강세로 해외 소비 증가
말레이시아	• 소득·고용 안정으로 소비 견조, 비필수품 지출 축소
태국	• 가계 부채·대출 규제로 민간 소비 회복 제한, 소비 성장세 완만한 수준
필리핀	• 물가 안정·임금 유지로 실속형 소비 중심의 회복세
캄보디아	• 민간 소비가 GDP의 55%를 차지, 물가 관리가 구매력에 주요 요인이거나, 식료품·에너지 등 가격 변동성 지속
라오스	• CPI 급등(주거비·연료비 +21.6%, 의료비 +19.8% 등)으로 소비 위축·체감 경기 악화
미얀마	•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30% 내외 지속, 실질소득 급감
호주	• 차량 구매, 문화 소비 증가 등으로 가계 소비 회복세
뉴질랜드	• '25년 2분기 CPI 2.7%, 안정적 물가 속 완만한 소비 확대

- 민간 투자 : 금리 인하와 정부 프로젝트 추진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지만, 보호무역·부채·금융 제재 등 구조적 제약이 병존

국가별 민간 투자 현황

국가명	주요 내용
베트남	• 신규·재개 기업 약 20만 9,000개사(+24.5%)로 창업 활발, 폐업 기업도 16만 개사(+19.0%)로 동반 증가 → 투자 활력과 구조 조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
인도네시아	• 전반적 투자 둔화, 다만 금리 인하와 재정 지출 확대가 완충 역할을 수행해 경기 하방 방어
싱가포르	• 제조·전자·IT·의약품 분야는 투자 증가, 반면 화학·서비스·부동산 투자는 둔화 → 산업별 양극화 뚜렷
말레이시아	• '25~'26년 승인 투자 집행 본격화로 성장세 지속 예상(4.5~5.5%), 다만 보조금 축소·재정 긴축·보호무역 리스크로 일부 프로젝트 지연 가능
태국	• 민간 투자 '25년 -2.2%, '26년 -0.2%로 위축 예상, 반면 공공 투자는 '25년 5.8%, '26년 1.5% 증가로 정부 주도 성장세 일부 보완 전망
필리핀	• PPP(민관합작투자사업) 확대 및 'CREATE MORE 시행령' 확정으로 투자 환경 개선
라오스	• 공공 부채 부담·통화 가치 하락으로 민간 투자 위축, 외자 유입 제한
미얀마	• 금융 제재로 대규모 프로젝트 제약, 반면 중소 규모 민간 투자는 지속
호주	• '25년 상반기 민간 투자 0.7% ↑, GDP 기여도 0.1%

- 산업생산 : 제조업과 전자 산업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거나, 고금리·통화 약세·수요 둔화 등으로 지역별 편차 확대

국가별 산업생산 현황

국가명	주요 내용
베트남	• 산업생산지수(+8.5%), 고용(+4.7%) 호조, 제조업 중심의 견조한 확장세 유지
인도네시아	• 고금리·루피아 약세·관세 불확실성으로 기업 생산 활동 위축
싱가포르	• 내수·역내 수요 확대와 수출 회복세가 결합되며 제조업 신규 주문 급증, 경기 확장세 가속
말레이시아	• 전기·전자 산업 반등 및 반도체·석유화학 호조로 제조업 확장 지속 * GDP 내 제조업 비중 24%, 전자 산업 수출 40% 차지
태국	• 외수 감소·투자심리 약화로 제조업 활동 둔화 가능성
필리핀	• 재고 조정 이후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가 5~7월 50선 상회, 생산성 회복세 확인
라오스	• 관광·물류·전력 중심 성장 지속, 그러나 통화 가치 하락·해외 인력
미얀마	• 농업·수입 대체 산업 육성 통해 자금 기반 강화, 수출 산업 전환 시도
호주	• '25년 1분기 산업생산 △3.2% 감소, 광업 둔화와 수출 부진이 주요 요인
뉴질랜드	• '25년 1분기 산업생산(+7.4%), 제조·비즈니스 서비스(각 +2.4%)가 산업 성장 견인

- 대외 교역 :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거나, 미국 상호관세와 글로벌 경기 둔화로 하반기 교역 모멘텀 약화 전망

국가별 대외 교역 현황

국가명	주요 내용
베트남	• '25년 성장률은 6.5%로 전년(7.1%) 대비 둔화될 전망이다, 제조업·인프라 투자 중심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 * 연도별 교역 규모(억 달러) : ('21년) 6,691 → ('22년) 7,302 → ('23년) 6,810 → ('24년) 7,863 → ('25년 상반기) 4,320
인도네시아	• 팜유(2.5%), 주석(7.5%), 커피(44.1%), 구리(2.6%) 등 주요 수출 품목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출 증가에 기여
싱가포르	• 상반기 수출·수입 동반 증가로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나, 하반기에는 관세·프론트로딩 약화로 둔화 우려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의 무역 의존도는 GDP 대비 137%에 달하는 만큼, 전자·전기 산업 사이클 회복 여부가 향후 교역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분석
태국	• 중국·미국·일본 대상 전자기기·기계·차량 수출 호조로 교역흑자 유지
필리핀	• 미국 관세 부과 이후에도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수출 증가, 무역적자 축소로 수지 개선세
캄보디아	• 미국·EU(수출), 중국(수입) 중심 교역 구조, 최빈국 졸업·미국 관세 이후 교역 다변화 중이나 수입 의존도(원부자재·중간재·생활소비재)가 높아 무역적자 지속
라오스	• '24년 교역 규모 221억 3,000만 달러, 전력·광물 수출이 50% 이상이며, 라오스-중국 고속철도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 급증
미얀마	• 의류봉제 중심 수출 유지, 농산물 수출 확대 추진하나 수입 조달 불안으로 내수 공급 부족
호주	• '23년 이후 수출 감소세, 對한국·중국·일본 수출 하락으로 교역 규모 축소
뉴질랜드	• '25년 1분기 교역은 증가(+7.4%)했으나, 미국 15% 추가관세(8월)로 긴장 고조

- 투자 유입 : FDI는 제조·디지털·에너지 부문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미국·중국 갈등 및 중국계 자본 의존도 심화가 리스크로 작용

국가별 투자 유입 현황

국가명	주요 내용
베트남	• 제조·부동산 중심의 FDI 증가세, 최대 투자국은 싱가포르며, 한국·중국 자본 유입이 강세인 반면 일본·대만은 감소세
인도네시아	• '24년 FDI는 600억 달러(+19%)로 사상 최대 기록, 니켈 등 광물 다운스트림 산업 투자 급증
싱가포르	• '25년 2분기 FDI 순유입은 소폭 감소했으나, 금융허브 위상 유지, 첨단 제조·디지털 중심의 안정적 투자 지속
말레이시아	• China+1 공급망 재편, 디지털 인프라 수요 확산,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허브 전략 등으로 FDI 유입 기대
태국	• BOI(태국 투자청) 승인 기준 디지털 프로젝트 급증, 주요 투자국 홍콩·중국·일본 첨단·IT 분야 중심으로 투자 다변화 진행
필리핀	• 순유입 확대·연누계 감소, 일본·미국·싱가포르·한국 등이 집중, 수혜 산업은 제조·금융·보험·부동산 편중
캄보디아	• 중국계 자본(대만·홍콩 포함) 비중 50% 이상으로 대외 채무 리스크 확대 및 경제 의존 구조 심화
라오스	• 전력·광물·물류·관광 중심 투자 증가, 아세안 초국가 송전망 APG 참여로 역내 전력 수출 허브 역할 강화 * 라오스-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 전력 통합 프로젝트('22~'24년) 통해 싱가포르에 100MW 송전 성공
미얀마	• 주요 투자국은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등으로, 분야는 제조업(의류봉제), 오일·가스, 서비스업에 집중
호주	• '20년 이후 FDI 지속 증가, '24년 역대 최고치 기록(광업·에너지·부동산 중심)
뉴질랜드	• 비자 완화(Active Investor Plus, 최소 투자금 1,500만 뉴질랜드달러 → 500만~1,000만 뉴질랜드달러)와 영주권을 연계하여 투자 유인 강화, '25년 투자 유입은 8억 4,500만 뉴질랜드달러 달할 것으로 전망

- 투자 진출 : 에너지·인프라·디지털 중심의 투자 진출 확대, 싱가포르·호주가 주도적 역할을 유지하고 베트남·인도네시아의 역외 진출도 점진적 확대

국가별 투자 진출 현황

국가명	주요 내용
베트남	• 주요 투자 대상 라오스·캄보디아·베네수엘라·러시아·미얀마, 광업·농림수산·IT·제조·에너지 중심의 자원 개발형 투자 확대
인도네시아	• 해외 투자 규모 97억 달러, '20년 대비 약 3배 증가
싱가포르	• 금융·보험 중심의 해외 투자 구조로 매년 증가세 지속 * 시장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7년 연속 인도의 최대 외국인 투자국으로 자리매김하며, '24~'25년 회계연도 기준 약 150억 달러 규모를 인도에 투자
태국	• 對한국 투자 규모는 미미하나, CP ALL社의 GOPIZZA 투자 등 F&B·리테일 연계 진출 중심
필리핀	• 자산 회수 전환연누계 축소, 부채성(관계 회사 대출) 회수 우세·지분은 소폭 배치, 확정 집행은 재생에너지·항만 중심(호주·인도·브라질)
호주	• FDI 규모 4,317억 호주달러(2,815억 달러, 전년 대비 +12.9%), 광업·금융·부동산 중심의 글로벌 확장세 지속
뉴질랜드	• 재생에너지·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반면 폰테라(Fonterra) 글로벌 사업 매각으로 일시적 위축 가능성

2. 정치(정책) 환경

- 국가별 정권 유지 흐름 속 내각 확대·재편을 통한 정치 안정화가 진행
- 디지털·통상 법제화와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외국 기업 유치 강화
- ESG 공시, 원산지 검증, 환경·노동 규제 강화로 비용·행정 부담이 증가할 전망

가. 정부 현황

□ 권위주의부터 민주주의적 집권체제가 병존하는 동남아·대양주

- 권위주의 통제체제 : 왕실·군부·세습 권력이 국가 운영을 주도
 - (태국) 국회 표결을 통해 품파이타이 당수 아누틴이 총리로 선출^{'25년 9월 5일}, 1년여의 정국 불안 이후 연립 기반 재편 진행
 - (캄보디아) 국왕은 상징적·의례적 국가원수 역할을 수행하고, 정치적 실무 권한은 정부총리·내각가 행사,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로, 5년마다 실시되는 총선 결과에 따른 다수당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국정 전반 운영
 - (미얀마) 국가방위안전위원회^{NDSC}는 지난 5년간 지속^{'21년 2월 이후 일곱 차례 연장}된 국가비상사태를 해제, 미얀마는 2차례^{'25년 12월, '26년 1월}에 걸쳐 총선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
- 국가 주도 일당체제 : 공산당을 중심의 중앙집권형 구조
 - (베트남) 공산당 일당제 사회주의 공화제, 부처 통폐합^{22개→17개} 및 부총리 증원^{5명→7명}을 통한 효율화 추진

베트남 정부 중앙부처 개편 사항

기존 부처·기관	신설(개편) 부처
기획투자부(MPI)	재무부(MOF)
재무부(MOF)	
건설부(MOC)	건설부(MOC)
교통부(MOT)	
농업농촌개발부(MARD)	농업환경부(MAE)
천연자원환경부(MONRE)	
정보통신부(MOIC)	과학기술부(MOST)
과학기술부(MOST)	

기존 부처·기관	신설(개편) 부처
노동보훈사회부(MOLISA)	내무부(MOHA)
내무부(MOHA)	
소수민족위원회	민족종교부(Ministry of Ethnicity and Religion)
내무부 內 종교 담당 부서	
국방부, 공안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무역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부, 보건부 8개 부처는 유지	

자료: Resolution No.176/2025/QH15

- (라오스)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한 부처 간 역할 중복 해소와 책임 명확화
 - * 중앙정부 4개 부처를 통합하여 전체 부처 수를 17개에서 13개로 축소
- 선거 기반 준민주·정당우위형 : 선거 기능은 작동하나 불균형 권력 구조 존재
 - (인도네시아) ‘메라 푸티’^{Kabinet Merah Putih, 적백 내각}로 명명된 프라보워 내각은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정부 구성
 - * 행정부는 총 48개 부처로 구성, 장관과 정부 기관장은 총 109명으로 역대 최다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내각의 신설 조직

조직명	주요 내용
국가경제위원회 (National Economic Counc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년 설립되었으나, 1년 만에 해산. 이후 프라보워 정부 출범과 함께 재설립 • 프라보워 대통령의 직속 경제 싱크탱크로 기능
대통령 특별자문·특사·전문보좌진 (Advisors, Special Conveys, Specialized Staff to the Presid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특별자문 : 자문기구로 부처 관할 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제시 • 대통령 특사 :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되며, 국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협상 수행 • 전문보좌진 : 부처 간 정책 연계와 운영을 실무 차원에서 조정
국가영양청 (National Nutrition Ag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사업을 주도, 국가식량청의 식량·영양 담당 기능 이관 • 아동 영양 관리 및 급식 정책 실행을 총괄
BPI 다난타라 (BPI Dananta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영 기업의 투자 성과를 강화하고, 싱가포르 데마섹(Temasek)과 유사한 자산운용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한 국부펀드
개발감독 및 특별조사청 (Development Control and Special Investigation Ag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개발 프로그램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기구로 신설됨 •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부정·비효율을 방지하는 임무 수행
빈곤퇴치 촉진청 (Poverty Reduction Acceleration Ag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전역의 빈곤 관련 정책을 총괄·연계하기 위한 기구로, 각 부처의 빈곤 관련 사업을 정렬하고 통합된 실행 전략을 수립

자료: 인도네시아 대통령실

- (싱가포르) 로렌스 웡 총리, 첫 총선^{'25년}에서 확고한 정치적 신임 확보, 여당으로는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 PAP}, 야당으로는 노동자당 등이 있음
 - *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정치 및 행정 분야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
-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총리, '희망연합'^{PH} + 국민전선^{BN} + 사라왁 당 연합^{GPS} + 사바인민연합^{GRS} 등 다수 정당 참여 연립 정부 구성해 국회 의석 분포상 안정 다수 확보로 법안 통과 기반 마련
- (필리핀) 마르코스 정부 정권 유지, 연합 균열은 제도권 이슈로 확대
 - * '24년 6월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이 교육장관 등에서 사임, '25년 2월 하원 탄핵 가결 후 '25년 7월 대법원이 탄핵소추의 위헌을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리며 권력 갈등이 제도적 공방으로 전환
- 제도화된 자유민주주의형 : 성숙한 의회·선거제 기반의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 (호주)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의 노동당 정부가 집권 중, 노동당은 '25년 5월에 실시된 호주 연방 총선에서 하원 150석 중 94석을 확보하여 압도적인 승리

호주 신설 조직

명칭	노동당 (Labor Party)	자유당 (Liberal Party)	국민당 (The Nationals)	녹색당 (The Greens)
로고				
현 당대표	Anthony Albanese	Sussan Ley	David Littleproud	Larissa Waters
보유 의석수	94	34	9	1

자료: 호주 의회(Parlliament of Australia), '25년 8월 기준

- (뉴질랜드) 크리스토퍼 럭슨이 이끄는 국민당이 54대 총선에서 ACT 당과 NZ First 당과 연합정부를 구성^{'23년 10월}하여 승리, 다음 총선은 '26년 10월 예정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 (디지털 거버넌스) 디지털·AI 거버넌스 강화와 정부 투명성 제고

- 베트남 :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정부 구축 가속화
 - 국가데이터센터^{NDC} 승인 및 범정부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구축
 - 행정 절차 간소화·공공서비스 온라인화로 투명성 제고
- 싱가포르 : AI 거버넌스 체계 강화와 국제 연계 확대
 - '25년 AI Verify 프레임워크 대폭 개편, Global AI Assurance Pilot 출범
 - AI 투명성·데이터 보호 표준 마련, 글로벌 신뢰성 검증체계 주도

□ (통상·규제 환경) 통상 절차의 법제화·전자화 및 자유무역 확대

- 베트남 : 내국 수출입 법제화 및 세무 리스크 해소
 - 관세법·부가세법 명문화^{Law No.90/2025}로 제도 안정성 확보
 - * 기존 시행령 수준에서 운영되던 내국 수출입 제도를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명문화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 내국 수출 물품에 부가세 0% 적용, 비관세구역 거래 제외 등 통관 절차 유연화
- 필리핀 : PTV·CEI 의무화로 수입 투명성 강화
 - 사전국경기술검증^{PTV} 단계적 시행 : 농산물 → 비농산물 → 기타 품목 순
 - 크로스보더 전자송장^{CEI} '25년 5월부터 의무화, BOC 필리핀 관세청 플랫폼 연동
- 뉴질랜드 : 다자간 FTA 자유무역협정 확대 및 무역 자유화 심화
 - (AANZFTA^{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업그레이드^{'25년 4월 발효}) 원산지·전자상거래 규범 개선
 - (ACCTS 협정^{기후·무역·지속가능성}), UAE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98.5% 관세 철폐 발효}

□ (투자 환경)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외국인 투자 제도 개편

- 태국 : BOI 인센티브 강화 및 토지 보유 규제 정비
 - BOI 승인을 받은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해 장기법인세 면제, 설비·원재료 관세 감면 등 기조 유지 및 경쟁력강화기금 100억 바트(약 3억 달러) 신설, 설비 디지털화·고도화 지원
 - '25년 9월부터 주거용 토지·주택 보유 특례 축소 등 자산 관리 엄격화
- 필리핀 : 'CREATE MORE'법 시행으로 투자 인센티브 확대
 - 첨단제조·반도체 등 8대 분야와 5대 기준을 바탕으로 집중 지원^{SIPP(전략적투자우선계획), '25~'27년}
 - * 8대 분야 : ①첨단 제조, ②반도체·전자, ③친환경 금속, ④첨단 농업, ⑤재생에너지·ESS^{에너지저장장치}, ⑥데이터센터·통신·사이버안보, ⑦관광, ⑧헬스케어·제약
 - * 5대 기준 : ①수요, ②인프라, ③공급망, ④기술, ⑤산업 육성 등
 - 법인세 25% → 20% 인하, 부가세 환급기한 90일 단축
 - 전기요금 100% 공제, 수출 기업 최대 27년 세제 혜택 제공

□ (환경 규제) 탄소중립·ESG 공시 강화 등 환경 규제 본격화

- 베트남 : 2050 탄소중립 로드맵 가속화^{SDGs 목표 달성을 위한 117개 세부 목표 수립·이행}
 -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Green Taxonomy^{녹색분류체계}, JETP^{정의로운에너지전환파트너십} 등 녹색 제도 도입
 - VNSI^{베트남 지속가능성지수}·CSI^{소비자심리지수} 지표 기반 ESG 공시 강화,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 의무화
- 싱가포르 : 탄소세 단계적 인상 및 기후공시 의무화
 - '25년부터 Scope 1·2 의무 보고, '26년 이후 Scope 3 확대

- 탄소세 인상²⁵ → 80 싱가포르달러/톤 예정, 저탄소 산업·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 태국 : 클린에어법·포장재 순환경제 입법 가속화
 - Clean Air Bill 통과 임박, 사업장·차량·노천소각·월경성 오염 관리 강화
 - '25년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 '27년 EPR^{생산자책임제} 시행 예정
- 필리핀 : 플라스틱 EPR 본격 시행
 - '25년부터 EPR 법^{RA 11898} 집행, 포장재 회수·재활용 의무
 - 미이행 시 최대 50만 페소(약 8천 달러) 벌금 및 프로그램 중지 등의 제재 부과
- 라오스 : 탄소배출권 시장 제도화
 - '25년 5월 공포 및 8월 시행, 배출권 등록·인증·거래체계 마련
 - 재생에너지, 산림, 농업, 폐기물 관리 등 탄소감축활동·프로젝트 추진 가능
 - * ESG 중심의 국제 투자자와 기업 파트너에게 매력적인 녹색 투자처로, 일정 비율의 배출권을 직접 확보하거나, 금융 상품화하여 기업 ESG 보고서 성과로 활용 가능
- 호주 : ESG 공시·친환경 조달 의무화
 - '25년 1월부터 기후재무공시 의무화 시행, 기업의 온실가스·기후 리스크 보고 의무
 - '24년 7월부터 ESPP 조달 정책 적용('24년 건설 분야에서 '25년에는 ICT·가구 등으로 확대)
 - * 환경부 정책에 따라 '24년 7월 1일부터 489만 달러 이상의 건설 서비스 조달에 1단계 시행되었으며, '25년 7월 1일부터 가구, 비품 및 장비, 정보통신기술 제품, 섬유 분야에 2단계 확대 적용

□ (노동 임금) 임금 인상과 노동 유연화 병행 추진

- 싱가포르 : 외국인 인력 제도 강화 및 유연근무제 정착
 - '25년부터 월 급여 기준 Employment Pass 5,600싱가포르달러, S Pass 3,300~3,800싱가포르 달러로 상향
 - '24년 12월부터 유연근무 요청 가이드라인 의무화^{고용주 2개월 내 회신 의무}
- 태국 : '25년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 및 추가 인상 논의
 - 직종·지역별 인상 및 조정 검토,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생산성 개선·자동화 병행
- 필리핀 : 압축근무제·유연근무제 유지 및 임금 인상
 - 주 6일 → 5일 압축근무제^{최대 12시간}, 플렉시타임·원격근무 허용
 - 수도권 최저임금 50페소 인상, 가정부 월급여 기준 7,000페소로 상향

3. 주요 이슈 Pick

가. [무역] 선진 시장의 무역 파고에 직면한 아세안

□ 아세안이 직면한 전방위적 무역 압박

- (배경 및 내용) 아세안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과 EU의 무역장벽 강화
 - 미국 : 아세안, 중국 주요 우회수출 통로로 의심받으며, 한국^{15%}, 일본^{15%} 등보다 높은 對미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아세안의 對미 수출은 △ 9.7% 감소할 전망
 - * 트럼프 행정부, 베트남 등을 통해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2배 부과 예고

아세안 주요국별 對미 무역 지표('25년 상반기)

구분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對미 무역수지(억 달러)	620.2	53.6	127.5	228.3	85.7	△14.5	24.3
對미 수출 비중(%)	32.3	37.5	14.8	20.0	10.9	9.6	16.0
상호관세(%)	20	19	19	19	19	10	19
對미 수출 감소 전망(%)	△19.2	△23.9	△10.4	△12.7	△6.4	△3.8	-

자료: WB(세계은행), ASEAN Stats(아세안 통계국), UNDP(유엔개발계획), USTR(미국 무역대표부)

- EU : EUDR^{'25년 12월 30일}, CBAM^{'26년 1월 1일} 등이 연속적으로 발효, 높은 ESG 역량을 보유한 선진국 기업들에게 경쟁우위를 제공하나, 아세안에게는 규제 장벽으로 기능

EU의 ESG 규제가 아세안 산업에 미치는 단기·직접적 영향

ESG 규제	발효일	도전과제	주요 타격 산업
EUDR (산림벌채방지규정)	'25년 12월 30일	• 소농의 원산지 증명 난제 : 수많은 소농에 대한 GPS 추적 및 산림파괴 여부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	산림 훼손 산업 : 팜유, 고무·목재·커피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	'26년 1월 1일	• 탄소 감축·측정 역량 부재 : 아세안 기업의 탄소 감축 기술 및 자본 부족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	탄소 고배출 산업 : 철강·알루미늄, 비료·시멘트

- (관련 분야·산업) 보호무역 및 ESG 규제 강화로 위기에 직면한 산업군
 - 아세안 공급망의 '탈중국화'에 따른 핵심 중간재 수요 확대

태양광 부품	• 역대 태양광 모듈 생산 업체에서 對미 수출을 위해 非중국산 셀, 웨이퍼 수요 확대
배터리 소재	• 양극재, 음극재 등 핵심 소재, 탈중국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추진 중인 미국의 정책과 부합

- 아세안의 ESG 규제 대응 지원을 통한 공급 기회 발굴

저탄소 철강·시멘트·알루미늄	• CBAM 대응이 어려운 아세안 고탄소 산업 대신, 한국의 저탄소 제철,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시멘트, 재활용 알루미늄 제품이 EU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ESG 관리·디지털 솔루션	• 아세안 기업들의 ESG 대응 역량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의 블록체인 기반 공급망 추적, 탄소 측정, ESG 컨설팅 솔루션 수출 기회 확대

- (우리 기업 영향) 아세안에 가해지는 압력이 우리 기업의 기회로 작용
 - 非중국산 공급자 : 한국 기업은 중국산을 대체하는 안정적 공급원으로 자리매김하며, 전자·배터리·태양광 분야에서 아세안 기업의 신규 협력 수요 흡수
 - ESG 대응 파트너 : 한국은 저탄소 소재^{철강·시멘트·알루미늄}, 친환경 섬유·전자부품, ESG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여 EU 시장 진출의 대체 경로 및 파트너로 부상

나. [지경학] BRICS와 ASEAN의 전략적 교차로

□ 보호무역 파고에 직면한 아세안, 대안적 질서를 표방하는 BRICS로 눈길

- (배경 및 내용)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이 BRICS 가입 추진, 연계 가속화
 - 기획 : '24년, 아세안 총 교역액 중 對BRICS 비중은 29.9%로 가파른 증가세 지속 및 BRICS 신개발은행^{NDB}을 통한 신규 개발 자원과 투자 유치 기회 확대
 - * 인도네시아는 BRICS 가입 직후 UAE로부터 1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

아세안의 對BRICS 및 對G7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G7	수출	267.5	25.5	297.0	25.3	391.6	28.0	528.6	27.1	307.8	28.1
	수입	259.6	27.3	260.0	23.6	278.2	21.9	355.0	18.8	192.1	18.4
	교역	527.1	26.3	556.9	24.5	669.8	25.1	883.6	23.0	499.8	23.3
BRICS	수출	232.8	22.2	275.2	23.5	331.6	23.7	480.0	24.6	248.4	22.6
	수입	221.8	23.3	320.5	29.1	411.0	32.3	668.6	35.4	383.7	36.8
	교역	454.6	22.7	595.8	26.2	742.6	27.8	1,148.6	29.9	632.1	29.5

자료: ASEAN Stats

- 위협 : 트럼프, BRICS 동조 국가에 10% 추가 관세 경고^{'25년 7월}, BRICS 국가에 대한 고관세 압박이 아세안에도 작용하며, 수출 불확실성이 확대될 위험 상존
 - * BRICS 주요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율 : 브라질(50%), 러시아(N/A), 인도(50%), 중국('26년 11월 10일까지 보복관세 1년 유예로 미국의 對중 관세는 45%), 남아공(30%)
 - * △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 하에 있어 별도 관세 대상에 미포함, △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50%의 對미 관세가 부과됨(기본 관세 25% + 제재성 관세 25%)
- (관련 분야·산업) 아세안-BRICS 연계 심화 속 한국 기업의 전략적 기회
 - 인프라·건설·스마트시티 : BRICS의 개발자금^{NDB, 중동·인도·중국 등}이 아세안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되며 토목·스마트시티 등 대형 프로젝트 수요 증가
 - 농식품·소비재 : BRICS와 교역 증가로 아세안 농산물^{팜유·커피 등} 수출 확대가 전망되나 품질·인증^{할랄 등} 미흡, 한국식 위생·가공 기술, 패키징 솔루션 공급
 - 디지털·금융 협력 : BRICS, ASEAN 자체 결제 시스템 구축 추진 → 핀테크, 블록체인 기반 결제·송금 시스템, 금융 보안 솔루션 등에서 협업 기회 확대
- (우리 기업 영향) 아세안-BRICS 연계 심화 속 상존하는 기회와 위기
 - 시장 확대 기회 : 아세안-BRICS 연계 심화는 서방을 대체하는 수요 창출 → 한국은 중간재·기술 공급자로 수혜 가능
 - 공급망 내 입지 강화 : BRICS 자원과 아세안 생산기지 결합 구조에서, 한국은 고부가가치 중간재·첨단 기술 제공자로 자리매김
 - 경쟁 압력 병존 : 가격 경쟁력으로 무장한 중국·인도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가속화 가능성 확대 → 한국은 품질·기술력·신뢰성을 무기로 차별화 필요

다. [대외 영향] 미국의 안보·원조 구조 재조정

□ 미국의 안보·원조 지원 축소에 따른 도전과 기회요인 발굴

- (배경 및 내용) 트럼프 2.0 행정부의 안보 비용 부담 요구와 원조 축소
 - 안보 : 미국 국방장관, 아시아 안보회의^{싱가포르}에서 역내 국가들에게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요구^{'25년 5월 31일}, 싱가포르를 '25년 국방 예산을 12.4% 증액
 - 원조 : 트럼프 행정부의 USAID^{미국 국제개발처} 폐쇄^{'25년 7월} 및 해외 원조예산 600억 달러 삭감^{83% 감소}으로 아세안 국가별 미국의 원조 금액이 90% 이상 감소할 전망^{SAS}
 - * USAID 해체는 인도주의적 지원 축소를 넘어, 미국 핵심 소프트파워의 상실을 의미, 장기적으로 아세안 내에서 미국의 신뢰·영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미국의 대외 원조 추이

국가	2024년 (백만 달러)	2025년 (백만 달러)	증감률 (%)	미국의 對아세안 원조 축소에 따른 영향
인도네시아	794.7	47.6	△94.01	• 자연재해 구호사업 및 에이즈(PEPFAR), 결핵, 모자 보건 프로그램 등에 심각한 타격
필리핀	719.7	41.6	△94.22	
베트남	303.6	21.3	△92.99	• 전쟁 불발탄 제거 및 비엔화 공항의 고엽제 오염 정화 사업 등 중단
미얀마	247.4	8.6	△96.54	• 태국-미얀마 국경지대에서 수만 명의 난민을 돌보는 의료시설 폐쇄
라오스	162.9	6.8	△95.80	• 농업, 보건, 지뢰 제거 프로젝트 등 중단 위기
캄보디아	143.9	24.9	△82.74	
태국	48.1	8.7	△81.78	•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위해 활동하던 NGO, 미국 원조 중단으로 폐업

자료: ISAS(Institute of South Asian Studies, 싱가포르 싱크탱크), 현지 언론 종합

- (관련 분야·산업) 미국 안보·원조 지원 축소가 창출한 대체 수요 분야
 - 방산·안보 : 미국 국방비 부담 압박으로 동남아대양주 각국에서 방위력 강화 추세 → 방산 장비, 사이버 보안, 무인체계, 감시·정찰 장비 수요 증가
 - 보건·의료 : USAID 폐쇄로 보건·위생, 전염병 대응, 인도적 구호 분야 공백 발생 → 한국의 제약·의료 기기·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기회
 - 인프라·개발 협력 : SOC^{사회간접자본}, 농업, 환경, NGO 활동 등 원조 중단으로 사업 공백 → 한국의 건설·환경·농업기술 기업의 대체 가능성 확대
- (우리 기업 영향) 미국 지원 축소 속 상존하는 기회와 도전
 - 시장 진출 기회 확대 : 미국 원조 축소로 공백이 생긴 분야에서 신규 수요 창출 → 한국은 건설·의료·제약·환경·농업 등의 분야에서 대체 공급자로 부상 가능
 - 공급망·파트너십 기회 강화 : 국가별 국방·보건·인프라 예산 확대 과정에서, 한국은 중견 기술국으로서 방산·보건·인프라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
 - 장기적 영향력 확대 가능성 : 단순 수출을 넘어 ODA^{공적개발원조} + 민간 기업 패키지형 진출을 통해 지역사회 신뢰 확보 → 한국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및 소프트파워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 경쟁 압력 병존 : 미국의 공백을 중국·인도·중동 자본이 메우려는 움직임 예상 → 한국은 투명한 제도 준수, ESG 기반 신뢰, 기술 우위로 차별화 필요

라. [고령화] 아세안에 밀려오는 실버 물결

□ 고령화, 단순한 사회 현상을 넘어, 경제·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 초래

- (배경 및 내용) 전례 없는 속도로 가파르게 진행되는 아세안의 고령화
 - 아세안의 고령인구^{60세 이상} 비중은 12.2%^{'24년} → 22.9%^{'50년}까지 증가할 전망^{WHO(세계보건기구)}
 - 선진국이 수세기에 걸쳐 경험한 고령화가 아세안에서 압축적으로 진행되면서, 의료·복지 시스템의 재정 압박 및 정책적 준비 부족으로 사회적 충격 가중

아세안 국가별 고령화 지표

국가	2024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	고령 사회 진입 (연도)	초고령 사회 진입 (연도)	2024년 노년 부양비 (%)
싱가포르	19.90	2018	2025	18.29
태국	15.36	2022	2039~2041	21.98
베트남	9.00	2036~2038	2050	13.36
말레이시아	7.74	2048	2060	10.98
미얀마	7.30	2051	2075	10.68
인도네시아	7.27	2045~2050	2062~2067	10.70
캄보디아	6.16	2059~2063	2085	9.62
필리핀	5.49	2069	2080	8.24
라오스	4.67	2068~2072	2100	7.16

사회연금 제도 설계 현황

국가	사회연금(비기여형)			사회연금(기여형)		
	선별적 (소득별)	고령층 대상 (+65)	기여연금 최저보장	확정 급여형	확정 기여형	공무원 연금
싱가포르						
태국			○	○		
베트남	○	○	○	○		
말레이시아	○				○	○
미얀마		○				
인도네시아		○	○			○
캄보디아				○		
필리핀	○		○	○		
라오스				○		

자료: ADB(Aging Well in Asia)

- 특히 아세안의 사회연금은 다양한 부문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국가별 사회연금 수령액 대부분 1인당 GDP의 10% 미만과 지출액 GDP의 0.5% 미만은 제한적

* 사회연금 수령액(1인당 GDP 대비 %) : (말레이시아) 11, (베트남) 7, (인도네시아) 6, (필리핀) 4, (태국) 4

* 사회연금 지출액(GDP 대비 %) : (태국) 0.4, (필리핀) 0.4, (베트남) 0.1, (말레이시아) 0.05

- (관련 분야·산업) 고령화로 부상하는 핵심 산업 기회

- 의료·헬스케어 산업 : 고령 인구 증가로 만성질환 관리, 장기요양, 원격의료 수요 급증 → 한국의 의료기기, 제약,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유리
- 실버산업^{요양·복지 서비스} : 요양시설, 홈케어, 실버타운 등 민간 서비스 수요 확대 → 한국의 요양병원 운영 경험, 복지 서비스 모델 수출 기회
- 연금·보험·핀테크 : 사회연금의 재정 압박과 낮은 지급률 → 민간 연금, 건강보험, 실버 금융상품 필요성 증가 → 한국 금융사·핀테크 기업 진출 가능

- (우리 기업 영향) 한국 기업의 차별화 전략과 기회요인

- 서비스·솔루션 수출 확대 : 단순 제품 공급을 넘어 병원 운영 노하우, 디지털 헬스케어, 장기요양 관리 모델 등 한국형 패키지 솔루션 수출 기회
- 민간 금융·보험 진출 기회 : 아세안 공적연금의 취약성 보완 수요 확대 → 한국 금융·보험사가 실버 전용 상품으로 시장 선점 가능
- 경쟁 압력 병존 : 일본, 중국 등도 실버 산업 진출 확대 중 → 한국은 가격 경쟁력보다는 품질·서비스 신뢰성으로 차별화 필요

마. [에너지]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아세안의 선택

□ 발전원 다변화와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 (배경 및 내용) 화석연료 의존도 감축 위한 발전·송전 인프라 확충 현황

- 아세안의 석탄 발전소는 평균 가동 연수가 15년 미만으로, 설계 수명(30~40년)에 크게 못 미치는 만큼, 조기 폐쇄에 난항 → 석탄 발전소 폐쇄에 따른 자산 리스크는 1,3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발전원 다변화 : 전력 수요 급증^{연평균 4%}으로 화석연료 의존 지속, 재생에너지의 가파른 성장에도 제약요인^{자연재해, 전력망}이 지속되며, SMR^{소형모듈원전}이 대안*으로 부상

* 국가별 원자력 도입 추진 내역 : 필리핀('32년까지 상업용 원전 1,200MW 목표), 인도네시아('32년 첫 SMR 가동 목표), 베트남('30년까지 원전 가동 추진), 태국('37년까지 SMR 600MW 도입 계획 구상)

아세안 발전원별 생산 비중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생산 (TWh)	비중 (%)	생산 (TWh)	비중 (%)	생산 (TWh)	비중 (%)	생산 (TWh)	비중 (%)
석탄	505	43.7(1.8 ↓)	509	41.6(2.1 ↓)	555	43.5(1.9 ↑)	603	44.5(1.0 ↑)
가스	341	29.5(0.6 ↓)	355	29.1(0.4 ↓)	374	29.3(0.2 ↑)	389	28.7(0.4 ↓)
수력	195	16.9(1.0 ↑)	226	18.5(1.6 ↑)	208	16.3(2.2 ↓)	221	16.3(0.0)
태양광	36.3	3.14(1.33 ↑)	37.4	3.06(0.08 ↓)	39.2	3.07(0.01 ↑)	43	3.17(0.1 ↑)
풍력	8.58	0.74(0.23 ↑)	13.5	1.1(0.36 ↑)	17.1	1.34(0.24 ↑)	17.8	1.32(0.02 ↓)
바이오 에너지	33	2.85(0.24 ↑)	39.4	3.22(0.37 ↑)	42	3.29(0.07 ↑)	41.5	3.06(0.23 ↓)

자료: Ember

- 송전망 확충 : 아세안은 송전망 건설, 고압 송전선 교체 및 '아세안 전력망 연결^{APG}'을 위한 고압직류 송전 사업 추진

* '30년까지 아세안의 국가별 송전망 확충 계획은 IEA가 추산한 필요량의 약 45% 수준

- (관련 분야·산업) 친환경 발전설비 및 전력 인프라 산업

- 석탄발전 환경설비 및 효율화 기자재 : 탈황·탈질 장치, 집진기, 보일러 고효율화 설비,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 공급 기회 확대
- 원전 및 SMR 관련 기술·부품 : SMR 핵심 계통^{냉각 시스템, 제어계측 장비, 안전설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술 및 전반적인 원전 관리 서비스
- 송전·배전 인프라 및 스마트그리드 : 초고압 송전 케이블, 변압기, HVDC^{고전압직류송전} 시스템, 디지털 전력망 관리 소프트웨어, 스마트미터링, DR^{수요반응} 시스템

- (우리 기업 영향) 아세안의 전력 시장 전환에 따른 기회와 도전요인 상존

- 기회요인 : 에너지 수요 확대와 정책 변화가 여는 기회

- 아세안 전력 수요 급증 → 발전설비·기자재 수요 확대 → 한국 기업의 기자재·EPC 수출 증가
-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SMR 검토 → 한국 원전·재생에너지 기술 경쟁력 부각
- 송전망 확충 필요성 증대 → 한국의 HVDC·스마트그리드 기술 수요 확대

- 도전과제 : 불확실성과 경쟁 심화로 인한 제약

- 석탄발전 장기 의존 → 신재생에너지·원전 프로젝트 지연 → 한국 기업 진출 속도 제한
- 발전·송전 인프라 구축의 대규모 자본·장기성 → 단독 진출보다는 금융·컨소시엄 협력 필요
- 중국 기업과의 가격 경쟁 심화 → 가격 경쟁력 열세인 한국 기업 부담

바. [환경] 동남아대양주가 직면한 기후변화 위기

□ 기후변화 압박 속 동남아대양주의 구조적 리스크와 새로운 기회

- (배경 및 내용) 기후변화에 대한 구조적 취약성 심화
 - 기후변화는 단순 환경 문제 →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 위기 요인으로 인식되며, '25년 처음으로 아세안의 최대 과제로 선정^{State of Southeast Asia Survey}
 - * 1위 극단적 기상이변(55.3%), 2위 실업 및 경기침체(49.3%), 3위 미국·중국 경쟁 격화(48.3%)
 - 아세안은 적도와 근접해 있어 연중 높은 기온, 기후 재난^{홍수 태풍 가뭄} 발생률이 높으며, 특히 섬·해안선이 긴 국가들은 해수면 상승, 해일로 인한 피해 심대

2025 World Risk Index(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위험성 지표)

순위	국가	World Risk Index	순위	국가	World Risk Index
1	필리핀	46.56	13	베트남	25.92
2	인도	40.73	17	일본	24.81
3	인도네시아	39.80	21	미국	23.09
5	멕시코	38.96	23	호주	21.90
6	미얀마	36.91	24	태국	20.03
9	중국	30.62	33	뉴질랜드	15.20

자료: IFHV(World Risk Report 2025)

-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재난 대응을 위한 재정·기술적 역량이 부족한 만큼, 비교적 심대한 피해* 발생
 - * 홍수 발생 시 장기간의 도로 침수 및 노후 전선으로 인한 감전사고 등 취약 사례 다수
- (관련 분야·산업) 인프라뿐 아니라, 기후 금융으로 확장되는 대응 산업
 - 기후 적응 인프라 : 해안 방재 시설, 배수망 등 방재형 도시 설계, 기후 적응형 작물, 스마트 농업 솔루션, 절수형 관개 시스템 수요 확대
 - 재난 대응 서비스 : AI·빅데이터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 위성 모니터링, 재난 대응 ICT 플랫폼 및 재난 안전 인프라와 스마트 전력 안전관리 시스템 등
 - 탄소 시장·녹색 금융 : 탄소배출권, 녹색채권, 기후 펀드를 통한 프로젝트 및 ESG 규제에 기후 리스크 평가·탄소 회계 서비스 등 컨설팅 수요 확대

• (우리 기업 영향)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아세안 기후 시장 진출

- 기회요인 : 기후 대응 수요가 여는 신시장 기회

- 한국의 방재 인프라 건설 경험, 스마트 농업 기술, 수자원 관리 솔루션 기술 도입
- 재난 예측·조기경보, 전력 안전 관리, 기후 데이터 플랫폼 기술로 신뢰성 높은 시장 진출 가능성
- ESG·기후 금융 전문성을 활용한 녹색채권, 탄소 시장, 컨설팅 분야 진출 기회 확대

- 도전과제 : 불확실성과 제약이 동반하는 구조적 리스크

- 기후재난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사업 지연 위험이 여전히 상존
- 개도국의 재정 한계와 정책 불안정성으로 프로젝트 중도 무산 가능성
- 탄소 규제 강화로 제품·서비스의 ESG 적합성 확보가 필수 과제로 대두

사. [통합]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과 역내 포용 확대

□ 동티모르 가입에 따른 산업별 수요 확대 및 협력 기회

• (배경 및 내용) 동티모르, 아세안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

- 동티모르^{티모르-레스트}, 제47차 아세안 정상회의^{25년 10월 26일}에서 아세안 11번째 회원국으로 공식 승인, 아세안의 '90년대 이후 첫 회원 확대

* ('11년) 가입 신청 → ('22년) '원칙적 합의'(Observer·로드맵 이행) → ('25년 10월 26일) 공식 가입

- 동티모르는 타 회원국 대비 제도적^{인프라·행정 역량 회의 운영 능력 등}으로 미성숙한 점 등으로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에 있어 국가별 입장 차이가 존재하였음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에 대한 국가별 입장 차이

구분	주요국	입장	핵심 내용
찬성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베트남	즉각 가입 지지	• 동티모르를 포용해 역내 결속 강화 필요. 새 회원국 지원을 통해 '아세안 공동체 완성' 추구
신중	싱가포르,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역량 개선 후 가입	• 제도·행정 역량 부족 시 아세안 운영 부담 증가. AEC (경제공동체) 추진 속도 저해 우려
반대	미얀마	정치적 반발	• 동티모르의 미얀마 사태 비판에 대한 반발. 아세안 비개입 원칙 충돌

-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은 역내 포용성·결속 강화 및 신흥 소국의 제도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아세안 내부 격차 축소^{ASEAN Cohesion} 아젠다 부각

- (관련 분야·산업) 동티모르 가입에 따른 산업별 수요 확대 영역

- 기초 인프라^{교통·항만·상하수도·전력 등} 수요 : 회원국 편입으로 아세안 자원·파트너 연계^{ADB·AIIB·NDF 등} 역내·다자 자원 접근성 및 맞춤형 투자 패키지 활용 가능성 고조
- 가스전 개발 연계 : Greater Sunrise 광구 등의 자원 개발과 가스 처리·LNG·파이프·항만 연계 인프라 개발 수요 확대 전망
- 소규모 경제의 산업화 초기 수요 : 산업 기반이 얇은 만큼, 설비·중간재^{기계, 전기, 중장비 등} 수입 수요 증가 및 아세안 편입으로 조달·통관 환경 개선 전망
- 제도 역량·사회 서비스 강화 : TVET^{직업훈련}, 보건·원격의료, 공공의료 인프라, 교육 콘텐츠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전체 인구 139만 명 대비 청년인구 비중이 높아 인력 양성·창업·핀테크·전산 교육 니즈가 클 전망

- (우리 기업 영향) 한국 기업의 기회 확보 및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필요성

- 기회요인 : 회원국 확장에 따른 진출 경로 다변화 및 패키지형 진출 기회

- 동티모르의 정회원 편입으로, 소규모라도 국가 단위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한 조기 성과 확보 가능
- MDB(다자개발은행)·ODA 연계형 인프라 수요 증가 예상, 한국 기업의 '금융 + EPC+운영' 결합형 진출 모델 활용성 확대
- 행정·조세·인력 훈련 체계가 미성숙한 환경에서 전자정부·공공 플랫폼·직업 훈련 솔루션 제공 기회 확대

- 도전과제 : 소규모 시장^{1인당 GDP 1,450달러}·제도 미성숙에 따른 프로젝트 리스크 상존

- 경제 규모가 작고 제도 역량이 미성숙하여 프로젝트 승인 지연, 법·정책 변경 리스크 상존
- 제한적 공공 투자 자원과 외부 차입 의존도가 높아 대형 프로젝트의 자원 조달·수익성 확보가 불안정

아. [사회] 아세안 시위의 지역적 확산과 그 배경

□ 국가별로 상이한 불안 요인, 그러나 청년층이 핵심 주도 세력으로 부상


- 태국·미얀마에서 인도네시아·필리핀·동티모르로 번지는 민주주의
 - 아세안은 오랫동안 정치적 불안과 사회 갈등이 공존해온 지역으로, 과거 태국과 미얀마의 시위가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음
 - 최근 들어 시위 양상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티모르 등으로 확산되며, 정치적 요구뿐만 아니라 생활고와 경제적 불만이 결합된 형태로 발전
 - 이로 인해 아세안은 민주주의 체제의 불안정, 사회·경제적 불평등, 청년층의 정치적 각성이 복합적으로 표출되는 상황에 직면

- 국가별로 다른 불만 요인, 그러나 공통적으로 청년층이 시위를 주도
 - (태국) '14년 쿠데타 이후 장기간 이어진 군부 중심 정치에 대한 불만이 남아 있으며, 청년·대학생을 중심으로 개헌과 민주화 요구 시위가 주기적으로 발생
 - (미얀마) '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시민 불복종 운동^{CDM}과 무력 저항이 격화되면서 시위는 단순한 평화적 집회 단계를 넘어 내전 양상으로 발전
 - * 도심 시위뿐 아니라 소수민족 무장단체와의 연합 저항이 확산되며, 사상자 급증
 - (인도네시아) 최근 물가 상승, 부정부패, 정치 엘리트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으며, 특히 수도 자카르타와 주요 대학가를 중심으로 청년과 노동계가 주도하는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
 - (필리핀) 마르코스 Jr. 정권 출범 이후 기대와 달리 생활비 상승, 사회 불평등 심화가 불만으로 표출, 노동자 단체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반정부 구호가 확산
 - (동티모르) 신생 독립국으로서 경제 성장 부진과 청년 실업 문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겹쳐 시위 확산, 주로 수도 딜리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시위가 발생하며, 생활 여건 개선과 정치 개혁 요구가 동시에 제기
- 정치 불안·경제 불평등·청년층 각성이 교차하며 구조적 불만으로 표출
 - 아세안 시위의 공통점은 △ 정치 제도의 불안정, △ 경제적 불평등, △ 청년층의 정치·사회 참여 요구라는 세 가지 축으로 요약 가능
 - ①태국과 미얀마의 경우 정치 체제 변화 요구가 강한 반면, ②인도네시아·필리핀·동티모르는 생활고와 정부 불신이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
 - 그러나 공통적으로 도시 청년층이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시위의 지속성과 확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적 파급력은 심대
 - 이러한 양상은 단순한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동남아 전반에서 정치·경제적 전환기에 나타나는 구조적 불만이 집단적으로 분출되는 과정으로 평가



Ⅱ.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28
2. 유망 산업	72
3. 협력 기회	76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 주요 특징 : 생산 허브형, 내수 성장형, 자원 기반형, 테스트베드형 시장이 공존
- 소비 성향 : 젊은 인구·중산층 확대와 디지털 소비 증가로 소비재·콘텐츠·K-라이프스타일 수요 급증
- 주요 인증 :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BPOM·SNI·SIRIM·SFA·HSA 등 품목별 사전 등록 및 표준·할랄·위생 인증 체계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이며, 라벨링·안전·검역 등 규제형 진입장벽이 국가별로 상이
- 전략적 가치 : 생산기지, FTA 수출 거점, 할랄·ESG 실험시장, 자원·중간재 조달처 등으로 활용 가능

가. 시장 특징

□ 주요 특징

- 베트남 : 'China+1' 핵심 수혜지 → 글로벌 제조·핵심 광물 공급망 허브 부상
 - (입지) 글로벌 전자·전기·섬유 기업 투자가 집중되며 조립·가공 중심의 제조업 밸류체인이 확립되고, '글로벌 생산 허브'로 빠르게 위상 강화 중
 - (자원) 희토류^{세계 6위}, 보크사이트^{세계 3위}, 텅스텐^{세계 4위} 등 핵심 광물을 바탕으로 한국 등과 공급망 협력 확대 및 전략적 협력^{기술협력센터 설립 등} 강화 추진
 - (산업 구조) 후방 산업^{원부자재 공급} 중심의 낮은 부가가치 구조, 전력·인력 부족이 성장의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존재
 - (FDI) FDI 기업이 국가 경제 성장 견인, '24년 전체 수출의 약 71.7% 차지

'19~'24년 베트남의 자국 및 FDI 기업의 대외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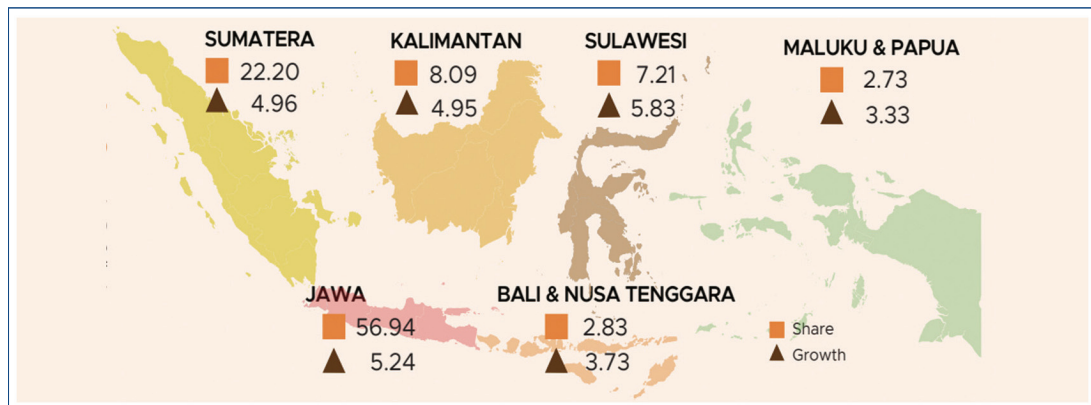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자국 기업	78,989(29.9)	78,196(27.7)	89,290(26.6)	95,842(25.8)	95,655(27)	114,910(28.3)
FDI 기업	185,277(70.1)	204,432(72.3)	246,876(73.4)	275,872(74.2)	259,065(73)	291,025(71.7)
계	264,267(100)	282,628(100)	336,166(100)	371,715(100)	354,721(100)	405,935(100)

주: '24년 수출 통계는 잠정치이며 괄호 안은 수출액 기준 비중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25년 9월 기준 최신 자료)

- 인도네시아 : 약 2억 8,000만 명 인구의 대규모 내수 시장을 보유한 성장 잠재 대국
 - (잠재력) 인구 2억 8,000만 명 중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70%를 넘어 내수 소비 기반 확대 가능성이 크며 글로벌 진출 기업의 수요가 높음
 - (경제 편차) 자바섬 중심의 경제 집중과 지역별 구매력 격차가 커 물류비·수요 편차를 고려한 맞춤형 시장 진입 전략이 필요

〈'25년 2분기 인도네시아 지역별 GDP 성장률 및 기여도〉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25년 9월)

- (디지털) 디지털 기반 확대를 위해 정부가 지역별 디지털 연결성 향상을 추진하며 격차 완화를 시도 중
- 싱가포르 : 초개방형 무역 및 기업친화 환경 기반의 비즈니스 허브
 - (무역) 전체 수입품의 99% 이상이 무관세이며 일부 특정 품목만 특별소비세 또는 관세가 부과되는 자유무역 환경 보유
 - (기업 환경) 낮은 법인세, 영어 공용화, 투명한 사법·행정체계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역내 거점 및 본부 유치에 강점
 - (다문화) 다문화 사회 기반으로 새로운 트렌드 수용성이 높아 동남아 시장 진출 전 테스트 시장으로 활용 가능

- 말레이시아 : 천연자원·제조업 기반, FDI와 자국민 사업 보호 간 균형 추구
 - 정부 주도의 개방 경제와 천연자원·제조업 기반의 산업 구조, 반도체·전자·자동차 제조 등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이며 인프라와 영어 기반 인력이 강점
 - 디지털 경제 확산 및 첨단 제조 육성 전략을 추진하며 산업 구조 고도화 시도, 다만 부미푸트라 정책 등 전략산업에서 외국 기업 진출 제한이 존재
- 태국 : 제조·수출 기반 개방형 경제, 역내 생산·무역 결제 허브 역할 강화
 -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기반으로 아세안 대표 생산 거점 역할을 수행
 -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 등 인접국과의 무역 결제에서 바트화 활용이 확대되며 경제권 내 영향력 강화
- 필리핀 : 전자·반도체 수출 급증, 한국-필리핀 FTA로 제조업 협력 확대 전망
 - (전자) '25년 6월 누계 기준 전자제품·반도체 수출 전년 동기 대비 약 25~30% 증가
 - (한국-필리핀 FTA) '25년부터 한국-필리핀 FTA 2년차 적용 발효로 한국산 제품의 96.5% 관세 철폐가 단계적으로 이행되며 자동차 등 제조업 진출 여건 개선
- 캄보디아 : 봉제 중심 산업 → 자동차·전자 등 고부가가치 제조로 다변화 중
 - (산업 구조) 단순 봉제 중심 산업에서 자동차·전자 부품, 농식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수출 구조 전환 추진
 - (GVC ^{글로벌 가치사슬}) 다양한 무역협정을 통해 수출국 다변화 및 역내 밸류체인 참여 추진
- 라오스 : 수입 의존형 경제, 농업·광업 중심 저부가가치 구조 유지
 - 농업·광업 등 1차 산업에 치중, 가공품·생활용품은 주로 태국·중국에서 수입
 - 내수 시장 규모가 제한적이므로 틈새형 수요 및 기초 제조 중심 접근 필요
- 미얀마 : 자원·임지 이점에도 불구하고, 산업 기반 취약성과 제재로 성장 정체
 - 자원·지리적 강점 보유하나 금융 제재와 가공 역량 부족으로 산업 성장 지연
 - 성장 이익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며 경제 위축 및 소비 양극화 심화
- 호주 : 안정적 경제 성장 기반 아래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 전환 추진
 - (경제 성장) 세계 경제의 1.6%를 점유하는 세계 13위 경제 대국으로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지난 30년간 지속적인 경제 성장 경험
- 뉴질랜드 : 1차 산업 중심 경제, ESG·탄소중립을 목표로 지속가능 성장 추구
 - (경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1차 산업 ^{유제품·육류·과일·목재} 등이 경제의 중추
 - (환경의식) 정부와 기업, 소비자 모두 탄소중립·윤리 소비를 중시하며 지속가능 가치 소비가 확대 되는 추세

□ 구매력, 소비 성향

- 베트남 : 중산층 확대와 가격·가치 동시 추구형 소비 패턴 확산 중
 - (내수 시장) 인구 1억 명 돌파와 경제 성장, 도시화에 따라 중산층과 가처분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내수 시장 확대 지속

'20~'28년 베트남 1인당 가처분소득 추이

(단위: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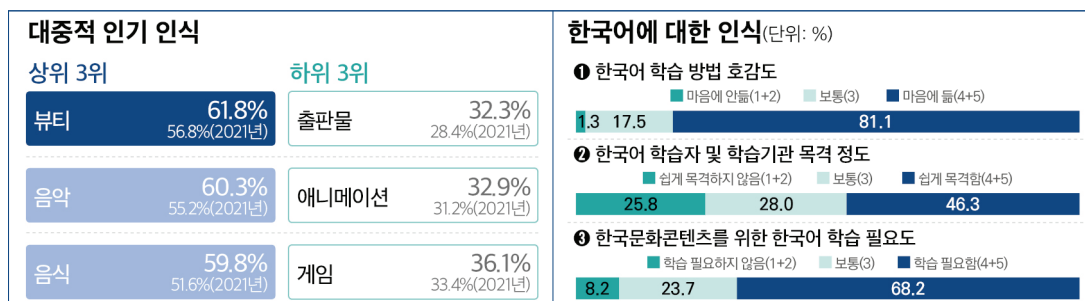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1인당 가처분 소득	2.66	2.67	2.83	3.02	3.2	3.32	3.44	3.64	3.85

주: '25년 이후는 예상치

자료: Statista,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Eurostat(유럽연합 통계국), WB PovcalNet, WID(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

- (소비 패턴) 가격 민감도가 높은 동시에 가치 소비도 병존, 디지털 기반 소비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옴니채널 소비 일반화
- 인도네시아 : 한류 호감도 기반 소비 확산 및 K-라이프스타일 수요 증가세
 -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호감도가 85.7%로 매우 높으며, 이를 통해 패션·뷰티·음식 등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확대

〈인도네시아에서 뜨거운 한류〉



자료: '25년 해외한류실태조사

- 트렌드를 적극 수용, K-콘텐츠 기반 라이프스타일 상품 수요 증가세 지속
- 싱가포르 : 경기 불확실성 지속으로 신중하고 실용적인 소비로 전환 중
 - 글로벌 평균 대비 높은 구매력을 유지하나, 관세 재부와 가능성과 거시경제 불안 요인으로 가계 소비 심리 위축 우려 존재
 - 소비자들은 대형 지출을 지양하고 필수품 중심, 가격 대비 가치가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신중한 소비 경향을 보임

- 말레이시아 : 인종·종교에 따른 소비 성향과 프리미엄 수요 동시 확대
 - 인종 분리 정책의 영향으로 종교·문화적 가치관에 따라 소비 성향 차이 뚜렷
 - 역내 최대 규모의 중산층 확대와 함께 프리미엄 소비재 시장이 연간 10.3% 성장하며 고품질·고가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22년 말레이시아 인종별 소득 상·중·하위 구간의 월 소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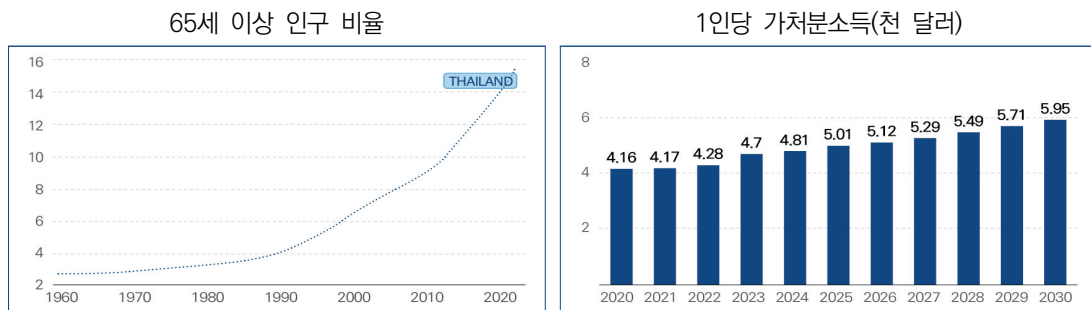
(단위: 달러)

인종		인종 내 소득 구간별 월 소득 기준치		
구분	비중(%)	하위 40%	중위 40%	상위 20%
부미푸트라	70.3	1,080 미만	1,080 이상 2,373 미만	2,373 이상
중국계	22.5	1,477 미만	1,477 이상 3,264 미만	3,264 이상
인도계	6.5	1,240 미만	1,240 이상 2,664 미만	2,664 이상
기타	0.7	864 미만	864 이상 1,704 미만	1,704 이상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 태국 : 고령화 및 한류 콘텐츠 영향이 동시에 반영된 감성·문화 소비형 시장
 - (고령화) WHO에 따르면 10년 내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며, 고령층 포함 전반적 가처분소득 증가 흐름 지속

〈태국의 고령화 및 가처분소득 추이〉



자료: WB(65세 이상 인구 비율), Statista(1인당 가처분소득)

- (한류) OTT에서 한국 드라마가 상위권 유지, 한류 기반 문화 소비 확대
- 필리핀 : 구매력은 개선되고 있으나 공공요금 부담 속 소액·분할 소비 확산
 - (구매력)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이 상쇄되며 실질구매력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력요금 등 공공요금 부담이 소비 여력을 제한
 - (소비 경향) 온라인 쇼핑 및 무현금 결제 확산으로 소액·분할 중심의 디지털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

- 캄보디아 : 젊은 중산층의 트렌드 주도형 소비와 디지털 경제 확산
 - (소비층) 빠른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젊은 중산층이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
 - (디지털) Facebook, TikTok, Telegram 등의 SNS 플랫폼을 통해 제품 확인 후 구매하는 추세 확대, Cash on Delivery 중심 구조에서 점진적 변화
- 라오스 : 소득별 소비 양극화와 글로벌 브랜드 수용형 소비 구조 병존
 - 중산층은 글로벌 브랜드 제품을 적극 소비, K-뷰티·푸드 수요도 지속 증가
 - 농촌지역은 가격 대비 가치를 중시한 실용형 소비자가 다수
- 미얀마 : 인플레이션 심화로 계층 간 소비 양극화 심화, 불안정형 내수 시장
 - 환율 불안과 물가 상승으로 고소득층은 여전히 프리미엄 소비를 유지하나, 저소득층은 생필품 중심으로 소비 제한
 - 해외 수입 생필품은 가격 변동성이 커 내수 시장 전반의 가격 불안정성이 소비 심리에 영향
- 호주 : 온라인 유통 확산과 경제 부담으로 순환형 소비 확대
 - Amazon, eBay 등 마켓플레이스 중심 전자상거래 확장과 물류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온라인 구매가 주요 소비 채널로 부상
 -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소비자들은 재활용·중고 거래가 확대되는 순환경제형 소비 트렌드로 이동 중
- 뉴질랜드 : 가치·신뢰 기반의 신중한 소비 성향과 브랜드 보수성이 공존
 - 뉴질랜드 소비자들은 실질적 가치와 브랜드 신뢰도를 중시하며 계획적이고 절제된 소비를 지향하는 특성이 강함
 - 이렇듯 신중한 소비 성향은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

□ 주요 인증

- 베트남 : 수입금지 규정과 보건부 사전허가·라벨 의무 중심 체계
 - (수입금지 품목) Decree No. 69/2018/ND-CP 부록1을 통해 총 14개 품목군을 법적으로 수입금지 대상으로 규정
 -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은 사전 제품 등록이 필요하며, 보건부 수입허가서를 요구, 수입·유통 제품은 베트남어 라벨로 ①제품명, ②책임자 정보, ③원산지 등 필수 정보 표기 의무
- 인도네시아 : BPOM·SNI·ALKES 인허가가 핵심인 비관세 장벽형 인증 체계
 - BPOM^{식약청}, SNI^{기술표준}, ALKES^{보건부} 인허가가 대표적이며, 인증이 없으면 통관 불가 사례가 많아 필수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인도네시아 주요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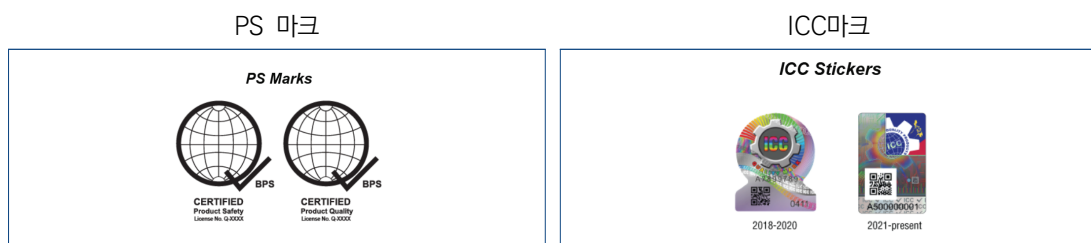
인증명	SNI	BPOM	ALKES/PKRT	HALAL
인증마크				
허가 기관	Bureau of Standard Nasional (BSN,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기구)	Badan POM (BPOM, 인도네시아 식약청)	Kementerian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인도네시아 보건부)	Badan Penyelenggara Jsinan Produk Halal (BPJPH, 인도네시아 할랄보장청)
성격	의무	의무	의무	계도기간 후 단계적 의무화 (식음료 '24년 10월, 의약품 화장품 '26년 10월부터)
주요 적용제품	철강, 전자기기, 공산품 등 ('20년) 238개 → ('25년) 322개	식품, 화장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의료기기(ALKES), 건강보조기구(PKRT)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생활용품 등 전반
신청 주체	수입업체	유형별 유통허가 (PSB)를 보유한 수입업체	의료기기 유통허가 (IPAK)를 보유한 수입업체	제조사
획득 소요기간	6~13개월	2개월~2년	2개월~1년	21~41일
획득 소요비용 (제품당)	10,000~20,000달러	700~5,000달러	1,000~5,000달러	15,000~18,000달러
유효기간	4년	3년(화장품), 5년(일반)	5년	4년
타국 인증 상호인정 여부	미인정	미인정	미인정	한국할랄인증원, 한국이슬람 중앙회, BIC 할랄 코리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인도네시아 통합 할랄협력센터

자료: KOTRA 자카르타무역관

- (SNI) BSN^{산업부 산하 표준청} 총괄의 국가 표준 인증으로, '24 산업부 규정 12~75호·'25 규정 2~20호로 강제대상 확대^{'25년 6월 기준 322개 품목}
- (할랄 인증) '23년 11월 KMF^{한국이슬람중앙회} 및 KHA^{한국할랄인증원}를 시작으로 총 5개 기관이 인도네시아 BPJPH^{할랄보장청}와 MRA^{상호인정협정} 체결

- 싱가포르 : SFA^{식품청}·HSA^{보건과학청} 규정 준수와 MUIS 할랄·Nutri-Grade 확대 적용
 - 식품 및 건강보조제 판매에는 SFA 등록·표시 기준 준수가 필수, 기능성 성분 제품은 HSA 가이드라인 적용^{표시·광고 규제 강화 추세}
 - (할랄 인증) MUIS 확보 시, 무슬림^{약 18%} 및 관광 수요 대응에 유리
 - (Nutri-Grade 제도) 포장·자판기 음료^{'22년 의무} → 신선 조제 음료^{'23년 12월 30일 시행}, '27년 조미료·소스·인스턴트 식품까지 의무 확대 예정
- 말레이시아 : SIRIM^{재무부 공식 표준 산업 연구기관} 중심의 의무인증과 품목별 전문기관 심사
 - (대표 인증기관) SIRIM이 제품 표준·품질관리·시험·검사를 주관하며, 국가 의무대상 품목은 SIRIM 인증·라벨 부착 법정 의무
 - (전기·전자) SIRIM 인증 + ST COA로 안전·에너지효율 확인, RoHS^{유해물질 제한지침} 기반 유해물질 제한 준수
 - (식음료) GMP^{우수제조기준} 의무,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조건부^{고위험 수출용 등}, 동물성 성분 포함 시 할랄 인증 필수
 - (화장품) NPRA^{국립약품규제기관} 기준에 따라 화장품 제조·수입·판매 전 제품에 CNH^{제품안전 통지책임자} 온라인시스템^{QUEST3+} 상 사전 제품 등록 및 심사 필수
- 필리핀 : BPS^{표준국}·NTC^{국가통신위원회}·DOE^{에너지부} 및 FDA^{식품의약품} 계열 절차를 묶은 품목별 다중 인허가 체계
 - (공산품) DTI-BPS의 PS^{필리핀 표준}·ICC^{수입검사} 의무대상 여부 사전 확인 필요

〈PS 및 ICC 마크〉



자료: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 (식품·의약·화장품·의료기기) 기업 LTO^{사업자} 취득 후, CPN^{화장품}, CPR^{식품·의약}, CMDR^{의료기기} 절차 진행 요구
- 캄보디아 : 비관세 조치 다수, 국제 인증 인정하되 일부 정부 추가 인증 요구
 - (비관세장벽) TBT^{무역기술장벽}·수출장벽·SPS^{위생검역}·비자동수입허가 등 조치 존재
 - (수입 인증) 국제 기준 인증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나, 일부 품목은 정부기관 추가 인증이 요구되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ISC가 표준·적합성 평가 총괄}

- 라오스 : 국제 인증 대체 허용, 축산 SPS 미체결 품목은 원칙적 수출 불가
 - (식품) 수입업체나 제품에 대해 별도의 현지 인증 취득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출국의 인증기관, 국제 표준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로 대체 가능
 - (SPS) 가공 축산물을 제외한 일반 육류·축산물은 한국-라오스 SPS 미체결로 원칙적으로 수출 불가
- 미얀마 : FDA^{식약청} 중심 사전 등록·승인과 농업부 품목별 검사
 - (의료품·의료기기) 보건부 산하 식약청의 승인 및 등록 필수, 통상 6개월 ~1년 이상 소요
 - (식품·화장품) 식약청 승인 및 등록 필요, 3~6개월 이상 소요
 - (농업 관련 제품) 비료, 농약, 종자 등은 농업부^{MOALI} 품질 검사·인증 필요
- 호주 : AICIS^{호주 산업화학물질도입제도}, TGA^{의약품관리국}, FSANZ^{식품기준청}, DAFF^{농수산임업부}, MEPS^{최소에너지성능표준} 등 분야별 명확한 규제체계
 - (화학) AICIS : 농업·의료·식용 제외 산업용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규제
 - (의약품·의료기기) TGA가 적합성 평가 + ARTG^{호주 치료용 제품 등록부} 등록 등 전주기 관리
 - (식품) FSANZ가 식품안전·라벨링·알레르기 표시 규정 관리
 - (식품 검역) DAFF가 검역·안전성 확인, 검역 인증서 발급과 BICON^{생물보안수입 조건} 시스템으로 기준 확인·인증서 발급
 - (에너지) MEPS은 전기·가스 제품의 시장 출시를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 기준, 온라인 DB 등록, 판매 전 법적 요구 충족 필수
- 뉴질랜드 : MPI^{뉴질랜드 1차 산업부} 검역·식품안전, 건축·의약·전기전자별 별도 제도 운영
 - (식품) MPI 기준에 따른 검역·식품 안전 충족 필요
 - (건축) 뉴질랜드에 수출되는 모든 건축 자재는 뉴질랜드 건축법^{Building Act 2004} 및 건축 규정^{New Zealand Building Code}의 기술 요구사항 충족 필요
 - (의약품·의료기기) Medsafe 평가로 의약품 허가, 의료기기 WAND^{Web-Assisted Notification of Devices} 등록 필수
 - (전기·전자) EECS^{전기장비안전시스템}에 따른 위험성 분류·등록, RCM^{적합성 마크} 부착 요구

□ 해당 시장의 전략적 가치

- 베트남 : 생산 + 소비 이중 구조 기반의 공급망·시장 허브
 - (이중 가치) 글로벌 생산 허브이자 1억 명 인구의 고성장 소비 시장으로, 중산층과 젊은 인구 기반 소비자·콘텐츠 진출 기회 확대
 - (공급망) China+1 핵심 대안국으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 필수적이며, 다수의 FTA를 기반으로 전략적 수출기지로 성장 가능

- 말레이시아 : 테스트베드·할랄·디지털 기반 다방향 확장형 시장
 - (테스트베드) 높은 구매력과 다문화 구조를 바탕으로 동남아·서남아·중동 진출 전 제품·서비스 검증 시장으로 활용 가능
 - (할랄) GIET^{이슬람경제종합지표}에서 11년 연속 1위를 차지한 할랄 산업 선두주자, 정부 주도의 글로벌 할랄 산업 허브 육성 정책에 따라 할랄 인증·유통 중심 산업 진출의 전략적 거점 역할 수행
 - (디지털) 디지털 전환에 힘입어 첨단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아세안 디지털 허브로 기능
- 필리핀 : 제조 수출 성장 및 디지털 결제 확산형 신흥 협력 시장
 - 전자·반도체 수출 증가로 제조업 수출 비중이 확대되며 설비·중간재 수요 동반 증가
 - 디지털 결제·서비스 생태계 확산을 기반으로 ICT·유통 협력 가능성 확대
 - 한국-필리핀 FTA 활용을 통해 자동차·전자·농식품 시장 접근성이 개선
- 캄보디아 : China+1 대체 생산기지 및 인프라 확장형 성장 시장
 - (위치) 중국 및 인접국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탈중국 대체 생산기지 및 플러스 원 제조기지로 적합
 - (인프라) 국가 간 협력 기반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되며 글로벌 공급망 연결성 확대
- 라오스 : 역내 교역 관문형 소비·관광 복합 시장
 - (지리) 라오스는 5개국^{태국, 중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과 국경을 접한 내륙국, 역내 교역의 관문 역할 수행 가능
 - (요식업) 소득 수준 향상 및 도시화로 외식문화 성장, 본촌^{한국}, Mice Two Meat U^{한국}, Hawker Chan^{싱가포르}, Mixue^{중국} 등 글로벌 F&B 브랜드가 진출하여 중산층 및 젊은 세대 중심의 소비층 확보
 - (관광업) 관광업 육성 정책 추진과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로 내수 보완적 소비 여력 확대
- 미얀마 : 자원 기반 및 지정학 전략형 중장기 선점 대상국
 - 세계적인 쌀 생산지이자 농산물이 다양하며, 비옥한 토지와 복잡한 지질학적 구조로 산림·에너지·광물자원의 대규모 매장지
 - 중국·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동남아와 서남아를 연결하는 교역·물류 거점 등의 잠재력 보유 지역으로 추후 선점과 준비가 요구
- 호주 : 아시아·태평양 교역 확장 및 소비재 시장 다변화형 전략 파트너
 -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지리적 인접성, 개방적인 이민 정책 등의 기반은 호주가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 중국·일본·한국 등 동북아 3국과의 교역 집중은 자원·에너지뿐 아니라 소비재 분야까지 확대
- 뉴질랜드 : 가치소비·다문화 기반 ESG 테스트 시장
 - 강력한 환경 의식과 가치 중심 소비 성향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들에게 중요한 테스트베드 역할
 - 다문화 사회와 아시아계 인구 증가로 글로벌 소비재와 문화 콘텐츠 수용도가 높은 시장

나. 무역

□ 아세안 교역 동향

- '25년 상반기 아세안의 대외 교역액은 전년^{1조 4,600억 달러} 대비 13.2% 증가한 1조 6,900억 달러로 수출 8,307억 달러와 수입^{8,598억 달러}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3.2%, 13.1% 증가
 - '24년 아세안의 대외 교역액은 3조 1,471억 달러로 전년 대비 9.0% 증가했으며, 특히 역외 수출^{7.3%} 및 역외 수입^{10.7%}이 개선세를 주도한 가운데 '25년 6월 기준 누적 교역액은 1조 6,90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

아세안 수출입 규모 동향

(단위: 십억 달러, %)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역외 수출	1,437.70	△6.1	1,543.14	7.3	830.68	13.2
역외 수입	1,448.68	△6.8	1,604.03	10.7	859.78	13.1
무역수지	△10.98	△54.9	△60.89	454.7	△29.09	10.2
총 교역	2,886.38	△6.4	3,147.18	9.0	1,690.46	13.2

자료: ASEAN Stats

- 주요 교역국 : '25년 상반기 아세안의 교역 상대국은 중국^{5,053억 달러}, 미국^{2,714억 달러}, EU^{1,554억 달러}, 일본^{1,332억 달러}, 한국^{1,228억 달러} 순
 - (미국) '25년 상반기 對미 수출 비중은 17.5%를 기록, 수출액은 1,922억 달러를 기록
 - (중국) '24년 對중 교역액은 5,053억 달러로 최대 교역국 위상을 공고히 했으며, 특히 아세안의 對중 수입 비중은 28.3%에 달함
 - (한국) '24년 對한 교역액은 1,1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수출 399억 달러, 수입 18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아세안의 6대 교역국 위상 유지

아세안의 주요 교역 상대국

(단위: 억 달러)

순위	국가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수출액	수입액	교역액	수출액	수입액	교역액	수출액	수입액	교역액	수출액	수입액	교역액
1	중국	4,054.3	4,500.8	8,555.1	3,904.0	4,253.0	8,157.0	4,033.7	5,015.5	9,049.2	2,099.6	2,953.4	5,053.0
2	미국	2,915.7	1,290.5	4,206.2	2,694.6	1,259.6	3,954.3	3,124.0	1,410.2	4,534.2	1,922.7	791.3	2,714.0
3	EU	1,763.9	1,187.7	2,951.7	1,568.6	1,235.3	2,803.9	1,659.1	1,269.2	2,928.3	923.5	630.6	1,554.1
4	대만	588.7	1,291.4	1,880.1	493.1	1,117.4	1,610.5	595.2	1,398.5	1,993.7	458.1	873.6	1,331.8
5	일본	1,332.5	1,352.2	2,684.6	1,213.7	1,181.6	2,395.3	1,205.7	1,162.2	2,367.9	608.2	619.3	1,227.5
6	한국	809.1	1,418.6	2,227.7	774.1	1,195.0	1,969.1	805.3	1,277.6	2,082.9	425.8	674.6	1,100.5
7	인도	706.5	424.6	1,131.1	658.5	349.4	1,007.9	707.9	361.5	1,069.3	399.6	180.6	580.2

주: 중국은 중국과 홍콩을 합한 값

자료: ASEAN Stats

- 품목별 수출입 동향: '24년 수출·수입 모두 전자집적회로^{HS8542}가 1위를 유지했으며,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ICT 중간재 교역이 전반적인 증가세 견인
 - (수출 품목) 최대 수출 품목인 전자집적회로와 전화기,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전자·ICT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아세안 수출 증가세 견인

'24년 아세안의 주요 수출 품목(HS Code 4단위 기준)

(단위: 억 달러, %)

순위	HS Code	품목명	수출액	비중	증감률
1	8542	전자집적회로	2,447.0	12.5	7
2	2710	석유와 역청유(원유 외)	971.8	5.0	△7
3	8517	전화기 및 그 부분품	943.2	4.8	7
4	8471	자동자료처리 기계와 그 단위기기	672.6	3.4	73
5	1511	팜유와 그 분속물	348.7	1.8	△4
6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등 반도체 디바이스	326.8	1.7	△20
7	2701	석탄 및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연탄·마젤탄	314.1	1.6	△12

자료: ASEAN Stats

- (수입 품목) 수입 1위 역시 전자집적회로, 자동자료처리기계, 금 등 생산 및 금융·투자 수요 확대로 특정 품목에서 높은 증가율 관측

'24년 아세안의 주요 수입 품목(HS Code 4단위 기준)

(단위: 억 달러, %)

순위	HS Code	품목명	수입액	비중	증감률
1	8542	전자집적회로	2,589.6	13.69	19
2	2710	석유와 역청유(원유 외)	1,348.5	7.13	△1
3	2709	석유와 역청유(원유로 한정)	1,005.0	5.31	2
4	8517	석탄 및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연탄·마젤탄	487.3	2.58	12
5	8471	자동자료처리 기계와 그 단위기기	485.3	2.57	90
6	7108	금	423.2	2.24	59
7	8411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터빈	304.6	1.61	17

자료: ASEAN Stats

□ 대양주 교역 동향

- '25년 상반기 대양주의 대외 교역액은 3,35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 감소

대양주 수출입 규모 동향

(단위: 십억 달러, %)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역외 수출	399.21	△10.0	369.55	△7.4	180.05	△3.6
역외 수입	311.36	△5.1	317.69	2.0	155.83	0.5
무역수지	87.84	△23.9	51.87	△41.0	24.21	△24.0
총 교역	710.57	△7.9	687.24	△3.3	335.88	△1.7

자료: Global Trade Atlas

- 주요 교역국 : 중국은 대양주의 최대 교역국으로 전체 교역의 30.1% 차지
 - 교역 비중은 중국^{30.1%}, 미국^{10.4%}, 일본^{8.3%}, 한국^{5.9%}, 인도^{3.1%} 순으로 전형적인 자원 의존형 수출 및 내수·산업 수요 기반 수입 구조
 - 대양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수출은 소폭 하락한 반면, 수입은 보험세 지속

대양주의 주요 교역 상대국

(단위: 억 달러)

순위	국가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수출액	수입액	교역액	수출액	수입액	교역액	수출액	수입액	교역액	수출액	수입액	교역액
1	중국	1,384.1	896.3	2,280.4	1,530.9	799.4	2,330.3	1,369.1	828.0	2,197.1	641.0	406.8	1,047.8
2	미국	187.8	339.0	526.8	189.0	355.1	544.1	210.5	381.2	591.7	173.5	187.1	360.6
3	일본	826.4	201.5	1,027.9	593.4	204.8	798.2	487.2	190.6	677.8	203.3	85.3	288.6
4	한국	373.4	218.4	591.8	281.1	209.1	490.3	263.7	198.1	461.8	127.4	76.8	204.2
5	인도	207.0	76.5	283.4	169.5	66.6	236.2	167.9	82.6	250.5	62.2	44.7	106.9

주: 중국은 중국과 홍콩을 합한 값

자료: Global Trade Atlas

- 품목별 수출입 동향 : 광물·에너지 중심의 수출과 내수·산업활동 기반 수입 구조 보유
 - (수출 품목) 철광석·석탄·천연가스가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가격 변동에 따라 증감세가 좌우됨

'26년 상반기 대양주의 주요 수출 품목(HS Code 4단위 기준)

(단위: 억 달러, %)

순위	HS Code	품목명	수출액	비중	증감률
1	2601	철광과 그 정광	374.5	20.1	△15.2
2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203.8	10.9	△11.9
3	2701	석탄	194.3	10.4	△33.6
4	7108	금	185.2	9.9	58.2
5	0202	냉동 쇠고기	47.4	2.5	26.5

자료: Global Trade Atlas

- (수입 품목) 정유와 자동차 등 에너지 소비 및 운송·물류 수요 관련 품목이 주요 수입 비중 차지

'26년 상반기 대양주의 주요 수입 품목(HS Code 4단위 기준)

(단위: 억 달러, %)

순위	HS Code	품목명	수입액	비중	증감률
1	2710	석유와 역청유	161.6	10.0	△15.1
2	7108	금	59.4	3.7	102.8
3	8704	화물자동차	53.0	3.3	△13.5
4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	50.4	3.1	13.3
5	8517	전화기	43.9	2.7	0.0

자료: Global Trade Atlas

□ 對韓 교역 동향

- '25년 9월 누계 기준, 對동남아·대양주 수출·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
 - 對아세안 교역은 5.6% 증가했으나, 對대양주 교역은 소폭 감소한 △ 4.9%를 기록하면서 증가폭 둔화

한국의 對동남아·대양주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동남아	수출	124,889	14.8	109,123	△12.6	114,011	4.5	90,393	7.0
	수입	82,529	21.9	78,033	△5.4	78,828	1.0	60,843	3.5
	교역	207,418	17.5	187,156	△9.8	192,839	3.0	151,236	5.6
대양주	수출	22,243	90.5	20,647	△7.2	18,848	△8.7	12,641	△14.4
	수입	46,785	35.8	34,563	△26.1	31,576	△8.6	24,206	1.0
	교역	69,028	49.6	55,210	△20.0	50,424	△8.7	36,847	△4.9
총계	수출	147,132	22.1	129,770	△11.8	132,859	2.4	103,034	3.8
	수입	129,314	26.6	112,596	△12.9	110,404	△1.9	85,049	2.8
	교역	276,446	24.2	242,366	△12.3	243,263	0.4	188,083	3.3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교역액) '25년, 한국의 對동남아·대양주 교역액은 역대 2위 기록 중으로 수출과 수입 모두 '22년 이후 최대 실적 기록 중

연도별 한국의 對동남아·대양주 1~9월 누계 최대 교역액 순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연도	수출	수입	교역
1	2022년	114,056	98,557	212,613
2	2025년	103,034	85,049	188,083
3	2024년	99,272	82,745	182,017
4	2023년	94,437	85,088	179,525
5	2021년	85,276	73,463	158,739
6	2020년	69,917	55,233	125,15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가공단계) 對동남아·대양주 소비재 수출은 △ 3.2% 감소했으나, 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가공단계에서 수출 증가세 기록

'25년 9월 누계, 한국의 對동남아·대양주 가공단계별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1차 산품		소비재		자본재		중간재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아세안	646	8.8	4,495	△0.5	8,602	7.8	76,044	6.6
대양주	25	212.5	2,872	△7.3	935	47.5	8,788	△20.0
동남아·대양주	671	11.5	7,367	△3.2	9,537	10.7	84,832	3.1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아세안 : '25년 9월 누계 기준, 한국-아세안 교역액은 1,512억 달러로 역대 2위 수준의 교역 규모
 - '25년 9월 누계 기준, 한국의 對아세안 무역흑자는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한 29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4위 수준을 기록 중

연도별 한국의 對아세안 1~9월 누계 무역흑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무역흑자	29,598	31,559	23,457	27,667	34,366	20,278	25,740	29,55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수출) 글로벌 반도체 시장 활황에 힘입어,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9% 증가하면서 수출 증가세 견인

한국의 對아세안 10대 수출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9월 누계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	총 수출	114,011	4.5	-	총 수출	90,393	7.0
1	반도체	28,067	25.9	1	반도체	28,190	40.9
2	석유제품	15,741	2.9	2	석유제품	10,679	△14.0
3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1,427	△8.8	3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7,613	△11.4
4	합성수지	4,055	17.1	4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3,444	48.9
5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3,742	△16.6	5	합성수지	2,892	△7.2
6	철강판	3,330	△2.9	6	철강판	2,509	4.5
7	무선통신기기	3,077	10.7	7	기구부품	2,194	6.8
8	기구부품	2,705	△0.1	8	무선통신기기	1,968	△17.1
9	플라스틱 제품	1,688	5.2	9	플라스틱 제품	1,292	0.9
10	비누치약 및 화장품	1,433	19.8	10	비누치약 및 화장품	1,085	3.4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3단위 기준)

- (수입) 글로벌 제조·소비 회복세에 힘입어 한국의 對아세안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608억 달러 기록

한국의 對아세안 10대 수입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9월 누계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	총 수입	78,828	1.0	-	총 수입	60,843	3.5
1	반도체	10,444	4.6	1	반도체	9,487	25.2
2	천연가스	5,295	△16.8	2	무선통신기기	3,986	1.6
3	무선통신기기	5,118	2.1	3	천연가스	3,980	7.1
4	의류	5,094	1.9	4	컴퓨터	3,832	21.3
5	컴퓨터	4,217	23.0	5	의류	3,767	△3.0
6	반도체제조용장비	4,044	16.6	6	반도체제조용장비	3,514	23.8
7	산업용 전기기기	3,166	17.9	7	산업용 전기기기	2,280	△2.3
8	석유제품	3,081	△41.9	8	석탄	1,694	△17.3
9	석탄	2,735	△6.8	9	석유제품	1,591	△33.4
10	신변잡화	1,794	△3.5	10	신변잡화	1,323	△3.8

자료: 한국무역협회

- 대양주 : '25년 상반기 누계 기준, 對대양주 교역 수입은 소폭 증가^{1.0%}하였으나, 수출^{△14.4%}이 대폭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적자 기록
 - (수출) 전체 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경유·휘발유·제트유 등 정제유 수출 감소와 자동차 부품 및 주요 공산품 수요 둔화가 수출 감소에 영향

한국의 對대양주 10대 수출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9월 누계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	총 수출	18,848	△8.7	-	총 수출	12,641	△14.4
1	석유제품	11,208	△9.5	1	석유제품	6,824	△24.2
2	자동차	3,559	△6.7	2	자동차	2,707	△2.0
3	건전지 및 축전지	248	21.6	3	철강판	169	△9.1
4	철강판	244	△13.8	4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196	4,800.0
5	합성수지	170	2.4	5	알루미늄	161	40.0
6	철도차량 및 부품	200	9.9	6	합성수지	147	△5.8
7	건설광산기계	157	△28.3	7	건전지 및 축전지	153	△21.1
8	알루미늄	145	10.7	8	비누치약 및 화장품	125	38.9
9	정밀화학원료	158	△14.6	9	정밀화학원료	130	44.4
10	플라스틱 제품	139	13.0	10	농산가공품	104	2.0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3단위 기준)

- (수입) 철광석, 유연탄 등 주요 원자재 단가 하락과 수요 조정에 따른 수입액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

한국의 對대양주 10대 수입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9월 누계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	총 수입	31,576	△8.6	-	총 수입	24,206	1.0
1	천연가스	7,158	△19.6	1	천연가스	6,645	30.0
2	석탄	6,180	△19.7	2	철광	3,462	△17.7
3	철광	5,497	0.2	3	석탄	3,460	△27.0
4	원유	2,322	8.8	4	육류	1,689	16.5
5	육류	1,828	0.6	5	금은 및 백금	1,351	49.4
6	알루미늄	1,353	9.6	6	원유	1,246	△33.2
7	금은 및 백금	1,227	141.1	7	알루미늄	990	△6.3
8	기타금속광물	925	62.9	8	동광	917	79.8
9	곡실류	777	1.6	9	기타금속광물	848	20.1
10	동광	601	△38.6	10	곡실류	613	△1.3

자료: 한국무역협회

□ 주요 경쟁국 동향

- 아세안 : '24년 아세안 수입 시장 내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6.6% 기록 중
 - 아세안 수입 시장에 대한 중국 및 대만의 시장점유율은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일본은 감소 또는 보합세

아세안 수입 시장 내 한국 및 경쟁국의 시장점유율 추이

국가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누계
중국	22.0%	22.9%	24.3%	26.2%
대만	6.7%	6.4%	7.2%	8.2%
한국	7.3%	7.0%	6.6%	6.6%
일본	7.1%	6.9%	6.0%	5.9%

자료: Global Trade Atlas

- 한국 기업의 주요 생산 거점인 베트남 수입 시장 점유율은 13.37%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나, CLM^{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국가에서는 약 1% 수준의 점유율 기록 중

'24년 아세안 국가별 수입 시장 내 한국의 시장점유율

(단위: %)

구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수입 시장 점유율	13.37	7.24	6.64	4.45	3.57	2.85	1.76	1.14	1.09	0.71

자료: Global Trade Atlas

- 대양주 : '24년 대양주 수입 시장 내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6.0% 기록 중
 - 중국은 높은 가격 경쟁력으로 공산품을 포함하여 대양주 수입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22년 6.4%에서 '25년 6월 누계 기준 4.8%로 점유율이 하락하며 경쟁국 대비 입지가 악화되는 모습 관측

대양주 수입 시장 내 한국 및 경쟁국의 시장점유율 추이

국가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누계
중국	26.1%	24.6%	25.1%	25.1%
미국	10.0%	11.0%	11.6%	11.6%
일본	5.9%	6.4%	5.8%	5.3%
한국	6.4%	6.5%	6.0%	4.8%

자료: Global Trade Atlas

□ 아세안·대양주 주요 수출 성공 사례

- 베트남 : 인증 확보·바이어 타깃팅·초기 신뢰 구축을 통한 성공 사례



성공 사례로 보는 베트남 진출전략 : 웰니스 기업 D사(현지 A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D사는 여성 질 세정제를 취급하며, 유사 한국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과 높은 품질을 동시에 보유
- 필수 인증 : ISO13485 또는 ISO9001 취득 후 베트남 보건국에 신고 또는 등록 필요
- 성약 소요기간 : 약 5개월
- 바이어 발굴경로 : 무역관을 통해 對한국 수입 경험이 있는 바이어와 연결
 - * VCCI(베트남 상공인연합회), VINEXAD(전시 주최측) 등을 통해 신뢰성 검증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D사는 '25년 베트남 하노이 엑스포 참가를 계기로 바이어와 연결되어,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초기 테스트에서 긍정적인 소비자 반응 확보
 - 베트남에서는 일반적으로 바이어가 수입 절차를 진행하므로, 기업은 초기 교신 과정에서 바이어의 요청·문의에 신속·성실하게 대응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 한국 제품 간 경쟁이 치열한 만큼, 차별화된 가격과 품질 우위가 시장 진출 성패를 좌우



성공 사례로 보는 베트남 진출전략 : 식음료 기업 A사(현지 K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A사는 무알콜 음료를 취급하며, 제품 다양성 및 글로벌 유통 경험으로 차별화 우위
- 필수 인증 : 베트남 QCVN 준수 및 보건국에 신고 또는 등록 필요
- 성약 소요기간 : 약 3개월
- 바이어 발굴경로 : 무역관을 통해 신규 거래선과 연결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A사는 베트남 현지 기업 성장 등으로 경쟁이 치열한 무알콜 음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24년 베트남 하노이 엑스포 참가 및 후속 지사화 참여를 통해 다수의 신규 거래선을 접촉
 - 베트남 신규 바이어와의 첫 접촉 이후에는 관계 지향적이고 신뢰를 중시하는 바이어 성향을 고려해, 단발성 대응을 넘어 장기적 협력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속적·체계적 후속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

- 싱가포르 : 기술·프리미엄 기반 바이어 타깃형 수출 성공 사례



성공 사례로 보는 싱가포르 진출 전략 : 산업용 밸브·배관재 기업 F사(현지 T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F사는 특수 밸브·배관재 전문기업으로, 자체 기술로 개발한 일체형 PFA 라이닝 밸브를 보유하고 있음
 - 플라스틱-금속 복합 구조로 내화학성·내열성·내구성을 강화하고 수명 대폭 연장
 - 균일한 벨로우즈와 나사식 플랜지 결합 구조로 품질 안정성 확보, 일본산 대비 수출허가가 빠른 점도 강점
- 필수 인증 : CRN PFA Lined Ball Valve, CE Quality Assurance Certificate, ISO 9001:2015
- 성약 소요기간 : 약 1년
- 바이어 발굴경로
 - KOTRA 싱가포르무역관이 현지 바이어(T사)를 발굴 → 온라인·전화 접촉을 통해 소개
 - 바이어 관심 확보 후, 무역관이 F사 관계자와 대면 미팅을 주선
 - 일본계 기업과 병행한 제품 테스트와 품질 검증 과정을 거쳐 신뢰를 확보 → 최종 성약에 성공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F사의 제품은 니치형 특수 산업재로 대량 수출은 어려우나, 반도체·정밀화학·수처리 등에서 지속 수요 존재
 - 싱가포르는 일본계 화학·반도체 기업 영향력이 크지만, 품질 인증을 통과하면 일본산 대체 수요 확보 가능
 - 소규모 프로젝트라도 싱가포르 거점을 통해 해외 프로젝트 레퍼런스 축적 및 글로벌 진출 교두보 확보 가능
 - F사는 중국 생산기지 구축을 계획 중으로, 향후 리드타임 단축과 동남아 수요 대응력 강화가 기대되며, 이는 한국 기업이 지역 내 생산·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성공 사례로 보는 싱가포르 진출전략 : 김 기업 D사(현지 A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40년 업력을 통해 축적된 김 생산 노하우 및 지속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
 - 자동화된 원초 냉동창고 보유 및 원초 출입 데이터를 활용한 철저한 재고관리
- 필수 인증
 - SFA(싱가포르 식품청) 수입허가
 - 라벨링(영문) : 제품명, 성분, 중량, 수입자·제조사, 원산지 등 정보 표기
- 성약 소요기간 : 약 10개월
- 바이어 발굴경로
 - KOTRA 무역관이 보유한 현지 식품 유통사 리스트 및 기업 DB를 바탕으로 바이어 탐색
 - 진성 바이어 필터링 작업(현지 대형마트 납품 가능 유통망 보유, 한국 식품 수입 경험, 신뢰도 검증) 진행
 - 담당자 정보 확보 후 A사와의 미팅 주선, 제품 샘플 제공 및 품질 테스트를 거쳐 계약 성사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현지 김 시장은 레드오션화, 현지 식문화·트렌드에 맞춘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수출에 도전
 - F사는 40년 업력과 대규모 생산능력, 무역관의 신뢰 보증을 기반으로 대형 유통망과 직거래를 성사, 초도 3만 1,645달러 수출 및 2차 계약 연속 체결
 - 본 사례는 한국 식품기업이 업력·품질·공신력으로 레드오션 시장에서도 틈새 공략이 가능함을 보여줌



성공 사례로 보는 싱가포르 진출전략 : 식품 기업 P사(현지 S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국내 대기업 브랜드와 차별화된 지역 특산·전통·프리미엄 김치 제품군 보유
 - 저가 중국산 김치가 범람하는 시장에서 '한국산 정통성'과 '프리미엄 이미지' 강조
- 필수 인증 : SFA(싱가포르 식품청) 수입 허가, HACCP 등의 위생 관련 국제 인증
- 성약 소요기간 : 바이어 발굴부터 성약까지 2개월 소요 후 지속 성약 창출 중
- 바이어 발굴경로 : KOTRA 싱가포르무역관을 통해 신선식품 전문 유력 벤더사와 연결, 시장 진입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판촉전·전시 행사 시 김치 제조 시연 등 체험형 홍보로 바이어와 소비자 관심을 효과적으로 유도
 - 소포장 김치, 절임 반찬류 등 B2B(Business-to-Business)·B2C(Business-to-Customer)를 모두 겨냥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보유
 - 현지 주요 벤더사와 협업하여 오차드 다카시마야 백화점 등 랜드마크급 유통 채널 입점 성과 달성
 - 할랄 인증 취득을 준비하며, 싱가포르 시장 성공을 발판으로 말레이시아 등 인근 무슬림 시장으로 확대 계획
 - '24년 내수 기업에서 수출 기업으로 전환한 이후, '25년 8월 기준 누적 수출액 5만 달러 이상 달성
 - 품목 경쟁률이 치열하고 유통망 협업 기회가 제한적인 시장 환경 속에서도, 제품 차별화와 수출 준비, 무역관의 유통망 협업 지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초보 기업임에도 성과 창출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됨

- 인도네시아 : 현지 생산 공백 및 기술 대체 수요를 활용한 수출 성공 사례



성공 사례로 보는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 제조업 기업 A사(현지 대기업 P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
 - 특히 A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스펙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는 곳이 없는 제품
- 성약 소요기간 : 2년
- 바이어 발굴경로 : 자카르타에서 열린 전기 전시회에서 최초의 비즈니스 상담 진행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A사는 P사에 적극적으로 공장 시험(FAT) 제안, P사 관계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선보임
 - 인도네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전력 확충 시기와 맞물려 전기 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발굴



성공 사례로 보는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 제조업 기업 B사(현지 E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고무제품 제조업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 성약 소요기간 : 6년
- 바이어 발굴경로 : 바이어가 KOTRA를 통해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 확인 요청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납품하는 과정은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관행상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힘들
보다 장기적인 시선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함

- 말레이시아 : 국가 기술 협력형 수출과 K-프랜차이즈 기반 소비 시장 공략



성공 사례로 보는 말레이시아 진출전략 : 한국 양자컴 기술 첫 국가 협력

- 제품의 비교우위
 - 국내 양자컴퓨터 기술 기업 SDT가 말레이시아 정부연구기관 MIMOS와 협력해 말레이시아 첫 양자 기술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한 사례
- 필수 인증 : 기술 수출 및 연구 인프라 구축 관련 국제 보안·암호 기술 인증 요건(예시 : 양자 암호 시스템의 국제 규격 준수)
 - 현지 정부기관과 협업 시 표준화 인증·정부 연구 인프라 인증 요건 충족
- 성약 소요기간 : 2년 이상
- 바이어 발굴경로 : 무역관 직접 발굴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SDT 사례는 한국 양자 기술 수출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에게 양자 기반 응용 솔루션(암호, AI 보안, 통신) 쪽 준비 강화 제안

* 언론보도 내용 : <https://www.mt.co.kr/tech/2025/02/28/2025022623141156726>

**성공 사례로 보는 말레이시아 진출전략 : 피자 프랜차이즈 기업 고평자(현지 Hextar社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1인 피자로 시작해 파베이크 도우, 전용 고온 오븐(GOVEN), AI 기반 토핑 시스템 등 차별화된 콘셉트
 - 현지 젊은 세대·싱글가구·배달 소비 트렌드와 적합
 - * 현지 피자는 저용량·저가 제품이 많아 글로벌 피자 프랜차이즈도 한국의 레귤러 사이즈가 현지의 라지 수준
- 필수 인증 : HACCP, MESTI 등 식품 안전 인증 등
- 성약 소요기간 : 1년
- 바이어 발굴경로 : 무역관 직접 발굴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시가 총액 2조 원 규모의 현지 파트너 H社의 경우 기존 농화학·에너지 분야 대기업
 - 최근 소비재·프랜차이즈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활발히 추진 중인 과정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업점을 포착, 양사의 발 빠른 대응이 현지 진출 기회로 연결
 - * 언론보도 내용 :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507010725>

- 필리핀 : 식약청 인증 기반 '기능성·안전성' 중심 K-소비재 진출 성공 사례

**성공 사례로 보는 필리핀 진출전략 : 생활용품 기업 M사
(현지 Landers Superstore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프리미엄 '투트랙' 전략(B&B는 일상 안전성, 닥터아토는 기능성 솔루션)으로 Landers 핵심 고객의 '안전·신뢰' 수요를 동시 충족
- 필수 인증 : 필리핀 식약청(FDA)
- 성약 소요기간 : '25년 2월 20일~6월 16일(약 4개월)
- 바이어 발굴경로 : 마닐라무역관 '필리핀 1무 1유 지원사업' 입점 상담회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제품 포지셔닝에 맞는 프리미엄 유통망 타겟팅이 성약 확률을 높임
 - 공신력 있는 KOTRA 프로그램을 활용한 신뢰 확보와 네트워킹이 유효

**성공 사례로 보는 필리핀 진출전략 : 식품 기업 E사(현지 JK Essential Corp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HMR(간편조리) 특성이 편의점 채널과 정확히 맞물리고, 한국 내 흥행으로 '검증된 제품력' 신뢰 확보
- 필수 인증 : 필리핀 식약청(FDA)
- 성약 소요기간 : '25년 6월 10일~7월 22일(약 1.5개월)
- 바이어 발굴경로 : 2025 서울푸드(Seoul Food 2025) 현장 상담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현지 유통의 빈틈(제품 다양성 부족, 젊은 층 컵떡볶이 선호)을 겨냥한 정밀 분석이 핵심
 - 대형 박람회에서의 문화·소통 코드가 맞는 바이어를 현장 발굴하면 단기간 성약이 가능

- 캄보디아 : 품목별^{뷰티·의약품·의료기기} 시장 특성 맞춤형 인허가 기반 진출



성공 사례로 보는 뷰티 시장 진출전략 : 화장품 기업 P사(현지 T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유통경로 보호, 저렴한 금액과 우수한 품질, 꾸준한 제품 개발로 인한 다양한 SKU 확보
- 필수 인증 : 보건부 제품 등록
- 성약 소요기간 : 6개월
- 바이어 발굴경로 : 국내에서 개최되는 KOTRA 전시·수출상담회에 참가하여 해당 제품을 발굴, 이후 무역관 담당 직원에게 구매 인콰이어리(Inquiry) 전달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국내 도매 시장 및 유통 업자를 통한 수출이 아닌 바이어에 직수출을 통한 단가 경쟁력 확보
 - 현지 바이어가 유통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판매 채널을 일원화(다수의 판매자 난입 방지)
 -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 및 지속적인 바이어 관리



성공 사례로 보는 의약품 시장 진출전략 : 의약품 유통 기업 B사(현지 K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캄보디아 내 고수요가 있는 제품 중 가격과 품질이 우수함
- 필수 인증 : 보건부 제품 등록
- 성약 소요기간 : 10개월 이상
- 바이어 발굴경로 : 국내 의약품 전시회 참가 바이어 발굴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의약품 바이어로부터 받은 인콰이어리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양질의 국내 기업 발굴
 - 사전 한국 기업과 바이어 간 내용 교신으로 자세한 조건을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
 - 의약품의 경우 단기간에 성과가 나기 힘든 제품 중 하나로, 지속적인 사전·사후 지원이 필요



성공 사례로 보는 의료기기 시장 진출전략 : 의료기기 기업 B사(현지 M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캄보디아 내 수요가 있는 제품 중 가격 경쟁력 보유 및 사후관리, 원격지원 등 추가 서비스가 가능함
- 필수 인증 : 보건부에 제품 등록
- 성약 소요기간 : 1년
- 바이어 발굴경로 : 국내 의료기기 전시회 및 무역사절단(의약품·의료기기)을 통한 바이어 발굴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한국 의료기기는 타 국가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과 우수한 성능으로 바이어들의 관심이 높음
 - 특히,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사후관리(기기 사용 방법, 원격지원 등)를 통한 바이어 만족도 향상

- 라오스 : 건강기능식품 효능 검증형 및 한식 연계 유통형 이원화 진출



성공 사례로 보는 진출전략 : 건강기능식품 기업 S사(현지 L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한국산 잣나무 오일은 고농축으로 태국산 대비 효능이 우수하며 연질캡슐로 섭취가 간편
- 필수 인증 : 분석증명서, 제조사 GMP 인증서, 배치 제조식 및 제조공정 문서 등
- 성약 소요기간 : 약 65일(현지 디자인 제작, 라오스어 라벨링, 등록에 필요한 서류 준비, 물류·통관 등)
- 바이어 발굴경로 : 바이어 인콰이어리 발굴 및 온라인 상담 지원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적송유 건강식품은 현지 인지도가 낮아 섭취법·효능 영상 제작이 필요했으며, 국내 기업 협조와 KOTRA 판촉 행사 참여를 통해 바이어 신뢰 확보 및 지속적 수출 성과 연결



성공 사례로 보는 진출전략 : 농식품 유통기업 I사(현지 법인 설립 및 유통 품목 수출)

- 제품의 비교우위 : 현지 한식당 대비 합리적인 가격 설정으로 소비자의 가격 장벽 해소
- 필수 인증 : GHP, GMP, HACCP, ISO 22000 등 위생·품질 관련 인증
- 성약 소요기간 : 떡볶이 소스류, 밀키트 등은 콜드체인 해상 운송에 따른 물류 부담으로 인해 적정 MOQ 충족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었으며, '25년 9월 5,771달러 수출 달성
- 바이어 발굴경로 : 지사화 서비스('25년 3월~'26년 2월)를 통해 바이어 온·오프라인 주선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KOTRA 주관 농식품 B2C 판촉전에서 떡볶이를 판매하며 수요자 주도형 수출 모델을 구축하고, 시장 테스트와 브랜드 홍보 효과를 극대화

- 호주 : 클린뷰티·건강식품·특수 산업재 기반 웰빙 트렌드 맞춤형 시장 공략



성공 사례로 보는 호주 진출전략 : 한국 화장품 기업 D사(현지 H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두피를 스킨케어의 시작점으로 정의해 단순 헤어케어가 아닌 스칼프케어 전문 브랜드로 차별화
 -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 그린등급 고기능성 천연 원료 사용, 저가 원료 배제로 전문판 매점 공략 및 효과성 강화
 - 비건·무첨가·친환경 등 클린뷰티 트렌드를 반영해 웰빙·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호주 소비자 수요에 부합
- 필수 인증
 - 특허·인증 : KC 인체적용 시험 결과 및 기능성 특허 다수 보유,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성 보고 완료
 - 글로벌 기준 준수 : IFRA(International Fragrance Association) 가이드라인과 메이저 클린리스트를 준수하여 안전한 향료 사용, ISO 인증을 받은 제조사와 협력해 글로벌 품질 관리 기준 충족
 - 클린뷰티 : 비건(Vegan), 동물실험 금지(Cruelty Free), 설페이트·파라벤·MIT·CMIT·인공색소·미네랄오일 프리 등 무첨가(Clean Label) 기준 충족

- 성약 소요기간 : '24년 10월 국내 뷰티 전시회 상담 → 후속 협의 → '25년 8월 시드니 Beauty Expo Australia 공동 부스 참가 → 15만 달러 규모 독점 계약 체결
- 바이어 발굴경로
 - 국내 전시회 연계 수출상담회에 바이어를 유치, 국내 기업과의 상담 매칭 지원
 - 독점계약 체결을 위해 후속 상담회에 바이어 초대 및 협력 강화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호주 뷰티시장은 웰니스·셀프케어·프리미엄 수요가 확대되어 제품 콘셉트와 트렌드가 부합
 - 단순 공급을 넘어 공동 전시·마케팅 협력까지 확대한 점에서 진출 방식 측면의 의미 있는 사례
 - 향후 국내 기업도 공동 마케팅·현지 맞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파트너십 전략 통해 안정적 시장 안착 기대



성공 사례로 보는 호주 진출전략 : 한국 식품기업 H사(호주 S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국내 기업이 개발한 두부면은 밀가루 대신 100% 국산 콩으로 만든 저탄수화물·고단백의 면류로 글루텐 프리와 다이어트 식단에 최적화된 제품
 - 비건 및 채식 식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선호도가 매우 높으며, 건강과 웰빙을 중요시하는 호주 소비자 트렌드와 잘 맞아떨어짐
 - '25년 8월 호주 아마존 Noodle 품목 #1 Best Seller로 선정되기도 함
- 필수 인증
 - FSANZ(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 식품 성분 및 표시 규정 충족, HACCP 인증으로 식품 안전성 확보, 글루텐 프리 및 비건 인증으로 주요 소비층 신뢰 강화
 - 현지 대형 유통망 식품 안전 규제를 충족하는 동시에 호주 시장 유통을 위한 제품 포장·레이블 규격 충족
- 성약 소요기간 : 약 3~4개월의 기간을 통해 바이어와의 첫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호주 아마존 입점까지 약 6개월 소요
- 바이어 발굴경로
 - 국내 수출상담회에 바이어를 유치, 국내 기업과의 상담 매칭 지원
 - 바이어는 첫 거래를 통해 우선 호주·아세안 시장에 제품을 유통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무역관의 지원으로 호주 아마존과 연결되어 추가 입점까지 성사됨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호주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습관, 다이어트·비건·글루텐 프리 수요와의 정확한 매칭
 - 현지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독창적 제품이라는 점에서 희소성과 차별성 확보
 - 영양가가 높은 두부 기반 식품으로, 일반 라면이나 파스타보다 건강한 제품임을 강조
 - 상온 보관이 가능한 제품으로 온라인 배송·유통이 용이 →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확산에 유리
 - 호주 유명 인플루언서의 콘텐츠 간접 노출로 인해 입소문 확산과 초기 브랜드 및 제품 인지도 제고에 큰 역할



성공 사례로 보는 호주 진출전략 : 특수 전선 기업 Y사(현지 T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Y사의 전선은 범용이 아닌 고객 요구에 맞춘 맞춤형 특수 전선으로 특정 산업군에서 틈새시장 확보
 - 단발 거래가 아닌, 한 번 성사되면 장기적 안정 매출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음
- 필수 인증
 - 일반적인 경우 별도의 강제 인증은 요구되지 않으며, 제품 사양서를 통해 품질과 규격을 증명
 - 다만 방폭 지역에서 사용되는 특수 케이블의 경우, 호주·뉴질랜드 표준(AS·NZS) 인증이 필요
- 성약 소요기간
 - 지사화 사업을 통해 약 2~3개월 만에 첫 유효 바이어인 유통 업체를 발굴하였으며, 제품 단가 확인 후 곧바로 계약으로 이어짐
 - 계약 이후 현지 입고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어, 상담 개시 후 총 6개월 만에 수출이 완료
- 바이어 발굴경로
 - 지사화 담당자가 사전에 메일로 접촉한 바이어 명단을 토대로, 업체 담당자와 협력하여 유망 바이어를 선별
 - 지사화 담당자가 선정한 바이어 중 한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소개하였고, 바이어는 해당 제품이 한국에서 생산된다는 사실을 처음 접하고 알려줘서 고맙다며 다음 날 곧바로 가격을 요청
 - 가격 제안 이후 단 일주일 만에 발주가 이루어지는 등 빠른 성약으로 연결됨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고객사 전문성과 무역관의 현지 정보를 결합해 유망 바이어를 선별 공략한 전략이 주효
 - 이메일 접근은 기억되지 않았으나 직접 방문을 통한 정보 전달이 성약의 결정적 계기
 - 무작위 접촉보다 전략적 타겟 선정과 현지 협업 기반의 바이어 발굴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

- 뉴질랜드 : 한류 인지도 기반 프리미엄 소비재 현장 체험형 진출 사례



성공 사례로 보는 뉴질랜드 진출전략 : 기업 K사

- 제품의 비교우위
 - 높은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 필수 인증 : 없음
- 성약 소요기간 : 6개월
- 바이어 발굴경로 : '24년 상반기 불업코리아 행사 홍보 과정에서 바이어의 관심을 유도하여 방한을 성사 시킴. 바이어가 관심을 가진 J 브랜드 화장품 공급사 K사는 기존 참가 리스트에 없었으나, 무역관이 직접 행사에 유치시켜 상담회를 통해 성과 있는 협의를 진행하였음. 이후 바이어는 귀국하여 현지 F그룹 백화점 뷰티 바이어에게 J 브랜드를 적극 홍보. F그룹은 신속히 입점을 결정하였고, '24년 8월부터 '25년 7월 기준 총 16만 1,066달러 규모의 수출 성약이 체결됨('24년 성약액 7만 9,779달러)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단순히 전시회 참가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바이어의 관심 브랜드를 발굴해 행사에 유치함으로써 성약으로 연결



성공 사례로 보는 뉴질랜드 진출전략 : 기업 D사

- 제품의 비교우위
 - 한류 문화 홍보 상품
- 필수 인증 : 없음
- 성약 소요기간 : 5개월
- 바이어 발굴경로 : 무역관 판촉전에 참가한 D기업은 한국 문화를 알리는 고부가 제품(신윤복 변색 소주잔, 자개 텀블러·머그컵 등)을 선보였으나, 최초 접촉한 E바이어와는 단가 문제로 협의가 무산됨. 이후 K-팝 기반 애니메이션 글로벌 흥행으로 한국 문화상품 수요가 급증하자, 무역관은 해당 제품을 단순 소비재가 아닌 문화 홍보용 고부가 제품으로 재포지셔닝. 이 관점에서 K바이어를 발굴해 제품의 부가가치를 강조 하며 협의를 진행하였고, 바이어는 높은 단가에도 불구하고 샘플 오더를 통해 시장 반응을 시험하기로 하여 성약이 성사됨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동일 제품이라도 잠재적 부가가치를 발굴하고 새로운 프레임으로 홍보하여 수출 단가라는 기존 걸림돌을 극복

□ 주재국의 대외 수입 규제, 對한국 수입 규제 등

- 규제 건수, 주요 내용
 - (베트남) '25년 8월 기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9개국 16개 품목에 대한 규제조치 18건 및 전 세계를 2개 품목(합금·비합금 철강제품, 철강 와이어·코일 제품)에 대한 규제조치 2건 등 총 20건의 규제조치 시행 중
 - * 對한 조치로, 컬러도금강판 및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2개 품목이 반덤핑 조치 적용 중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對세계 수입 규제는 총 33건(세이프가드 17건, 반덤핑 16건)으로 내수 생산이 가능하거나 육성 중인 산업(플라스틱·고무(9건), 섬유·의류(8건), 철강·금속(6건), 화학(4건) 및 기타(5건) 등) 보호에 대한 조치
 - (싱가포르) 대부분의 수입 품목에 대해 무관세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입 규제 역시 최소화
 - (말레이시아) '25년 상반기 기준 한국 대상 수입 규제는 전체 4건으로, '24년 하반기와 동일(△유형별 : 반덤핑 4건, △품목별 : 철강·금속 4건)
 - (필리핀) DA MO(5/5)·FDA Order 2023-0790-B^{6/16}고시^본에 따라 한국산 가열처리^{열처리} 기준 충족 돼지고기 제품 수입 재개
 - (캄보디아) 하위 법령 370호^{Sub-Decree No. 370}를 통해 수입 금지·제한 품목 공표, 총 2,415개의 규제품목 중 35개 품목은 예외 없이 수입 전면 금지
 - (호주) '25년 7월 호주는 총 16개 국가에 반덤핑 관세^{51건} 부과, 총 2개국에 상계관세^{9건} 부과 중이며, 한국은 6건 부과(한국산 철강 및 금속 제품 6개 품목에 대한 부과)
 - (뉴질랜드) '25년 8월 뉴질랜드는 총 6건 품목(중국·말레이시아 철강·금속 2건, 그리스·스페인산 식품 등 3건)의 반덤핑 수입 규제 시행 중이며, 한국산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중^{'21년 6월 조사, '23년 1월 1일부로 관세 부과}

• 기타(향후 전망 등)

- (베트남) 17개의 FTA를 체결하는 등 개방적인 통상 정책과 함께, 무역구제 조치를 적극 활용해 자국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는 이중적 정책 기조 지속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對한 수입 규제는 총 11건^{세이프가드 11건, 반덤핑 7건}
- (싱가포르) '25년 9월 28개 FTA 체결, 최종 가공 또는 재수출 거점으로 활용하는 외국 제조업체에도 전략적 이점을 제공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AP^{Approved Permit} 제도를 통해 자동차·철강·중장비·화학제품 등 전략 품목의 수입을 정부 승인 기업에만 제한함으로써 자국 산업 보호 및 외환 유출 통제
- (호주)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한 정책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 필름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논의 지속

다. 산업

□ 주요 산업 개요

• 수출 주도형, 제조업 중심 구조

- (베트남) 전기·전자 제조업 중심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 컴퓨터·전자제품 등의 품목이 전체 수출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
- (인도네시아) 주력 산업은 제조업이며 다음으로 도소매업, 농림어업, 건설업 순이며, 해당 산업 비중의 합이 GDP의 50% 이상을 차지
- (말레이시아) 풍부한 천연자원과 글로벌 공급망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위주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 보유
- (태국) 자동차·전기전자 중심의 수출형 제조업이 GDP를 견인하며, 농식품 가공 산업도 '세계의 식품 바구니'로 불릴 만큼 중요한 성장축을 형성

• 서비스 주도형, 금융·디지털·BPO형 경제 구조

- (싱가포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이중 구조를 기반으로, 관광·소매·부동산 등 내수 산업이 도시 경쟁력과 글로벌 인재 유치에 기여
- (필리핀) 서비스^{IT-BPM}, 관광과 제조^{전자}가 성장을 주도, 농업은 2분기 생산 급증으로 공급 측 안정에 기여, '25년 2분기 GDP^{+5.5%}는 1분기^{+5.4%} 대비 소폭 개선
- (호주) 서비스업^{금융·의료·교육·관광}이 전체 GDP의 약 70%를 차지, 이 외에도 광업, 에너지 산업 등이 발달하였으며, 노동당 재집권^{'25년 5월 확정}에 따른 친환경 전환 사업 기조 유지 전망
- (뉴질랜드) 1차 산업은 GDP의 약 5~6%로 유제품·육류 수출 비중이 높고, 2차 산업은 약 17~18%로 제조업^{47%}·건설업^{37%} 중심이며, 3차 산업이 약 68~69%로 임대·부동산업^{20%}이 최대 비중 차지

• 경공업·1차 산업 기반 성장형 신흥 구조

- (캄보디아) 섬유·봉제 등 경공업 중심의 2차 산업이 약 40%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 3차 산업이 36%, 1차 산업이 17%의 비중 차지
- (라오스) '24년 산업별 GDP 비중은 3차 산업^{35.3%}, 2차 산업^{31.0%}, 1차 산업^{21.4%} 순, '24년 GDP 성장률은 4.4%로 산업^{4.7%}과 서비스업^{5.1%}이 성장을 주도
- (미얀마) 농업^{14.5%}·축수산업^{8.2%} 등 1차 산업을 기반으로 봉제업 중심의 제조업^{25.9%}과 도소매업^{20.9%}·운송서비스업^{10.3%}이 결합된 구조

□ 현지 주요 산업 최근 동향

• 산업 고도화·디지털 전환·중류산업 강화 등 제조 효율화·수출 경쟁력 제고

- (베트남) '산업 고도화'를 위한 질적 성장 전략으로 전환 중이며, 자동화 공정 도입, 포트폴리오 조정 등 對美 수출 경쟁력 확보 위해 생산비용 절감 및 효율성 증대 추진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4.0' 기반 제조업 고도화로 GDP 비중 확대를 추진하며 화학·제약의 자급화 투자를 강화하는 반면, 섬유·봉제 업종은 저가 수입과 수요 감소로 위축세
- (말레이시아) 반도체 산업 대규모 투자 유치, 전 산업 디지털화 추진, 철강은 반덤핑 규제로 보호 강화, 에너지는 태양광 중심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
- (태국) 역내 최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GDP의 약 10~11%를 차지하며 픽업트럭 강점 보유, 전기·전자 산업은 GDP의 약 13%로 수출 주도형 구조^{수출 비중 76%}를 유지하고, 글로벌 농식품 공급망 핵심국으로 '세계의 부엌' 위상 지속
- (호주) 핵심 광물 비축제도 도입과 미드스트림(Midstream) 강화로 자원 가공 고도화 추진, 풍력·태양광 중심 재생에너지 투자 급증, K-소비재 수요 확대, AI·바이오·스마트팜 등 미래 산업 육성과 함께 인프라·방산 분야 대규모 투자 확대

• 디지털 결제·관광·부동산·BPO^{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회복 등 내수 + 서비스형 성장 구조 강화

- (싱가포르) '24년 건설 수요는 전망치를 웃돌았고, '25년 2분기 제조업은 운송·정밀·전자 중심으로 성장^{화학·일반 제조업 부진}, 부동산업도 주택·오피스 등 전반적 수요 확대에 따라 안정적 성장
- (필리핀) 전자 수출은 강세 속 제조 생산 회복 둔화, 디지털 결제 확산으로 소비 기반이 확대되고, 물가 안정 속 BPO 산업은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
- (뉴질랜드) 유제품·육류 등 1차 산업 가공품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제조업과 관광업 또한 가파른 회복세 지속

• 디지털 결제·관광·BPO·부동산 회복 등 내수 + 서비스형 성장 구조 강화

- (캄보디아) 농업^{쌀 캐슈넛} 고부가가치화 추진, 제조업은 봉제 → 전기차·전자 산업 다각화 중이며, 관광업은 신공항 개항 등 인프라 확대로 성장 모색

- (라오스) '25년 6월 투자촉진·관리위원회 출범, 투자 서비스 개선, 민관 협력 활성화, 경제특구 기능 강화 등의 긍정적 영향 기대
- (미얀마) 정치 불안으로 제조업과 FDI가 위축된 가운데 봉제 수출 감소, 농업 생산성 저하가 지속되며 경기 부진 지속

라. 투자

□ 외국인 투자 동향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수혜 및 FDI^{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고성장형
 - (베트남) '25년 상반기, 베트남 FDI 누적 유치 규모는 5,235억 달러^{4만 4,118건}로 팬데믹 이후 최근 5년간 연평균 13.9% 성장
 - (인도네시아) '24년 FDI는 6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 기록, 특히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 정책으로 니켈 등 광물 부문에서 FDI가 크게 증가
 - (싱가포르) 지경학적 불확실성 지속으로 '24년 글로벌 FDI는 감소하였으나, 싱가포르의 FDI는 전년 대비 증가해 미국에 이어 2위 기록
 - (태국) '25년 1분기 태국 FDI 순유입^{Net Flow, BPM6 기준}은 34억 800만 달러^{1,152.8억 바트}로 전년 동기 대비 달러 기준 35.9% 증가^{바트 기준 28.9% 증가}
- 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투자 재편·선별 확장형
 - (말레이시아) '24년 정부 FDI 전년 대비 32.9% 증가한 112억 달러 기록, 재정건전화정책으로 인한 비용 부담과 대외 불확실성으로 제조업 FDI는 하락한 반면 국가 주도적 디지털화 추진 노력으로 서비스업 FDI 유치 대폭 증가
 - (호주) '24년 투자 유치액은 누계 기준 4조 9,706억 호주달러^{3조 2,409억 달러}로 전년 대비 증가^{'24년 호주의 직접투자 FDI 유치액은 810억 호주달러(528억 달러)}, '24년 최대 투자 유치국은 미국이며 영국, 벨기에, 일본 순
 - (캄보디아) '25년 상반기 캄보디아 투자 승인 건수는 373건^{신고 금액은 5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증가, '24년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순으로 투자 기록
- 정치·경기 리스크 영향에 따른 FDI 둔화·정체형
 - (필리핀) '25년 6월 FDI 순유입 3억 7,6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7.8% 감소, '25년 상반기 누계 34억 1,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8% 감소
 - (라오스) '24년 상반기 라오스는 총 63개 프로젝트^{약 13억 3,000만 달러} 규모, 이 중 라오스 합작 혹은 외국인 단독 투자는 30건으로 광업·서비스업 중심 투자
 - (미얀마) 미얀마 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가 발표한 '24.'25년 회계 연도의 외국인 투자 규모는 6억 9,02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

- (뉴질랜드) '24년 뉴질랜드의 FDI 유입 규모는 16억 5,000만 달러로, 전년^{17억800만 달러} 대비 3.4% 감소하였으며, '24년 대외 직접 투자 규모는 4,500만 달러로 전년^{8억 1,000만 달러}에 비해 순유출 폭이 크게 축소

□ 현지 주요 투자 유치 산업

- 공급망 이전, 산업 고도화, 제조 경쟁력 확대를 핵심으로 투자 유치
 - (베트남) 미국 상호관세 조치 이후 제조업 신규 투자는 주춤, 부동산 개발 및 전문 과학기술, 유통업 등 투자 증가 추세 뚜렷하며, 중국 대체 생산을 위한 對베트남 외국인 제조 분야 투자 관심 여전
 - (인도네시아) 제조업에 대한 FDI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인도네시아 투자부는 신재생에너지, 다운스트림 산업 등 9개의 투자 유치 전략산업을 국가 산업 발전과 FDI 유입을 견인할 핵심 유망 분야로 계획
 - (말레이시아) 반도체 중심 전기·전자^{승인액 124억 달러, 외국인 비중 95% ↑}와 전기차 확대에 성장하는 자동차^{31억 달러}, 바이오·API로 전환 중인 제약^{7억 6,000만 달러}, 데이터센터·AI 등 디지털 인프라 주도 ICT^{302억 달러}가 핵심 유치 산업으로 부상
 - (태국) '25년 1분기 FDI는 금융·도소매업 투자 급증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제조·부동산업은 조정 국면에 있으며, 제조업은 여전히 전자·전기차 중심의 핵심 투자 흡수처 역할을 유지
 - (필리핀) '25년 상반기 기준, 지분자본 유입의 50%가 제조업, 19%가 부동산, 10%가 금융·보험 활동으로 다방면에서 투자 유입 확인
- 금융, ICT, 디지털 서비스, 클라우드·데이터 등 무형 자산형 투자 증가
 - (싱가포르) 금융보험 분야 FDI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통물류 및 제조업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FDI 유입 추세
 - (호주) '24년 광업은 호주 전체 FDI의 31.8%를 차지하며 누계 4,077억 호주달러^{2,658억 달러} 기록, 정보통신 및 미디어 분야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도소매업은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
 - (뉴질랜드) Fast-track 제도와 'Electrify NZ'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데이터센터·핀테크·AI 등 디지털 산업을 핵심 투자 유치 분야로 육성 중
- 전통 농업·경공업에서 인프라·에너지·가공 산업까지 다각화
 - (라오스) 투자촉진법 개정으로 교육, 농업, 가공업, 의료 분야 인센티브를 확대해 해당 분야 투자 유치 강화
 - (미얀마) 외국인 투자는 전력^{28.5%}과 석유·가스^{25%} 부문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분야 이고 제조업, 교통·통신, 부동산 등도 주요 분야이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 차지

□ 주요 경쟁국(중국, 일본 등)의 현지 투자 유입 동향

- 중국 자본 주도형 국가군
 - (베트남) 최근 5년 對베트남 최대 투자국은 싱가포르로 중국계 투자 강세
 - (인도네시아) 주요 투자국은 싱가포르^{33%}, 홍콩^{14%}, 중국^{14%}, 말레이시아^{7%}, 미국^{6%} 순이며, 중국계 자본^{싱가포르, 홍콩, 중국}이 전체의 FDI의 60%를 상회
 - (캄보디아) 중국은 對캄보디아 최대 투자국^{'23년 전체 투자의 약 60%}으로 중국을 제외한 경쟁국의 경우 對캄보디아 투자 건수와 금액이 매년 큰 변동 없이 비슷하게 낮은 수준을 기록
 - (라오스) '23년 누적 투자금액 기준 對라오스 최대 투자국은 중국이며, 태국, 베트남 순
 - (미얀마) 최대 투자국은 싱가포르^{28%}이며, 중국^{23.5%}, 태국^{12.5%}, 홍콩^{10.7%}, 영국^{7.8%}, 한국^{4.5%} 순
- 첨단 제조·디지털 기반 다국적 FDI 경쟁 국가군
 - (싱가포르) 가장 큰 투자 국가는 미국, 아세안 금융 허브 특성으로 케이만군도, 버진군도 등에서도 투자금의 지속적인 유입 양상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JS-SEZ 효과로 투자가 급증하며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 중국은 전기차·배터리·디지털 등 첨단 제조 확대로 2위 유지, 미국은 반도체·데이터센터 중심으로 안정적 투자 확대 지속
- 자원·식량·관광 중심의 전략형 투자 집중 국가군
 - (호주) 미국은 광업·ICT·방산 협력을 기반으로 최대 투자국 지위를 유지하며 FDI가 14.6% 증가했고, 일본은 LNG·재생에너지·인프라 등 전방위 투자 확대와 함께 11년 연속 투자 증가를 기록한 반면, 중국은 규제 강화와 자원 내재화 정책 영향으로 최근 6년간 투자 감소세가 지속
 - (뉴질랜드) 중국은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 낙농·농축산업에 집중 투자^{Yili의 Westland Milk 인수} 등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은 재생에너지·호텔 개발에 진출, 싱가포르는 부동산 및 태양광 프로젝트 투자를 중심으로 존재감 강화

□ 아세안·대양주의 對韓 투자 현황

- 규모, 주요 투자 산업 등 개황 서술
 - (베트남) '25년 6월 기준, 베트남의 對한국 투자는 1억 6,840만 달러^{1,023건}로 '22년 이후 투자 프로젝트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
 - (인도네시아) '24년 인도네시아의 對한 투자액은 8,400만 달러 수준으로, 서비스 투자가 전부이며 이 중 부동산 투자액이 98%를 차지
 - (싱가포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누적 신고금액 기준, 싱가포르는 한국의 4대 투자국
 - (태국) '24년 연간 태국의 對한 FDI 순유출은 약 2억 2,000만 달러수준이며, 투자자 업종 분류상 '기타 서비스^{Others}' 비중이 크고, 금융·보험, 부동산 등이 소규모로 뒤따르는 구조

- (필리핀) 필리핀의 對한 직접투자는 사례 중심·소비재·서비스 편중의 제한적 흐름, 투자 집행이 개별 프로젝트·거래 공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대규모 제조·인프라형 유입은 드문 편이며, 지분 소수 참여·합작투자 형태가 다수
- (호주) '24년 호주의 對한 투자는 신고 건수 53건, 신고액 2억 8,840만 달러, 투자액 8,889만 달러임. 호주의 대외 투자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영미권 국가에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한국에 대한 투자는 1% 미만^{'23년은 0.8% 기록}
- (뉴질랜드) 스카이라인^{Skyline}社は 한국의 부산과 통영에 '스카이라인 루지' 사업 투자^{'18년 4월 루지 레포츠 시설에 대한 투자의향서(LOI)를 체결, '21년 7월에 공식 개장}, 현재 연간 관광객 1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운영 중이나 이 외 투자 규모는 제한적

□ 한국의 아세안·대양주 투자 진출

한국의 對아세안·대양주 투자 진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건, %)

구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아세안	투자 금액	8,952	△1.0	7,404	△17.3	8,255	11.5	3,655	△11.3
	신규 법인 설립 건수	697	-	825	-	794	-	651	-
대양주	투자 금액	1,495	26.6	662	△55.7	1,097	65.7	502	△40.7
	신규 법인 설립 건수	27	-	24	-	33	-	17	-

주: 신규 법인 설립 건수는 현지법인·지점·지사 모두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제조업 중심 생산 거점형 투자 국가군 → 제조업 비중이 50% 이상

- (베트남) '25년 1~9월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의 74.9%는 제조업 집중되어 있으며, 부동산 경영업 10.3%, 전력·용수·가스 제조 및 판매업^{4.2%}, 건설업^{2.7%}, 도·소매 유통 및 수리서비스업^{2.1%}, 물류 운송업^{1.5%}, 호텔·요식업^{1.0%} 순
- (인도네시아) '24년 업종별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FDI 비중은 제조업이 52%, 금융 및 보험업이 26%, 광업 10%, 건설업 4% 순이며, 제조업의 세부 분류를 살펴보면 1차 금속 제조업^{비철금속}이 제조업 전체의 33% 차지
- (태국) '24년 상반기 신고 금액은 제조^{3,064만 달러}, 금융·보험^{709만}, 건설^{483만}, 정보통신^{469만}, 숙박·음식^{232만} 순으로 제조업 중심 구조 유지 속 서비스 부문 정상화 흐름

• 서비스·금융·프랜차이즈·도시형 시장 진출형

-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한국의 제8위 투자대상국^{한국 수출입은행 누적 투자금액 기준}, 한국 기업의 주요 진출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의 금융·보험업 외에도 최근 한류 영향으로 서비스 프랜차이즈 분야 진출 수요 증가 추세
- (말레이시아) '24년 전년 대비 113.4% 증가한 7억 2,800만 달러 투자, '25년 상반기 기준 투자 금액은 2억 6,300만 달러로 총 13개의 신규 법인 진출
- (캄보디아) '24년 캄보디아는 한국의 27대 투자 대상국으로, 업종별 ^{대한민국} 캄보디아 누적 투자 기준 금융·보험업^{25억 4,800만 달러}, 건설업^{10억 1,800만 달러}, 부동산업^{8억 6,200만 달러} 순
- (필리핀) 한국의 ^{대한민국} 필리핀 투자는 '22~'24년 확대 추세를 보였고 '25년 1분기에도 증가 기조가 유지됨

• 자원·농림·에너지·식품·임업 기반 전략형 투자국

- (미얀마) '25년 1분기 기준 ^{대한민국} 미얀마 투자 규모는 총 55억 달러로 업종별로는 광업 62%, 금융·보험업 14.3%, 제조업 11.8%, 운수·창고업 6.4% 등
- (호주) '25년 1분기 한국의 ^{대한민국} 호주 투자액은 3억 3,000만 달러이며, 광업, 제조업, 금융·보험업 중심 투자 경향
- (뉴질랜드) 한국 기업은 오뚜기의 식품 제조, 자이코·동원수산의 수산업 진출과 함께 한솔·썬앤엘이 조림사업을 기반으로 목재·탄소배출권 수익을 창출하며 임업 중심 투자를 확대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사례

- 베트남 : 기술이전·공동 개발·공급망 재편을 활용한 생산 기반형 시장 진출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스마트팜 기업 A사, 한국 스마트팜 기술 활용 및 현지 공급을 위한 법인 설립

- (기업 정보) 전라도 스마트팜 설치·운영 기업으로 10여 년간 활동
- (성공 사례)
 - 베트남은 농업 강국이나 기술·설비 수준이 낮아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에 한계
 - 한국의 '베트남 한국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참여해 초기 시장 진출, 현지 지방정부·기업과 합작법인 설립
 - 딸기·포도·버섯 등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을 위한 스마트팜 기자재·시스템의 현지 수요 포착
 - 현재 베트남 북부 지역(탁락·뚜옌꽁)에 시범단지를 조성 중이며, 향후 타 지역으로 확대 예정
- (시사점)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해 안정적 진출 기반을 확보했고, 현지 지방정부·기업과의 신뢰 구축을 통해 추가 사업 기회와 법인화 성과를 달성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헬스케어 기업 H사, 베트남 건강검진 시장 공략을 위한 법인 설립

- (기업 정보) 국내 병원 운영 및 디지털 헬스케어 경쟁력 보유, 특히 AI 기반 건강검진 인프라 및 IT 솔루션 제공 기업
- (성공 사례)
 - '24년 베트남 고급 의료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병원 설립·운영 개시
 - 베트남 정부의 의료 디지털화 정책에 맞춰 현지 스타트업과 협력, AI 기반 병원 IT 솔루션 및 건강검진 시스템 공동 개발
 - 특히, 임상 환경에 특화된 IT 프로세스 및 건강검진 시스템을 공동 개발 및 베트남 현지 사정에 맞게 적용
 - 임상 환경에 특화된 프로세스를 현지 사정에 맞게 적용, 향후 국영·민간 병원 확대를 통해 한국형 디지털 헬스케어 운영 모델 확산 전망
- (시사점) 베트남은 의료 디지털화가 더딘 상황으로 효율성과 비용 경쟁력이 낮음. 한국 기업은 선진화된 디지털 헬스케어 노하우와 실제 운영 사례를 통해 1억 명 인구 시장에서 전략적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음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G사, 해외 완성차 부품 수출 공략을 위한 법인 설립

- (기업 정보) 울산 소재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 기업으로 현재 한국 및 해외 완성차 업체에 납품 중
- (성공 사례)
 - 미국-중국 통상 분쟁 발생 이후 해외 완성차 기업들의 중국산 부품 대체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었으며, 지난 '24년 이후 중국 생산 공장 베트남 이전 실행
 - '25년 초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이후 중국산 부품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동사는 제3국 생산기지로서 베트남에서 공급 안정성을 확보
 - 현지 노동력과 연관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완성차 바이어들로부터 신규 구매 제안을 다수 확보, 생산 안정화 이후 수출 확대가 본격화될 전망
- (시사점)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바이어 수요 변화를 정확히 예측해 시의적절하게 공장 이전을 추진, 현지 경쟁력 확보에 성공. 향후 베트남 제조공장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인도네시아 : 현지 파트너십 기반 규제 적응형 시장 진출전략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가구 기업 A사,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을 위한 법인 설립

- (기업 정보) 사무 가구 전문 브랜드인 A사는 국내 유수의 기업의 해외 진출 파트너로 활약한 바 있음. 향후 동남아 시장을 타깃팅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 (성공 사례) 국내 대기업 해외 진출 시 오피스 가구 파트너로 검증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글로벌 네트워크와 운영 노하우를 통한 안정적 진출
- (시사점) 가구처럼 규제(산림청 허가 등)와 인증 절차가 많은 품목은, 현지 제도를 철저히 이해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중요. 한국 기업들은 진출 전 단계에서 현지 규제·행정 리스크 관리에 유의 필요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서비스업 S사,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을 위한 법인 설립**

- (기업 정보) S사는 멀티미디어 전자책 제작이 가능한 저작 도구를 개발하고, 전용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 (성공 사례) 현지 교육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며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 (시사점) 잠재 바이어 발굴을 위해 여러 차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현지 수요에 맞춘 인도네시아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추진한 것이 주요

- 싱가포르 : 테스트베드형 프리미엄 소비 시장 공략을 통한 브랜드 확장 전략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프랜차이즈 A사, 동남아 진출 거점 싱가포르 첫 진출**

- (성공 사례)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A사는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싱가포르에 진출
- 무역관 지사화 사업 등 참여를 통해 시장 진출을 타진한 결과, 동남아시아 유력 CVC(기업형 벤처캐피털)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해당 CVC의 프랜차이즈 라인업으로 동남아시아 진출 확대 추진 중
- (시사점)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최적의 테스트 마켓으로서의 싱가포르 진출 수요 증가

- 말레이시아 : 생산 거점 구축 및 SNS 기반 리테일 확산형 현지화 전략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J사, 호주 기업과 손잡고 말레이시아 영구자석 공장 설립 추진**

- (기업 정보)
 - J사는 희토류 원료를 가공해 희토류 영구자석으로 제조하는 기업
 - 희토류 영구자석은 현재 사용 가능한 영구자석 중 가장 강한 자기장을 가져 풍력터빈과 MRI스캐너와 같이 높은 전력이 필요한 장치에 사용
- (성공 사례)
 - '25년 8월 호주 희토류 생산 기업인 라이너스와 협력해 말레이시아 쿠안탄에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공장 설립을 위해 MOU 체결
 - 라이너스는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 업체 중 하나로 쿠안탄에 대형 희토류 정제시설 보유
 - 공장 생산 규모는 연간 3,000톤이며 합작공장 부지 선정과 원료 공급 방안 협의 중
- (시사점) 말레이시아는 희토류 매장량 약 1,610만 톤으로 추정되는 자원부국으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원료·시장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효과적 진출 형태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CU, 할랄 인증과 활발한 SNS로 현지 소비자 공략

- (기업 정보) CU는 '21년 Mynews와 협업해 말레이시아에 진출, '25년 현재 수도권에 약 147개 점포를 운영 중
- (성공 사례)
 - CU는 즉석김밥, 삼각김밥 등 한국에서 인기 있는 식품은 물론 현지 수요를 반영한 메뉴를 출시해 현지 무슬림 소비자에게 인기 증가
 - CU의 현지 PB(자체 브랜드) 상품은 모두 할랄 인증을 보유해 무슬림 소비자 대상 신뢰도 확보
 - 인스타그램 같은 SNS 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과 소통으로 제품을 넘어 한국 문화까지 전파
- (시사점) 무슬림계의 비중이 높은 저가형 유통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현지화

- 태국 : 생산 기반·플랫폼·브랜드 협업을 통한 현지화형 시장 공략 다각화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현대자동차, 태국 EV 시장 공략을 위한 조립·배터리 법인 설립

- (기업 정보) 현대자동차 계열 현지 법인(Hyundai Mobility Thailand)
- (성공 사례)
 - 현대자동차(현대 모빌리티 타일랜드), EV(전기차)·배터리 조립 법인 설립(BOI 승인)
 - 1억 바트(약 2,800만 달러) 투자로 BEV(순수 전기차) 및 배터리 조립 추진, '26년 가동 목표, 현지 조달 1/3 이상 조건 충족해 공급망 내재화 기반 확보. 정부의 EV 3.5 정책 트랙과 연계
- (시사점) 동남아 EV 허브화 정책을 활용한 조립·수출 거점 전략에 적합. 부품·소재 동반 진출 파급효과 기대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L사, 라이브커머스 시장 공략을 위한 합작 법인 설립

- (기업정보) 라이브커머스·LaaS 플랫폼 운영사
- (성공사례)
 - L사, Saha Group 자회사와 MOU·지분 협력, 라이브커머스 'BIGXSHOW' 론칭
 - '24년 7월 16일 MOU와 함께 BIGXSHOW 플랫폼 공개, 이후 태국·일본 파트너와 인플루언서·라이브 커머스 얼라이언스 확대로 현지 유통망·트래픽 레버리지 확보
- (시사점) 대형 리테일 파트너십 + 플랫폼 결합형 진출 모델. K-소비재의 D2C·인플루언서 판매에 즉시 적용 가능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이노션, 경험형 리테일 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 운영 법인 설립**

- (기업 정보) 현대차그룹 계열 마케팅·리테일 경험사
- (성공 사례)
 - 이노션, 시암 피왓(Siam Piwat)과 협업, K-팝 팝업·경험형 리테일 확장
 - BTS 팝업('24년 5~6월 시암 파라곤), 세븐틴 프로젝트('24년 1월) 등 콘텐츠·라이선스·F&B 결합형 매장 운영으로 관광 수요와 Z세대 트렌드 흡수
- (시사점) 한류 + 리테일로 고객 체류시간·객단가 증대 입증. 상설 매장·MD 테스트베드로 확장 가능

- 필리핀 : 전자부품 글로벌 수요 대응을 위한 경제특구 기반 생산 거점 강화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삼성전기, 글로벌 MLCC 수요 대응을 위한 필리핀 칼람바 법인 설립**

- (기업 정보) '97년 설립, 라구나주 칼람바 CIP 내 생산 거점. 주요 품목은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인덕터, 칩저항, 카메라모듈. '24년 임직원 7,719명, 누적 투자 14억 2,000만 달러, '22년 매출 8억 2,000만 달러
- (성공 사례)
 - PEZA(경제특구)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생산성·고용 창출 실적을 축적하고 신사옥('23년 6월) 준공해 IT·전자 수요 대응 체제를 확립. 전장용 MLCC 신규 사업 추진으로 제품 포트폴리오 고도화
- (시사점)
 - 전기차·자율주행 확산에 따른 MLCC 탑재량 급증이 부품 현지화 수요를 견인하는 구조임. PEZA 인센티브와 칼람바 전자클러스터의 집적도가 대규모 설비 투자 유인으로 작동함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B사, 글로벌 특화 전자(무전기·레이더·GPS·블랙박스) 수요 대응을 위한 칼람바 법인 설립**

- (기업 정보) '12년 설립('13년 양산), 라구나주 칼람바 CIP Batino 입지. '23년 매출 6,200만 달러, 임직원 505명. 주요 품목은 산업용 무전기, 레이더 디텍터, GPS 수신기, 블랙박스
- (성공 사례)
 - ODM·OEM·JDM 다변화로 Motorola, Cedar(Escort·Cobra), Comtec, Asahi 등 글로벌 고객망 확보. 초기 540만 달러에서 누적 1,340만 달러 투자로 생산 역량 확충 및 500명 이상 현지 고용·교육 체계 정착. 지역 상공회의소(KCCI·LCCI) 활동을 통한 파트너십 기반 강화
- (시사점)
 - 중소·중견의 다품종 소량·완성품 조립형 모델이 필리핀 제조 허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형임. 통신·차량 전장 액세서리 등 틈새 고부가 시장 공략과 지역 네트워크 활용이 성장 동력으로 기능함

- 캄보디아 : 소비재 유통 시장 선점을 위한 현지 파트너십형 진출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유통 기업 E사, 캄보디아 시장 공략을 위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설립

- (기업 정보) 유통기업 E사
- (성공 사례)
 - 현지 높은 한류 인기에 따라, K-유통의 대표주자인 국내 편의점 E사가 캄보디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
 - E사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이어 세 번째 해외 진출 지역으로 캄보디아에 매장 설립을 추진
 - 프놈펜무역관 사업파트너 연결서비스를 통해 다수의 기업을 소개받았고, '23년 국내·현지 기업과 3자 MOU를 체결
 - '23년 마스터 프랜차이즈 본 계약 체결, '24년 1호점 개소 등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100개 매장 오픈 계획
- (시사점) 국내 최초 편의점이 현지 진출함에 따라, 향후 국내 소비재 제품의 시장점유율 상승 효과 기대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문구 기업 A사, 캄보디아 시장 공략을 마스터 프랜차이즈 설립

- (기업 정보) 문구 기업 A사
- (성공 사례)
 - 약 5년간의 장기적인 교류와 업무 교신을 통해 국내 대표 문구 기업의 캄보디아 시장 성공적 진출
 - A사는 국내 문구류 시장의 정체를 타개하기 위해 몽골, 베트남 등에 이어 '23년 세 번째로 캄보디아에 첫 매장을 오픈
 - 현지 업체와 캄보디아 시장을 일괄 독점 계약하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형태로 진출
 - 프놈펜무역관에서는 A사의 한국상품전 참가 지원, 현지 파트너사와 수입 절차, 관세, 통관 자문 등 장기적 업무 교신
- (시사점) K-문구가 캄보디아에서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추진

- 라오스 : 생산기지 이전과 법인 설립을 통한 제조·물류 거점화 전략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국내 중견 봉제 기업 A사, 글로벌 생산기지 다변화로 생산 비용 절감

- (기업 정보) 봉제 업종 중견 기업 A사
- (성공 사례)
 - 베트남에서 발생한 규제 강화와 높은 인건비 문제로 인해, 라오스를 새로운 생산기지로 확장
 - 비용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전략적 결정, 생산기지 다변화를 목적으로 라오스에 생산 공장을 추가 설립
 - 한국, 중국 등에서 원재료 수입 후 미국, 유럽 등에 재수출하는 구조로 무관세 수입 혜택 이용
- (시사점)
 - 생산 거점 이전과 국제 무역 관세 혜택 적극 활용
 - 베트남 정부의 노동 허가 및 소방시설 승인 등의 관련 규제 강화, 높은 인건비 등으로 라오스를 새로운 생산기지로 이전

-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활용에 따른 비용 절감 및 제품 가격 경쟁력 제고

* 일반특혜관세제도는 개발도상국의 수출 확대와 공업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이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물, 공산품 등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거나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우대 제도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물류 서비스 기업 L사, 라오스 물류 시장 선점을 위한 라오스 법인 설립

- (기업정보) 물류 업종 중소기업 L사
- (성공사례)
 - Land-Lock이라는 내륙국의 한계를 극복하고, 접경 국가를 활용한 Land-Link 물류 서비스 확대 개발
 - 국내 물류 협력사와 해상 운송으로 시작, 라오항공을 비롯한 라오스 취항 항공사와 협약을 통해 항공 서비스로의 확장
 - 라오스 우체국에서 접수된 물품 취합, 전 세계 50여 국가 대상 서비스 제공 및 미국 우체국발 라오스 EMS(국제특급우편) 서비스 운영 중
- (시사점)
 - 내륙국의 작은 시장이라는 인식의 틀을 깨고,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의 확장성을 목표로 해상·항공 물류 서비스 시장 선점
 -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보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운송 비용 제시, 맞춤형 컨설팅 및 통관 서비스 제공
 - 독자적 물류 서비스 센터 구축, 냉동·냉장 창고 인프라 확장으로 신선 제품 및 프랜차이즈 등 서비스 산업 선도

- 호주 : 현지 사무소 설립을 통한 시장 밀착형 영업 기반 구축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D사, 호주 시장 공략을 위한 멜버른 사무소 설립

- (기업 정보)
 - D사는 D그룹의 컬러강판 전문 자회사로, 프리미엄 건축용 강재 브랜드 'Luxsteel'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
- (성공 사례)
 - '25년 4월 10일 D사는 호주 멜버른 지역에 사무소를 개소
 - 이는 '32년 브리즈번 올림픽을 대비한 호주 고급 건축자재 전략 거점화 계획의 일환으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현지 수요 확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
 - 이번 진출은 '24년 7월 두 차례에 걸친 현지 조사를 통해 호주 시장에서 프리미엄 자재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확인된 것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
 - D사는 미국, 일본, 멕시코, 인도, 태국, 베트남, 독일에 이어 호주를 여덟 번째 진출 국가로 추가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함
 - 한편, '15년 호주 시장 진출 이후 D사의 컬러강판 수출량은 현지 수요 증가에 힘입어 5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이번 사무소 설립은 이러한 성장세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시사점)
 - D사의 호주 현지 거점 설립은 단순한 수출 확대를 넘어, 오세아니아 건설 시장 공략과 글로벌 입지 강화라는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
 - 이를 통해 D사는 프리미엄 철강재 중심의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호주를 포함한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

- 뉴질랜드 : 기업 인수를 통한 기술 기반 시장 진입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한국 기업 L사, 뉴질랜드 회사 볼파라 인수

- (기업 정보) 한국의 AI 기반 암 진단 회사인 L사는 의료 영상 데이터를 활용한 암 진단·예후 예측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회사
- (성공 사례) 유방암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AI 지원 소프트웨어로 유명한 뉴질랜드의 볼파라 헬스 (Volpara Health)를 약 1억9,300만 달러에 인수하는 큰 투자를 단행함('23년 12월)

□ 현지 투자 진출 시 진입장벽

- 인사·노무 : 노동 규제 강화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리스크 확대
 - (베트남) 세제·토지 중심의 제한적 인센티브 구조와 복잡한 행정 절차,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중소기업 지원 축소로 투자 인센티브 활용에 어려움
 - (인도네시아) 급속도로 상승하는 현지 숙련 인력·대졸자 임금에 따른 채용 한계, 최저임금만 고려하고 현지 진출할 경우 인력 채용에 어려움 예상
 - (싱가포르) 세계 최고 수준의 고물가^{생계비 2위}로 운영비 부담 다대, 비자 기준 강화·출산휴가 확대·유연 근무제 의무 대응 등 인건비·인사관리 리스크 존재
 - (말레이시아) 자국민 우대정책 강화 추세, 최저임금 인상 및 외국인 근로자의 EPF^{근로자적립기금}에 대해 고용주 2% 의무 기여^{'25년 10월 발효} 등 비용 상승 추세
 - (필리핀) 최저임금 인상^{수도권(NCR) 일급 최저임금 비농업 695페소 농업 658페소 적용}, 사회보험 요율·상한 조정, 하도급 규제에 따른 고용 비용·준수 부담 확대
 - (캄보디아) 노동법 관련 규정의 면밀한 숙지와 현지 노조 관리가 필수적
 - (라오스) 현지 젊은 층의 높은 해외 취업 선호로 낮은 고용 안정성과 직업훈련 인프라 미흡, 단순 공정 위주의 산업 구조로 숙련 인력 확보 한계
 - (호주) 주 38시간 근로, 연차·병가 등 법정 휴가 보장 등 엄격한 노동 규정이 인건비·노무관리 부담 요소로 작용
 - (뉴질랜드) 높은 최저임금과 복지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 고용 유연성 저하, 특정 기술직 및 제조·서비스직을 중심으로 현지 인력 공급이 부족 등

- 특정 산업 투자 금지 등 규제 : 산업별 FDI 제한 및 진입장벽 지속
 - (베트남) 방송, 통신, 광고, 교육, 부동산, 여행, 의료·사회 서비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물류, 전자상거래 등 59개 업종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나 일부 산업에서는 현지 기업과의 합작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 보유 필요
 - (태국) FBA^{외국인사업법}에 따라 언론·농업 등은 전면 금지되고, 안보·문화 관련 업종은 승인과 태국 지분 요건 필요하며, 서비스업은 허가 시 100% 가능하나 승인 지연, 금융업은 신규 진입 제한 등 진입장벽이 높음
 - (필리핀) 외국인은 토지 소유 불가^{최대 99년 임차}, 공공 유틸리티 외국인 지분 40% 제한, 대중매체·광고 등은 업종별 지분 규제 유지
 - (캄보디아) FDI에 개방적이나, 일부 분야^{천연자원·문화재·군사·미디어} 등은 제한
 - (라오스) 무기·마약 제조 및 유통, 유해 화학물질·산업폐기물 제조 등은 내·외국인 모두 원천 금지하며, 자국민 보호 업종은 외국인 투자 제한
 - (호주) 국익·안보 기준으로 민감 산업·토지 투자 제한, 특히 광업 규제 엄격
 - (뉴질랜드) 일정 규모 이상 자산^{부동산, 인프라 등} 및 민감 산업^{농지, 항만, 에너지 등} 투자 시 IOI^{해외투자심사국} 사전 승인 필요, 국익·안보 기준에 따라 제한 가능

2. 유망 산업

가. 제조업 : 전자·자동차 중심의 산업 고도화

□ 전기·전자 산업 : 첨단화와 공급망 재편 가속

- 베트남 : 글로벌 전자 산업 생산 허브로 부상
 - 전기·전자 교역 비중이 전체의 34%로 19억 달러 확대, 삼성·폭스콘 등 대규모 투자로 후공정 중심에서 완성형 생산 허브로 발전 중
 - 미국의 對중국 우회수출 감시 강화로 한국·일본·대만산 부품 수급 확대 움직임 관측
- 말레이시아 : 반도체 가치사슬 고도화 추진
 - 반도체 시장은 118억 달러 규모로, OSAT^Outsource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중심에서 웨이퍼·IC 설계로 확장
 - 로컬 기업은 ATE^Automatic Test Equipment 장비에서 두각을 보이며 한국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 협력 수요 증가

□ 자동차(EV) 산업 : 친환경차 확산과 전장 기술 협력 확대

- 싱가포르 : 친환경차 전환의 선도시장
 - '25년 상반기 싱가포르 신차 시장에서 EV 등록 비중이 80%에 달하며, BYD가 19.5% 점유율로 1위, 정부의 차량배출^{VES} 규제로 친환경차 전환 가속
 - 정부의 차량배출 규제로 EV 보급 확대, 한국 기업과 배터리·BMS^{배터리관리시스템} 협력 기대
- 태국 : EV 인센티브 중심의 생산기지 확대
 - EV 3.5 인센티브^{보조금·관세 감면} 시행으로 BEV 생산·투자 급증, 내수 시장 성장세
 - 완성차-부품 연계 납품 구조 강화 및 품질관리 부문에서 협업 유망
- 필리핀 : 전기차 인프라 확충 가속화
 - EVIDA^{전기차 산업 발전법}에 따라 공공·법인 EV 도입 의무화, '28년까지 충전기 7,300기 목표
 - 충전·전장부품·배터리·O&M 등 밸류체인 전반에서 한국 기업의 협력 기회 확대

나. 에너지산업 : 에너지 전환 가속에 따른 발전·전력 인프라 확충

□ 발전·송전 인프라 :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고도화

- 베트남 : PDP8^{제8차 전력개발계획} 기반 전력망 대규모 투자
 - '25년 발전량 374.5TWh⁺12.2% 목표, 송배전망 개선에 163억 달러 투입

- 변압기·차단기·스마트그리드 등 첨단기자재 수요 급증
- 말레이시아 : 석유·가스 유지와 에너지 전환 병행
 - 국영 에너지 기업인 PETRONAS 중심 심해 시추 유지,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수소·스마트그리드 등 신기술 협력 추진
 - 한국 EPC^{설계·조달·시공}·조선·플랜트 기업과 기자재·하도급 협력 수요 존재
- 라오스 : 아세안 전력 허브로 도약
 - 총 611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86,224MW} 진행 중, 풍력 320GW·태양광 82GW 잠재력
 - 수상 태양광 13.57GW 등 대형 프로젝트로 한국 EPC·O&M 진출 유망
- 호주 :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장 재편
 - 총 발전량 283,920GWh 중 재생에너지 36%, BESS^{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고압전선·ESS^{에너지저장장치} 수요 확대
 - 넷제로 목표에 따른 송전망·변전설비·전력계측 시스템 진출 기회 확대

다. 보건·의료 산업 : 바이오·헬스케어 중심 성장

□ 바이오·첨단 의료 : 디지털 헬스와 정밀의학 중심 확장

- 베트남 : 의료 산업 수입 의존형 시장
 - '24년 의약품 64억 달러, 의료기기 19억 달러 시장으로 90%를 수입에 의존, 정부는 의료 디지털화 정책을 강화 중
 - 외국계 기업은 의약품 직접 유통이 금지되어 현지 파트너와 협력 필수, AI진단·EHR^{전자건강기록}·스마트 병원 솔루션 등 한국 기업 협력 수요 존재
- 싱가포르 : 바이오메디컬 R&D^{연구개발} 허브 육성 추진
 - GDP의 2.6%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 RIE2025 마스터플랜을 통해 10억 싱가포르달러를 투입해 정밀의학·세포치료제 육성
 - 의료 클러스터 기반의 첨단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세계적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창업 친화 환경 제공 등을 통한 산업 생태계 활성화
 - * 바이오테크 스타트업 급증('15년 10개 → '25년 60개 이상)
- 뉴질랜드 : 디지털 헬스케어 확산
 -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약 9.6% 수준으로 OECD 평균^{8.8%} 대비 높은 편, '22년부터 HealthTech ITP를 도입해 원격진료·데이터 기반 진단 강화
 - 한국의 AI·클라우드·데이터 기반 의료 솔루션과의 기술 협력 기대

□ 보건·기초 의료 : 의료 인프라 확충과 장비 수입 확대

- 인도네시아 : 의료 투자 환경 개선
 - '28년까지 6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옴니버스법으로 투자 유치 촉진
 - 호흡기·진단장비 등 한국산 수입 증가, 고품질 의료기기 진출 기회 확대
- 캄보디아 : 의료기기 수입 시장 성장세
 - 의료기기 수입 2억 8,400만 달러, 정부 예산 5억 6,000만 달러^{+8%}로 인프라 확충 가속
 - 한국산 의료기기 수출 증가^{15.7%}, 현지 한류 확산으로 의료관광 수요도 증가

라. 디지털 산업 : 에너지 전환 가속에 따른 발전·전력 인프라 확충

□ 디지털 인프라·AI 산업 :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확산

- 인도네시아 : 디지털 행정·보안 인프라 확충 중
 - 인터넷 보급률 80.6%, '디지털 인니 2045' 통해 행정·세무·교육 전산화 추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사이버보안·클라우드 솔루션 수요 급증
- 말레이시아 : AI 클러스터 구축과 클라우드 투자 집중
 - 글로벌 AI·클라우드 투자 150억 달러 이상, GPU·보안·데이터 인프라 수요 급증
 - 정부의 AI 책임원칙·보안법제 강화로 한국 AI·서버·보안 기업 협력 기회 확대
- 태국 : 데이터센터 투자 사이클 본격화
 - 구글, MS 등 빅테크 투자와 정부 승인 확대로 '24~'25년 데이터센터 건설 붐 형성
 - 전력·냉각·보안 등 고효율 시스템 및 EPC 패키지 진출에 협력 수요 다대

마. 농업 : 스마트팜·에그리테크 육성을 통한 농업 혁신 전환

□ 기초 농업 : 식량 안보 강화와 농기계 수요 증가

- 인도네시아 : 식량 자급·스마트팜 확산 병행
 - '28년 시장 규모 3,360억 달러^{연 8.5% 성장} 전망, 식량자급정책이 최우선 국정 목표
 - 스마트팜·정밀 농업 기술 협력에 대한 정부·민간 수요가 급격히 증가
- 라오스 : 농업 전 과정의 제도화 추진
 - '25년 1~5월 수출 9억 7,700만 달러^{연간 목표의 65%}, 재배법 제정으로 전 과정 표준화 추진
 - 농기계 구매력 제약으로 금융리스·공동 장비 활용 등 협력형 모델 확산
- 미얀마 : 농업 현대화와 금융형 수요 확대

- 농업 비중 다대^{GDP 비중 14.5%, 인구의 60% 종사}, 기계화율 낮아 농기계·관개펌프 수요 급증
- 품질·내구성이 높은 한국 농기계 선호, 금융기관 연계 리스형 공급 유망

□ 디지털 농업 : 자동화·데이터 기반 농업 기술 고도화

- 호주 : 자율농업로봇 상용화 본격화
 - SwarmFarm Robotics의 'SwarmBot' 145대가 농장에서 운용 중이며, '25년 제조 허브 개설로 생산력 강화
 - Autofill 시스템으로 농약·비료를 실시간 정밀 혼합·공급, 생산 효율을 극대화
- 뉴질랜드 : IoT·AI 기반 축산 기술 급성장
 - '30년 Agritech 매출 47억 7,000만 달러 목표, Gallagher·Halter 등 IoT 축산 기술 선도
 - 한국 IoT·센서·AI 기반 스마트 축산 기술의 현지 파트너십 진출 여지 확대

3. 협력 기회

가. 통상·G2G

□ (무역협정) FTA 활용 등 협력 유망 분야

- 베트남 : 아세안 내 생산·수출 거점
 - (FTA) VKFTA^{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 AKFTA^{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복수 협정 가입으로 유리한 FTA 적용 가능
 - (전기·전자·기계) 저율·무관세로 가격 경쟁력 확보, 제조업 고도화 정책과 연계
 - (바이오·화장품·신재생) 무관세 품목 확대, ESS·수소 등 협력 수요 증가
- 인도네시아 : 내수·산업 중심국
 - (무역협정) RCEP, 한국-인도네시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AKFTA 병행 적용으로 최적 관세 활용
 - (통관) EODES^{전자적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 도입으로 전자 원산지 증명 및 통관 효율성 제고
- 싱가포르 : 디지털 무역 허브
 - (디지털 협정) KSDPA^{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DEPA^{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발효로 데이터 현지화 규제 완화, 전자문서 법적 효력 인정
 - (온라인 교역) 유통·결제 간소화로 아세안 디지털 진출 교두보 역할
- 말레이시아 : 신산업·반도체 전략국
 - (FTA) '25년 한국-말레이시아 FTA^{KMFTA} 서명 예정, 교역·투자 여건 개선 기대
- 태국 : 제조·농식품 거점국
 - (EPA) '24년 7월 협상 개시, 농수산물 시장 개방 및 신기술 투자 협력 추진
- 필리핀 : 소비·해양 중심국
 - (FTA) '24년 12월 발효, 공산품 단계적 관세 인하로 산업재 수출 여건 개선
- 캄보디아 : 저개발국·산업 기반 형성기
 - (FTA) 한국-캄보디아 FTA, AKFTA, RCEP 등 다중 특혜 활용, 이중과세 방지협정으로 안정적 진출 기반
- 라오스 : 내륙·자원 중심국
 - (무역 협정) RCEP·AKFTA 적용 국가로 관세 혜택 제한적이나 주변국 연계 수출 거점 활용 가능
- 호주 : 자원·청정에너지 강국
 - (FTA) '25년 9월 기준 호주는 모든 한국 수입품 관세 철폐

- 뉴질랜드 : 청정농업·에너지국
 - (FTA) 철강·농수산물 중심 FTA 활용률 높음 수출 70.6%, 수입 90.5%

□ (G2G) 국가 간 협력 유망 분야

- 베트남 : 산업·에너지·방산 전방위 협력 확대
 - (공급망) 핵심 광물 협력센터^{166억 원 규모} 설립 합의로 공급망 협력 본격화
 - (에너지) LNG·재생에너지 발전 및 인력 양성 협력 추진
 - (방산·국방) 방산공통위 재가동으로 기술이전·공동 R&D 추진
 - (인프라) 남북고속철·스마트시티 등 대형 인프라에 한국 기업 참여 확대
- 인도네시아 : 기후·녹색 산업 중심 협력
 - (기후 협력) 녹색전환 핵심 의제화, 환경부 간 협의로 녹색 산업 협력 확대
 - (수주 지원) 수주지원단 파견 및 물·재생에너지 산업 진출 기반 마련
- 싱가포르 : 디지털·스마트 산업 협력
 - (디지털 인프라) 클라우드·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생태계 협력 추진 중
- 말레이시아 : 산업·에너지·방산 연계 협력
 - (방산) 해양 안보 중심으로 장비 교체·현지화·첨단무기 수요 존재
 - (기후변화 대응) 수소·신재생 프로젝트 공동 개발, 포스코·삼성 등 참여
 - (희토류) NR-REE 다운스트림 육성 맞춰 정제·가공 기술 공동 개발 추진
- 태국 : 원자력·탄소중립 기술 협력 확대
 - (에너지·원자력) '25년 3월 원자력협정 체결, 의료·산업용 방사선 활용 협력
 - (전기·전자 탄소중립) KOICA^{한국국제협력단}-태국 산업부 전기·전자 산업 탄소중립 MOU 체결^{'25년 6월}
- 필리핀 : 방산·인프라·디지털 인프라 중심
 - (방산·해양 안보) OPV^{연안경비함} 6척 프로젝트 진행, '26년 인도 예정
 - (인프라·EDCF^{대외경제협력기금}) LLRN^{라구나 호안 도로망} 9억 500만 달러 차관 등 도로·교량 협력
- 캄보디아 : 기후·산업 연계형 협력
 - (통상연계) '26년 통상 연계형 협력사업 추진 예정
 - (기후변화·수송) '24~'25년 온실가스 감축·교통 부문 G2G MOU 체결
- 라오스 : 기후·산림 탄소 감축 협력
 - (기후변화) '24년 한국-라오스 기후협정 및 REDD + ^{해외온실가스감축사업} MOU 체결
 - (산림 감축) 산림청-농업임업부 간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기반 마련

- 호주 : 청정에너지·자원 공급망 협력
 - (청정에너지) 제6차 FTA 공동위서 청정에너지 MOU 체결
 - (자원 개발) 광산 기업과 공동 탐사·금융 협력 추진, 공급망 안정화 기여
- 뉴질랜드 : 수소·방산 중심 협력
 -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기반 수소 생산·운송·활용 기술 협력
 - (방산) 국방부·조달청 간 협의체 운영, 공동 세미나·MOU 추진

나. 프로젝트

□ 유망 프로젝트

- 베트남 : 항만·플랜트 중심 대형 프로젝트 가속화
 - (항만·물류) 항만 대형화 및 환적 허브 전략 아래, 하이퐁·호찌민 등 주요 항만의 현대화 프로젝트 본격화, 한국 기업의 설계·시공·장비 공급 기회 확대
 - (건설·플랜트) '26년 DPPA^{직접전력구매제도} 실계약 본격화 및 송전망 병목 해소를 위한 신규 프로젝트 착수와 ESS·계통 안정화 설비 발주 확대 예상
- 인도네시아 : 수처리·폐기물 인프라 중점
 - (수처리) '골든 인도네시아 2045' 아래 상수도 보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PPP^{민관합작투자사업} 및 정부 주도 수도관망·정수시설, 댐·관개시설 복구 등 프로젝트 확대
 - (폐기물·에너지) 다난타라 국부펀드, WtE^{폐기물-에너지} 발전소 투자 검토 중이며, '25년까지 폐기물 발생 30% 감축 및 처리율 70% 향상 목표
- 싱가포르 : 스마트 모빌리티·바이오·에너지 R&D 중심
 - (EV) 전력 수요 관리와 그리드 안정성을 전기차 인프라 확충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으며, 충전·저장 인프라 확충 정책을 병행 추진
 - (스마트 모빌리티) 정부는 '30년을 목표로 자율주행 버스, 로봇택시, 물류 로봇 등 시범 노선 운영을 포함한 스마트 모빌리티 허브 전략을 추진 중
 - (R&D·에너지) A*STAR^{싱가포르 과학기술청} 주도 SITEM^{Singapore Integrated Transport and Energy Model}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교통 통합 시뮬레이션 연구 진행 중, 스마트그리드·ESS 기술 협력 가능
 - (바이오·헬스케어) NPMP^{National Precision Medicine Programme}를 중심으로 글로벌 협력 연구 확대 추세, 정밀의학 및 임상시험 분야 협력 여지 존재
- 말레이시아 : 신산업·디지털·반도체 중심 프로젝트 확대
 - (신산업·제조) 제13차 말레이시아 계획^{13MP}에 따라 디지털 경제, 에너지 전환, 반도체·첨단 제조, 녹색 인프라 등 미래 성장 산업 중심으로 정책 재편

- (JS-SEZ) 조호르-싱가포르 특별경제구역 개발로 데이터센터, 반도체, 스마트시티, 수소 프로젝트 등 신산업 분야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
- 태국 : EEC^{동부경제회랑}·스마트시티·디지털·방산 중심
 - (공공 인프라) 태국 정부는 EEC 5개년 개발계획^{650억 달러 규모}을 추진 중으로, 교통 운영·스마트톨링·유지관리 등 교통 인프라 분야 협력 활발
 - (스마트시티) 국토부·KOTRA 협력으로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운영 중이며,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데이'를 개최하는 등 태국 진출의 교두보 역할 수행
 - (디지털) 한국-아세안 외교장관회의^{'25년}에서 'ASEAN Cyber Shield Project'가 협력 과제로 채택되며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주도로 표준화·공동 대응·인재 육성 계획 추진 중
- 필리핀 : 도로·교량 중심의 교통 인프라 확충
 - (도로) 라구나호 순환도로사업은 '24년 정부지급보증 발급 후 차관계약 및 시공 입찰이 진행되었으며, 사마르 해안도로 2차 사업은 EDCF 1억 1,100만 달러 지원으로 '26년 상세설계 및 시공사 선정 예정
 - (교량) Panay-Guimaras-Negros 교량건설사업은 EDCF 지원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26년 차관 신청 및 승인 계획
 - (정책·재원) 필리핀 국가개발계획^{'23~'28년} 연계하여 연결성 강화^{교통·도로·공항·철도}와 기후변화 대응^{재난 대응·홍수 통제}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추진
- 캄보디아 : 재생에너지·농업·디지털 인프라 확충
 - (에너지) 재생에너지 중심 발전설비 확충과 송전·배전망 개발이 병행되며, 태양광·소수력·바이오매스 프로젝트가 확대 중
 - (농업) 정부는 농업 생산성 향상, 농가 소득 증대, 식량 안보 등을 목표로 농식품 가공·콜드체인 등 농업 현대화 및 농산업 인프라 강화
 - (디지털) 중앙정부보다는 프놈펜, 바탐방, 시아누크빌, 시엠립 등 지방정부 단위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 중
- 라오스 : 교통·수자원 인프라 중심
 - 한국-라오스 EDCF 약정에 따라 '24~'27년간 수자원 및 교통 인프라 분야에 총 5억 달러 지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관련 프로젝트 수주 기회가 확대될 전망
- 호주 : 전력·SOC·방산 중심 프로젝트 활성화
 - (전력) 재생에너지 확산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송전망 확충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주요 장비 공급 및 인프라 재구성 추진 중

* 효성중공업은 송전망 확충 프로젝트의 핵심 장비 공급사로 참여하며, 한국 기업이 호주 에너지 전환 정책에 기여한 대표 사례로 평가

- (건설) 교통·에너지·전력망 분야의 대규모 PPP가 활발하며, GS건설은 NEL^{North East Link} 도로공사 수주 후 '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
* GS건설은 '21년 10월 멜버른 북동부 외곽순환도로와 동부 도로를 연결하는 호주 NEL 도로공사 수주에 성공하며 '27년 10월 착수 예정, '28년 개통 목표
- (방산) 한화의 자주포·장갑차 수주로 전략적 협력 강화, 'Avalon Airshow 2025'서 현지 기업 MOU 체결
- 뉴질랜드 : 교통·에너지·통신 중심의 프로젝트 다변화
 - (인프라) 국가 인프라 파이프라인^{NIP}에 City Rail Link, Penlink 등 대형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총 1,625건의 사업이 추진 중
 - (B2B·G2B) 루닛이 볼파라 헬스테크를 인수 완료했으며, 현대로템-트렌스데브 컨소시엄이 웰링턴 도시철도 운영·유지보수 사업 참여 중
 - (에너지·통신) 현대차가 뉴질랜드 포스트와 수소트럭 시범운행을 진행 중이며, 삼성전자는 스파크와 협력해 5G RAN 장비 구축 및 서비스 확산 중

다. 공급망(자원 개발)

□ 공급망


- 베트남 :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 '25년 하반기부터 5년간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설립 예정으로 현지 광물^{희토류·보크사이트} 등의 선광·제련 장비 도입, 기술 지도, 인력 양성 추진
- 인도네시아 : 광물 수출 금지 통한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
 - 정부의 광물 수출 금지 정책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산업 기반 조성, FDI 유입 확대, 중간재 수출 증가 등 성과 달성
 - 중국 기업 투자 확대로 공급망 리스크 확대, 정부 차원의 안정화 기금·대응 필요
 - '25년 6월 CATL 자회사 CBL이 총 59억 달러 규모 배터리 통합 프로젝트 착공, 채굴-제조-재활용 까지 가치사슬 구축 목표
- 싱가포르 : 친환경·식량·디지털 공급망 구축
 - (친환경 에너지) '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위해 수소 도입 전략 추진
 - (식량) 한국-싱가포르 FTA·DPA 활용, 블록체인 기반 식품 이력 추적·콜드체인 관리 등 디지털 식품 공급망 협력 추진
 - (디지털·물류) Tuas Mega Port^{'40년 완공 예정}를 중심으로 자동화 항만 전환, 스마트 물류·IoT 화물 추적 분야 협력 가능

- 태국 : 천연고무 수급 관리 및 교역 구조 안정화
 - (라텍스) '25년 상반기 라텍스 수출 증가^{+10%}, 중국향 확대·한국향 감소
 - (천연고무 TSR) TSR^{Technically Specified Rubber} 수출입 혼재, 베트남·말레이시아 중심 조달 구조 지속
- 필리핀 : 광물 로열티 제도 개편 및 제련 협력 확대
 - RA12253 발효로 광물 로열티·초과이윤세 신설, 원광 수출 유연성 확보 필요
 - Nickel Asia-DMCI 제련 플랜트 MOU 체결, USAID^{미국 국제개발처} 등 다운스트림 지원
- 라오스 : 중국 대체 광물 공급처 부상
 - 광물 매장량 146억 톤, 중국 희토류 수출 제한 이후 대체 공급처로 부상
- 호주 : 핵심 광물 프로젝트 다수 진행 중
 - 리튬·니켈 등 핵심 광물 안정적 확보 위해 광산 개발·지분 투자 추진
 - '25년 8월 기준, 3개 프로젝트 건설 중, 2개 착공 전, 27개 타당성 조사, 16개 예비 조사, 1개 유지보수 단계 진행 중
- 뉴질랜드 : 광물 전략 기반 협력 확대
 - 뉴질랜드 정부의 '2040년 광물 전략'^{37개 핵심 광물 지정} 발표에 따라, 한국 기업의 광물 탐사·정제 기술, 친환경 채굴 장비, 재처리 솔루션 분야 협력 가능성 확대



Ⅲ.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84
2. 진출전략	86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PEST 분석



정치정책(Political)

- 보호무역 강화 : 미국의 對아세안 고관세 및 EU ESG 규제로 무역 장벽 심화
- 미국의 역할 축소 : 안보 비용 분담 압박, 원조 축소로 보건·인프라 공백 발생
- 사회·정치 불안 확대 : 물가 상승·고용 불안으로 청년 주도의 시위 확산, 사회·정치적 불안정성 증대로 투자 여건 악화
- 정책·제도 불확실성 : 아세안 국가별 규제·인증 제도의 상이성과 잦은 변화로 외국 기업 진출 시 행정 부담 가중



경제(Economic)

- BRICS 연계 확대 : '24년, 對BRICS 교역 비중 29.9%에 육박, NDB 자금을 활용한 인프라·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보호무역 충격 : 높은 상호관세에 따른, 對미 수출 감소(베트남 -19.2%, 캄보디아 -23.9%) 및 EU ESG 규제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악화 전망
- 전력 수요 급증 : 연평균 4% 증가, '35년 세계 전력 수요의 25% 차지 전망 → 발전·송전·SMR 소형모듈원전,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 : 노년 부양비 상승, 사회연금 지출 GDP 대비 0.5% 미만 → 민간 보험·연금 시장 기회 확대



사회문화(Social)

- 압축적 고령화 : 고령인구 비중 급증 및 사회연금 지출 GDP 대비 0.5% 미만 등의 문제로 의료·요양·실버 산업 및 민간 보험·연금 시장 확대
-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양식 변화 : 홍수·폭염 등 기후위기로 주거·소비 패턴 변화 및 방재 인프라, 안전 관련 소비재, 기후 적응형 농업·식품 수요 확대
- 도시화와 중산층 확대 : 가처분 소득 증가로 프리미엄 소비재, 헬스케어, 디지털 서비스 수요 확대
- 문화·종교적 다양성 : 할랄, 불교·기독교 문화 등에 따라 소비·투자 패턴의 차이가 큰 만큼, 다양한 맞춤형 전략 필요



기술(Technological)

- 에너지 전환 기술 수요 : SMR, 재생에너지, HVDC^{고전압직류송전}, 스마트그리드 등 첨단 전력 기술 도입 가속
- ESG 관리 디지털화 : 공급망 추적, 탄소 측정 등 ESG 솔루션 수요 증가
- 핀테크·결제 혁신 : BRICS Pay, 아세안 통합 QR 결제망 추진 → 금융보안·핀테크 협력 기회 확대
- 디지털 헬스케어 성장 : 원격진료, 모바일 헬스 앱, 의료기기 수요 증가 → 고령화와 맞물려 지속 성장

SWOT 분석

강점(Strength)



- 프리미엄 소비재와 K-브랜드 이미지
- ESG·저탄소·친환경 기술 · 상품 경쟁력
- 송전망·스마트그리드 등 발전 분야 경험 · 기술
- 의료기기·헬스케어·실버 산업 전문성

약점(Weakness)



- 현지 제도·인증 대응 미비
- 물류·유통 · 인적 네트워크 미흡
- 현지 금융 조달·SOC 프로젝트 경험 부족
- 로컬 · 중국 기업 대비 가격 경쟁력 열세

기회(Opportunity)



- 고령화·도시화·1인 가구 증가로 소비 패턴 변화
- 이커머스·스마트 물류 확산 및 가치소비 증가
- 코로나 이후 건강 · 보건 · 웰빙에 대한 관심 급증
- MDB^{다자개발은행} 주도 SOC 투자 확대 지속

위협(Threat)



- 미국 원조 축소로 보건·SOC 공백 확대
-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관련 취약
- 일본 · 중국의 공격적 금융 공세
- 전력 인프라 노후화 · 미비로 전력 수급 불균형

SO 전략(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 고령화·도시화·1인 가구 증가에 맞춘 건강식품, 간편식, 헬스케어 제품 등 수요 대응
- 중산층·고령층 대상 프리미엄 브랜드·K-라이프스타일 제품군 포지셔닝 강화 및 인증 중심의 신뢰도 제고
- 유통·프랜차이즈 협력, 현지 맞춤형 패키징 및 서비스 모델로 시장 적응력 강화



소비 환경 변화에 따른
프리미엄 소비재·
헬스케어 제품
진출 강화

ST 전략(차별화전략-강점 활용)

- 탈중국 기조에 대응해 중간재·부품 공급 협력 확대 및 非중국 대체 공급망으로서의 입지 강화
- ESG, 저탄소 기술 역량을 활용해 아세안 기업의 EU 규제 대응 지원



非중국 공급망 및
ESG 협력 등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WO 전략(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 고령화·실버 산업 확대에 맞춘 헬스케어, 의료기기, 건강관리 솔루션 등 제공
- 미국 원조 감소에 대비한 보건·의료·SOC 인프라 구축 사업 참여 및 난민·취약계층 지원 협력
- 기후변화 대응 조기경보 시스템·환경 관리 솔루션 공급



SOC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 사회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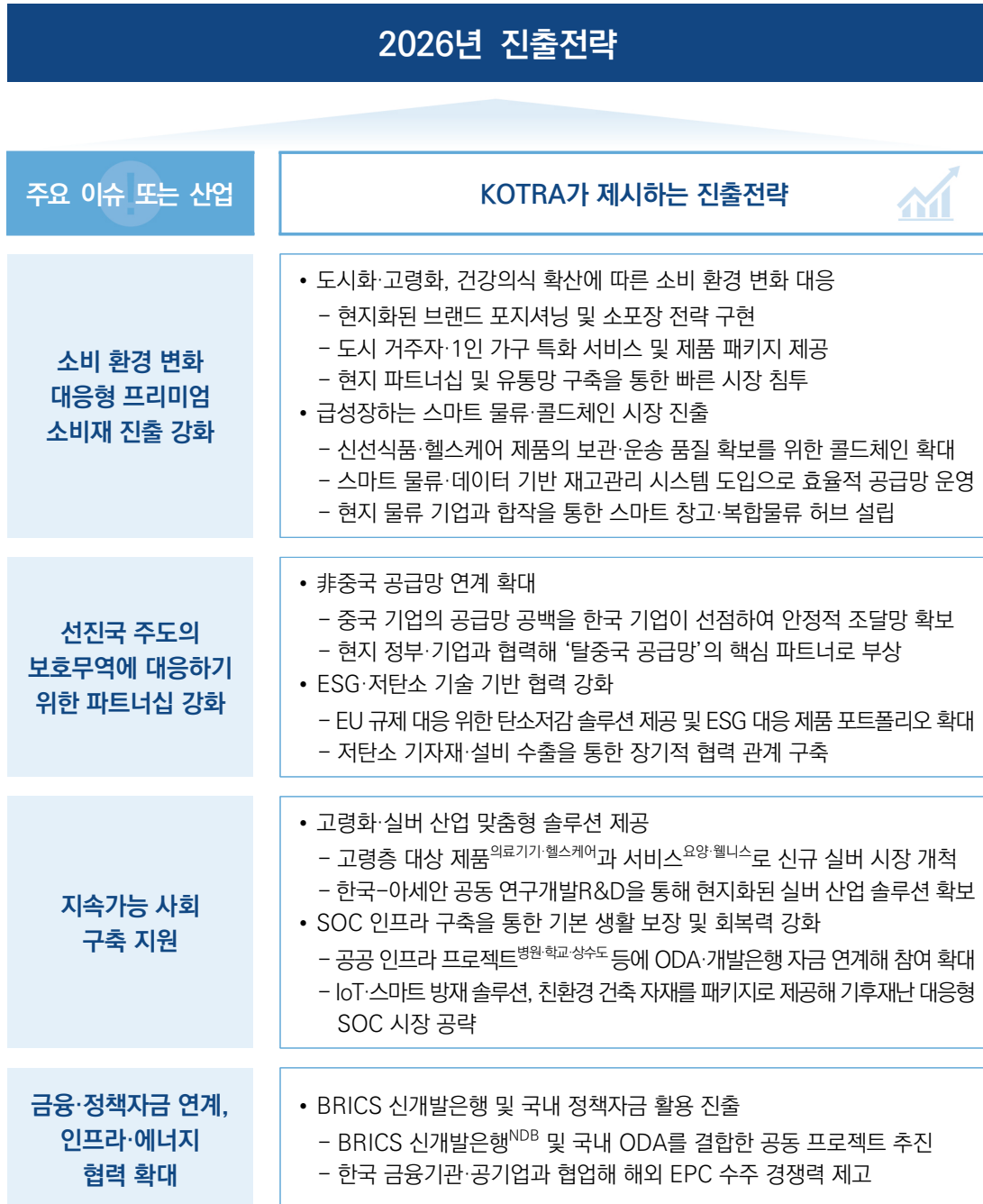
WT 전략(방어/철수-위협 대응)

- BRICS 신개발은행^{NDB} 및 국내 ODA^{공적개발원조} 등 정책자금 활용, 아세안 인프라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구조에 참여
- 송전망 현대화, 신재생 발전, 스마트그리드 등 역내 사업에 한국 기자재·솔루션 공급 확대



금융·정책자금 연계,
인프라·에너지
프로젝트 참여 확대

2. 진출전략



전략 ①

도시화·고령화, 건강의식 확산에 따른 소비 환경 변화 대응



전략 수립 배경

- (현지 시장 동향 등 최근 상황 요약)
 - * 도시화·1인 가구·고령화·중산층 증가로 소비 습관이 품질·편의·건강·가치 중심으로 전환
 - * 웰니스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식품·의약·헬스케어 등 건강 관련 품목의 수요 급증
- (우리 기업의 진출 시 강점 등 진출 Point)
 - * 한국 기업은 고품질·신뢰성·안전성에서 강점 보유, '프리미엄 브랜드'로 포지셔닝 가능
 - * 한국은 1인 가구·고령층·건강 중시 소비층을 대상으로 한 간편식, 기능성 식품, 스마트헬스케어,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제품 등에서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적용·확장 가능성 다대

□ 현지 동향

- 도시화 및 1인 가구 증가
 - Market Research Southeast Asia에 따르면 '23년 이후 아세안 인구의 50%가 도시에 거주 중이며, 전 세계 신규 1인 가구의 약 50%가 아시아태평양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관련 수요 급증
 - 도시 거주자 중심으로 품질·안전·브랜드 신뢰성을 갖춘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1인 가구 증가로 '작은 양·간편형·프리미엄' 제품이 각광
- 고령화 및 건강 의식 확산
 - 평균수명 증가와 만성질환 관리 수요 확대에 따라 고령층 맞춤형 영양제, 저당·저염 제품, 의료보조기기, 원격의료 서비스 등의 시장이 성장
 - 건강관리와 예방 중심 소비가 확산하면서, 단순한 소비재에서 '건강 + 편의 + 기술'이 결합된 제품군 스마트워치 등에 대한 관심 확대
- 중산층 확대 및 프리미엄 소비 가치의 부상
 - 아세안 내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품질·브랜드·경험' 중심의 소비 패턴 강화
 - 소득 증가와 디지털화가 겹치면서 소비 채널·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채널, 브랜드 인지도, 소비자 경험 중심의 소비 증가세

□ 유망 품목

- 고령층·1인 가구를 겨냥한 건강·간편 제품 저당·저염·소형·가전·미니멀 제품 등
 - 고령층 및 중산층 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식품·기능성 식품과 1인 가구를 위한 소포장·간편식, 건강기능식품·웰니스 식품 등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패키지 식품의 소포장화, 집에서 소비하는 간편식·배달형 서비스 성장,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제품 수요 증가 등으로 연결
-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제품** 의류·뷰티·프리미엄 가전 및 스마트 제품군
 - 도시 중산층·프리미엄 지향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브랜드 제품에서 한국산 브랜드·이미지 활용
 - 도시 거주자·1인 가구의 건강관리 수요 증가에 따라 웨어러블 헬스 트래커, 홈 모니터링 기기, 원격 건강 상담·구독 서비스 등

□ 진출전략

- **도시 거주자·1인 가구 맞춤형 마케팅으로 시장 공략**
 - 1인 가구 증가 및 도시 거주자 특성을 고려해 소용량, 간편 포장 등 도시형 라이프스타일 제품 라인 개발·출시
 - K-팝·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감성 소비형 브랜딩 개발
 - 고령층 또는 1인 가구가 활용할 수 있는 '헬스 모니터링 기기 + 간편식 + 구독서비스' 결합형 솔루션과 같은 제품-서비스 패키지 개발
 - 체험형 이벤트, 팝업스토어, 구독형 제품 체험 패키지 등을 통해 도시 거주자·1인 가구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경험을 제공
 - 디지털 마케팅, SNS 인플루언서 활용, 도시형 미디어 캠페인 등으로 브랜드 이미지 구축 및 소비자와의 상호작용 강화
- **건강·웰빙 시장 공략**
 - 고령층·직장인·1인 가구 대상 저당·저염·단백질 간편식, 기능성 음료 개발
 - 천연·비건·친환경 소재 중심 화장품·생활용품 개발
 - 발효·식물성 등 한국산 원료를 활용하여 제품 고급화
 - '실버·시니어 라이프' 맞춤형 제품군 확대 및 현지 요양시설 납품형 B2B 모델 개발
 - 건강·웰빙 관련 인플루언서 활용 광고, 현지 아웃도어 이벤트나 지역축제 후원을 통한 바이럴마케팅 추진
- **현지 파트너십 및 유통망 구축을 통한 빠른 시장 침투**
 - 현지 유통사,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쇼핑몰 등과 협업하여 초기 시장 진입 및 브랜드 인지도 확보
 - 현지 소비자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지 마케팅·R&D 협력 강화
 - 브랜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품질·안전·인증^{ISO, HACCP} 등 관련 사항을 현지화하고 한국산 이미지와 연결

전략 ②

급성장하는 스마트 물류·콜드체인 시장 진출



전략 수립 배경

- (현지 시장 동향 등 최근 상황 요약)
 - * 아세안 콜드체인 시장은 '25년 약 187억 7,000만 달러 규모에서 '30년까지 연평균 5.33% 성장할 전망, 베트남의 창고 용량 확대와 싱가포르의 CEIV Pharma(국제항공운송협회 인증) 기반 바이오 허브화로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
 - * 전자상거래 확대로 창고 자동화 시장도 '25년에서 '30년까지 연평균 12.5% 성장할 전망
- (우리 기업의 진출 시 강점 등 진출 Point)
 - * 한국은 의약품·식품 콜드체인 표준(CEIV·GDP·HACCP) 대응 경험과 자동화·IT 통합(WMS·TMS·IoT) 역량을 갖춰, 신선식품·헬스케어 중심의 고신뢰 콜드체인 구축에서 차별화 가능
 - * 스마트 물류(가시성·데이터 기반 운영), 고사양 장비 및 품질·안전 브랜드를 결합해 현지 물류사와 합작(JV) 형태의 스마트 창고·복합물류 허브 구축에 유리

□ 현지 동향

- 스마트 물류·창고 자동화 보급
 - 가져분 소득 증가로 아세안 내 의약품·신선식품·수입육 등 고부가가치 냉장유통 품목의 소비가 확대되며 콜드체인 수요도 동반 증가
 - 이커머스 활성화로 고속 피킹·소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아세안 창고 자동화 시장은 연평균 12.5% 성장하여 8억 1,000만 달러^{'25년} → 14억 6,000만 달러^{'30년}에 달할 전망
 - DHL은 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스마트 라벨 등 가시성·데이터 중심 물류가 향후 10년 핵심 트렌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 아세안 콜드체인·스마트 물류 시장은 온라인 유통망 성장, 신선식품·의약품 수요와 도시화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세 지속
 - (고속 인프라 확충) 신규 냉동창고 건설 및 용량 확대 중심 시장 확대

베트남

- 베트남의 콜드스토리지는 '23년 124만 팔레트 수준에서 '28년 170만 팔레트까지 확장 예정이며, 호치민·하이퐁을 중심으로 한국·일본·싱가포르 기업의 JV형 투자 증가세

인도네시아

- 도서형 지리로 인한 콜드체인 격차 해소 위해 냉장 물류 인프라 확충 정책(NLE)을 추진 중이며, 자카르타·수라바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의 냉동창고 및 IoT 모니터링 시스템 수요 급증

필리핀

- 필리핀은 도심 배송 기반의 온라인 신선식품 수요 증가로 냉동 밴·라스트마일형 콜드체인 확충이 진행되며, 정부 주도로 농촌형 냉장센터 설치 프로젝트 확대 추세

- (인증 기반 글로벌 허브) 국제 인증·고신뢰 기반 고부가 콜드체인 시장 확대

싱가포르	•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IATA CEIV Pharma 인증 생태계를 보유한 아시아 최대급 바이오·의약 콜드체인 허브로, 연간 37만 5,000톤 수준의 온도 민감 화물 처리 역량 보유
말레이시아	• 할랄 물류 인증(MS2400)을 기반으로 가공식품 및 바이오 수출형 콜드체인 수요가 확대되면서, 포트 클랑을 중심으로 수출형 냉동 물류센터 건립이 활발하며, 중소 물류사의 WMS(창고관리시스템) 도입 수요 증가

- (농축산 물류 클러스터) 수출형 식품 콜드체인 시장 확대

태국	• '25년 태국 콜드체인 시장 규모는 23억 달러 규모, 식품 가공 및 수출(특히 해산물·가금류) 중심의 콜드체인 수요 다대, 동부경제회랑 내 냉동창고 현대화 및 자동화 설비 프로젝트 확산
호주	• '24년 호주 콜드체인 시장 규모는 50억 달러 규모, 호주는 냉장육·해산물 수출 중심 글로벌 콜드체인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식육 가공 및 수출형 냉동창고에 대한 자동화 투자 증가세
뉴질랜드	• 뉴질랜드는 유제품(Fonterra 등)·육류 및 바이오식품 등 저온물류 수요가 전체 수출 물량의 60%에 육박함에 따라, 항만-공항 연계형 냉장 물류 클러스터 강화 추세

□ 유망 품목

- **콜드체인 하드웨어·설비** 멀티온도 냉동·냉장창고 모듈, 진공단열패널(VIP)·단열 패널 등
 - 베트남·태국 등에서 온라인 신선식품·수산물·의약품 유통량이 증가하며 신규 팔레트 증설 및 에너지 효율형 창고 수요 급증
 - 정부의 콜드체인 물류 인프라 확충 정책 및 식품 안전성 기준 강화에 따라 고효율 냉동설비·온도 안정형 냉매모듈 채택이 확대되는 추세
- **의약·바이오 콜드체인 솔루션** CEIV Pharma 기준 충족 포장재, 혈장·백신 포터블 컨테이너 등
 -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 CEIV Pharma 인증 허브를 기반으로 백신·의약품 등의 재수출 물량이 증가하며 고신뢰 포장·온도 관리 체계 수요 확대
 - WHO 세계보건기구 GDP 우수유통관리기준 가이드라인 및 각국 병원·약국 단계의 콜드체인 품질관리 기준 강화로 포장재·IoT·실시간 모니터링이 결합된 통합형 솔루션 도입 확산
- **스마트 물류 소프트웨어·플랫폼** WMS(창고관리), TMS(운송관리), OMS(주문·재고 통합) 등
 - 전자상거래 및 신선물류 경쟁에서 배송 속도·온도 유지가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 실시간 가시성과 운영 자동화를 위한 운영형 소프트웨어 수요 증가
 - 아세안 창고 자동화 시장이 연 12% ^{'25~'30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용 절감·효율 극대화를 위한 AI 기반 수요 예측·피킹 자동화 도입 본격화

□ 진출전략

- 현지 물류사와 합작^{JV} 형태로 ‘스마트 콜드 허브’ 구축
 - 항만·공항 및 주요 도시 물류 거점에 다중온도^{-25℃, 0~5℃, 15~25℃} 창고를 설계해 식품·의약품 등 상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현지 3자물류^{3PL} 기업 및 대형 유통사와 합작 형태로 운영해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현지 네트워크 확보
 - GDP^{의약품 품질관리기준}와 CEIV Pharma를 사전 도입해 식품·의약 모두 대응 가능한 허브 조성,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베트남·태국 등으로 확산
- 데이터 기반 운영^{가시성·예측}으로 폐기·클레임 최소화
 - IoT 센서로 온도·습도·문개폐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플랫폼에 연동하여 이상 시 자동경보를 발송 → 온도 이탈·품질 이슈를 사전에 예방
 - 수요 예측 및 FEFO^{First Expired First Out} 기반 재고관리로 회전율·납기준수율^{OTIF}을 높이고 품질·배송 이슈 분석을 통해 폐기·클레임 발생 최소화
- 식품·의약 품목별 표준·인증·공정 컨설팅 동시 제공
 - 식품 부문^{HACCP·ISO 22000}과 의약품 부문^{GDP·CEIV Pharma} 인증을 통합 지원하고 각 산업별 표준작업서^{SOP}와 온도관리 매뉴얼 제공 및 현지 인력 교육까지 병행
 - 단계별^{창고·운송} 확인 체계 구축을 통한 품질·규제 리스크 최소화, 특히 온도 이력과 위생공정 추적기 도입을 통한 통합 품질관리 모델 제시

전략 ③

非중국 공급망 연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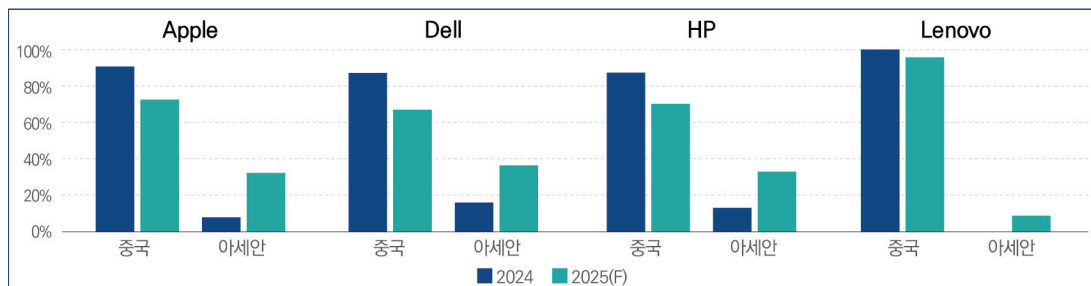
전략 수립 배경

- (현지 시장 동향 등 최근 상황)
 - * 미국의 '상호관세' 전면 적용, 미국은 對중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
 - *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기지의 탈중국화에 이어, 중국산 부품·소재 의존도 축소
- (우리 기업의 진출 시 강점 등 진출 Point)
 - * 한국 기업은 품질·납기·규제 대응 능력을 강점으로, 탈중국 공급망의 안정적 대체 파트너로 부상 가능
 - * 현지 정부·기업과 협력 시, '탈중국 원자재 및 부품 공급망' 구축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 기대

□ 현지 동향

- 미국, 아세안 제조 업체에 대한 탈중국 압박 강화
 - 미국 정부가 아세안에 중국산 부품·기술 비중 축소를 직접적으로 요구^{'25년 6월}함에 따라, 아세안 주요 국은 수출 제품에 대한 원자재 출처 관리 강화 지침 발표
 - 미국이 중국의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 규정 검증을 강화하고, 공급망 전환을 촉구함에 따라 역내 기업들의 부품 조달처 다변화 움직임 확산
 - * 태국은 '25년 10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미국과의 무역 규정에 대응하고자, 원산지 증명 관리 특별 데스크포스 구성 계획을 발표('25년 9월)
-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거점 및 소재·부품 조달지 이전 가속화
 - ASUS, Dell, Apple^{Foxconn, Goertek 등} 등 글로벌 IT·전자 기업들은 중국 생산 비중을 줄이고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등으로 이전

〈세계 4대 PC 브랜드의 OEM 생산량 변화 추이〉



자료: Omedia(Shift in global PC supply chain : South-East Asia gains momentum, '25년 6월)

-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은 니켈·코발트·희토류 등 핵심 광물·소재 산업의 다운스트림 육성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광물가공 부문 투자 유치 확대 추진

아세안 주요국별 다운스트림 육성정책 발표

국가명	주요 내용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10월, 프라보워 정부는 전(全) 자원 다운스트림화 정책 발표 · 다운스트림화 및 국가 에너지 안보 가속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 테스크포스 구성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RA 12253 서명·발효를 통해 단계적 다운스트림 전환 병행 구조를 확정 · USAID 다운스트림 산업 촉진 및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추가 지원 프로그램 가동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8월,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의 미(未)가공 희토류 수출 금지 및 다운스트림 투자 유치 발표

□ 유망 품목

- 전자·IT 부품^{PCB, 반도체 패키징 소재, 커넥터·센서류 등}
 -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생산 비중을 줄이고 아세안으로 생산 거점을 이전하면서, 현지에서 사용되는 반도체 소재의 조달 수요 증가
 - 미국의 중국산 부품·기술 비중 축소 요구와 아세안 주요국의 원자재·부품 원산지 관리 체계 강화로 인해, 중국 외 고신뢰 부품 공급처 확보가 필수화
 - 아세안 주요국은 반도체·PCB·전력전자·소재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이며, 완제품 조립 중심에서 핵심 부품·소재 내재화 단계로 산업 구조가 전환됨에 따라, 현지 조달 가능한 중간재·부품 수요가 확대되는 구조 형성
- 자동차 및 기계 부품^{EV 구동모터·인버터, 정밀 금형 등}
 - 미국 등 완성차사가 非중국 대체 부품을 찾고 있는 만큼, 아세안 내 완성차 및 부품 OEM들이 조달처 다변화 및 로컬 조달 확대 전략을 실행 중
 - 한국은 고부가 부품^{모터·인버터·배터리 모듈 부품, 정밀 금형 등}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중국산을 대체 및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처로 부상
- 이차전지 및 핵심 소재
 - 중국 배터리 밸류체인에서 지배적인 점유율 차지, 특히 중간재 및 소재 분야^{양극재·음극재·전해질·분리막 등}에 서 중국 중심 공급망은 구조적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
 - 기술력·품질 경쟁력이 있는 한국 기업은 관련 분야^{양극재·분리막·음극소재 등}에서 중국 대체 공급자로 부상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필리핀의 원자재 가공 확대 정책과 결합해 현지 가공 + 한국 기술 기반의 수직통합 공급망 구축 기회 존재

□ 진출전략

- 미국 상호관세 및 탈중국화로 인해 아세안 현지 제조 업체들이 기존 중국산 부품 조달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기회로 적극 활용 모색
 - 한국 기업은 전자 부품·자동차 부품·배터리 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신속히 시장에 진입해 공급망의 공백을 채우는 ‘대체 공급자’로 역할 가능
 - 부품 이력 및 원산지 관리 효율화를 위한 공급망 추적과 원산지 인증체계 개선 지원
 - 현지에서의 1차 부품 조달을 통해 현지 산업 생태계 육성에 참여함으로써 비용 절감 및 납기 안정화 확보에 더해 지속가능성 확보
- ‘탈중국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서 현지 정부·기업과 협력 확대
 - 아세안 주요국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세제 혜택·산업단지 제공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은 이를 활용하여 현지 생산 거점 확보 가능
 - 인도네시아는 니켈·코발트 등 자원 가공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 → 한국 기업은 합작회사^{JV}·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전략 소재 확보 가능
 - 현지 기업^{대기업·중소기업}과의 공동 투자·합작회사를 통해 공급망을 현지화하여, 원산지 규정 충족과 물류비 절감 효과 동시 달성

전략 4

ESG·저탄소 기술 기반 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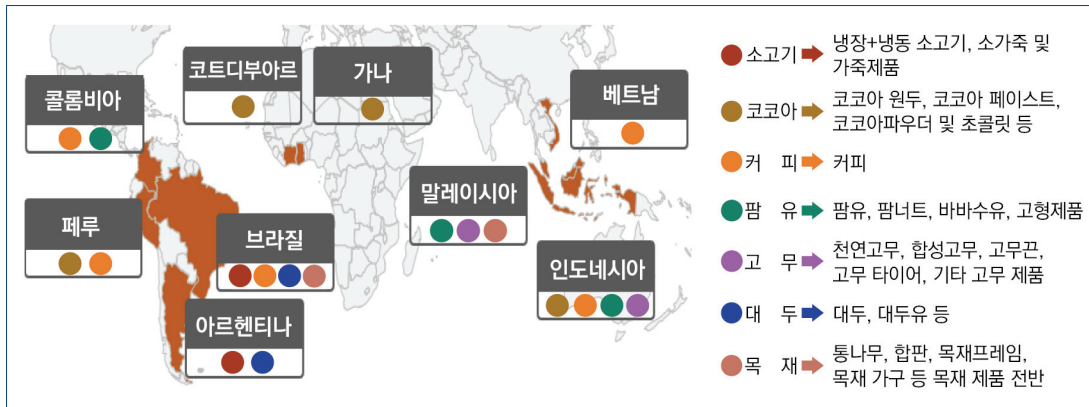
전략 수립 배경

- (현지 시장 동향 등 최근 상황 요약)
 - * EU의 EUDR, CBAM 등 환경·ESG 규제 시행 예정에 따라 아세안 주요 수출국의 부담 심화
 - * 탄소배출 관리와 ESG 인증 확보가 기업의 필수 과제로 부상, GVC 참여 위해 ESG 준수 필요성 확대
- (우리 기업의 진출 시 강점 등 진출 Point)
 - * 한국 기업은 탄소 저감·에너지 효율화 기술, 친환경 기자재·설비 분야에서 경쟁력 보유
 - * ESG 인증 경험(ISO·GRI·TCFD 등)과 환경·안전 대응 역량을 강점으로, EU 규제 대응 파트너로 주목 기대

□ 현지 동향

- EU의 규제 강화에 따른 아세안의 대응 움직임 본격화
 - EU의 EUDR^{산림벌채규제, '25년 12월 30일}과 CBAM^{탄소국경조정제, '26년 1월 1일} 본격 시행으로 아세안 주요 수출품 팜유·고무·철강·알루미늄 등이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되며 수출 부담 가중

〈EUDR 발효에 따른 주요 규제 국가 및 품목 개요〉



자료: KOTRA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 아세안 주요국^{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공급망 추적, 탄소 배출량 보고, 원자재 관리 제도 정비를 강화하며 EU 시장 진출을 위한 대응 가속화
- 국가 및 기업 차원의 ESG 전환 가속화
 - 역내 기업이 공급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ESG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아세안은 연합은 '27년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표준 전면 도입 목표로 국가별 로드맵 마련 중
 - 글로벌 기업, 공급망 상의 ESG 리스크 관리 및 투명성에 대한 요구 확대

아세안 주요국별 ESG 보고 정책 비교

국가명	주요 내용
싱가포르	• 모든 상장사에서 ESG 보고서 제출, 국제 기준(ISSB) 도입을 준비 중이며, EU(CSRD) 규제 영향 다대
말레이시아	• 상장사 ESG 보고 의무, 경영진 평가에도 ESG 성과를 반영
태국	• 모든 상장사에서 ESG 보고서 제출, ESG 전담조직 보유율 높으나 보고 검증은 감소
인도네시아	• 은행('19년)·상장회사('20년)는 ESG 보고서 제출 의무화, '27년부터 국제 기준(ISSB) 본격 적용 예정
베트남	• 상장사 ESG 보고 의무, 환경·사회 중심 공시 규정 있으나 실제 보고율은 낮음

자료: Sustainability Reporting in ASEAN, '25년 7월

□ 유망 품목

- 저탄소 기자재·설비 ^{고효율 모터, 폐열회수 장치, 열병합 설비 등}
 - 아세안 산업·건축 부문의 전력소비 증가율은 세계 평균을 크게 상회, EU CBAM 시행에 맞춰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서 고효율 설비 도입 필요성 확대

국가별 저탄소 기자재·설비 도입 사례

국가명	주요 내용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 C&C : FPT IS와 함께 베트남 제조 기업 대상 탄소배출량 측정·보고 플랫폼(VertZéro) 공동 구축 진행 • VICEM Bút Sơn(시멘트) : 폐열발전(WHR)으로 '24년 자체 발전 6,960만 kWh, 전력 비용 1,217억 동 절감, 간접 CO₂ 8만 6,000톤 감축 효과 발표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men Merah Putih(시멘트) : WHR + 대체연료로 '23년 8만 5,702MWh 자체 발전, CO₂ 5% 감축 성과. '24년 WCA Climate Action Award 수상(WHR 최적화·클링커 저감)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aiBev(식음료) : 보일러 연료 전환·효율화를 통해 연료유 → LPG 보일러 전환 등으로 '24년 회계연도 비용 1,714억 바트 절감, GHG 28,569 tCO₂e 감축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B 'Chiller Energy Efficiency Project'(상업용 빌딩) : 노후 냉동기 교체로 GHG(온실가스) 감축·전력 절감, ERR(경제적 수익률) 136%로 경제성 검증

- 한국은 고효율 기자재와 산업용 절감 기술에서 신뢰성과 품질 경쟁력을 보유, 현지 EPC 프로젝트·산업단지 전환 수요에 진출 기회 존재
- ESG 대응 솔루션 ^{탄소배출 측정·보고 소프트웨어, ESG 인증·컨설팅, 데이터 관리 서비스}
 - EU의 CBAM, EUDR 등 ESG 규제 대응을 위해 아세안 수출 기업은 공급망 투명성·배출량 검증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상황
 - * EUDR 커피·산림 DB(농림부·IDH) : '24년 12월 산림·커피 재배지 데이터베이스 시험 운영 성과(지적도·현장검증 포함). EUDR 대응용 추적 체계를 중앙-성(省)-기업 연계로 구축

- 한국은 ESG 인증 경험^{ISO, GRI, TCFD}과 소프트웨어·컨설팅 역량을 보유, 현지 기업의 규제 준수 파트너로서 신뢰 기반 시장 확대 가능

□ 진출전략

- 탄소저감 등 ESG 규제 대응형 기술·설비 수출 확대
 - 저탄소 생산·에너지 효율화·폐수 처리 등 EUDR·CBAM 대응 설비 수요 증가 기대
 - 배출 측정 장비, 저감 설비, ESG 보고 시스템을 패키지화하여 공급
 - IoT센서·AI분석 기반 탄소데이터 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제공
 - 태국 동부경제회랑 등 주요 산업단지 대상 스마트 ESG 공장화 솔루션 제안
- 저탄소 기자재·설비 수출을 통한 장기적 협력관계 구축
 - 제조업·농업·물류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 기자재, 친환경 공정 설비를 공급하여 EU 규제 대응을 지원
 - 특히, 스마트시티 개발 등 공공·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저탄소 기자재, 친환경 자재·장비 납품 검토

전략 ⑤

고령화·실버 산업 맞춤형 솔루션 제공



전략 수립 배경

- (현지 시장 동향 등 최근 상황 요약)
 - * 아세안은 출산율 저하와 기대 수명 증가로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 중
 - * 노인성 질환 관리와 요양 서비스에 대한 공공·민간 수요 급증, '실버 산업' 육성이 국가 과제로 부상
- (우리 기업의 진출 시 강점 등 진출 Point)
 - * 한국은 고령친화 의료기기·디지털 헬스케어·요양 서비스 운영 경험을 축적, 실버 산업 솔루션 강점 보유
 - * 고령친화 의약품·식품·헬스케어 서비스와 ICT 융합 솔루션을 현지화하여, 신규 실버 시장 개척 가능

□ 현지 동향

- 아세안 고령화의 가속과 돌봄·소비 수요 확대
 - 아세안은 불과 10~15년 전만 해도 '젊은 지역'으로 불렸으나, 현재는 출산율 하락과 기대 수명 연장
으로 전례 없는 속도로 고령화 진행 중
 - * 아세안의 고령화 속도는 한국과 거의 동일한 수준, 유럽의 고령화는 보통 50~80년 소요
 - 고령화는 사회·경제 전반의 수요를 재편하며, 치료·요양·재활 서비스, 건강보조 소비재, 실버 금융·
레저·주거 서비스 등 실버 산업 성장을 견인
 - 가파른 고령화에도 공공 돌봄체계와 사회보장제도는 여전히 초기 단계이며, 연금 수급률이나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미비해 민간 서비스 의존도 증가

노인요양시설 수용률

구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한국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 14% 소요 기간	17년	22년	20년	-	18년
노인요양시설 수용률 (노인 1,000명당 시설 침상 수)	3.2개	2.8개	5.0개	1.6개	47.5개

자료: UN DESA WPP 2024(고령화 기간), Aging Societies in Asia(요양시설 침상 수)

- 노인성 질환 부담 증가 및 돌봄경제^{Care Economy}의 부상
 - 아세안 전체 사망자의 55%가 고령화와 직결된 비감염성질환^{NCD(심혈관질환, 암, 당뇨 등)}으로 발생하는
만큼, 질병의 조기 관리와 재활·원격의료 수요 급증
 - * 아세안의 55세 이하 NCD 발생률은 OECD 대비 1.7배(NCD Progress Report 2023)
 - * 아세안 전체 의료비의 약 70%가 NCD 치료에 사용(WHO SEARO 2023)

- 7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적 취약 심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 돌봄 기능 약화로, 정부 주도의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 추진

아세안 주요국별 돌봄경제 육성 정책

국가	정책·프로그램	내용	연도
태국	Community Caregiver Scheme	마을 단위 공공 돌봄 인력 양성 및 방문 케어 제공	'20년
베트남	National Action Plan on Elderly Care	노인복지센터·장기요양 서비스 민간 참여 확대	'21년
싱가포르	Aging in Place Masterplan	지역사회 기반 방문·재활·요양 통합 서비스 확대	'22년
말레이시아	My Aged Care Ecosystem	주거형 실버타운·헬스케어 단지 조성 및 민간 운영 허용	'23년

□ 유망 품목

- **고령친화 의료·헬스케어 기기** 혈압·혈당 모니터, 이동·재활 보조기구, 웨어러블 헬스 트래커
 - 아세안 전체 사망 원인의 55% 이상이 비감염성질환으로 병원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가정·커뮤니티 기반 모니터링 기기 수요가 급증할 전망
 - 한국산 의료기기는 정확도·안전성, 국제 인증^{ISO-IEC} 등 경험을 보유해 현지 저가 제품 대비 신뢰성이 높아,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음
- **돌봄 서비스 및 웰니스 프로그램** 홈 케어 패키지, 실버 맞춤 피트니스·영양 프로그램, 재활·인지훈련 솔루션
 - 75세 이상 고령층의 23%가 일상활동 제한을 겪고 있는 만큼, 가족 돌봄의 한계 뚜렷 → 민간 주도의 요양 서비스, 웰니스·재활 프로그램 수요 증가
 - 싱가포르·말레이시아는 국가 차원에서 고령친화 도시·서비스를 육성 중이고, 태국은 이미 지역사회 기반 장기요양^{LTC} 모델을 제도화했으나, 취약한 제도·재정 기반으로 인해 민간 서비스·제품에 여전히 의존 중
- **실버 소비재·기능성 식품** 고령친화 의약품(저염·저당), 뼈·관절·인지기능 강화용 기능식품
 - 아세안 실버 소비 시장은 '30년까지 연평균 8~10% 성장할 것으로 예상^{Euromonitor}, 특히 건강보조 식품·기능성 식품이 소비 지출 비중에서 빠르게 확대
 - 한국은 항노화·면역력 강화 등 고령층 맞춤형 건강식품 개발 경험과 브랜드 신뢰도가 높아, 현지 시장에서 프리미엄 포지션으로 차별화 가능

□ 진출전략

- **고령층 대상 제품** 의료기기·헬스케어 과 서비스 요양·웰니스 로 신규 실버 시장 개척
 - 만성질환 관리 특화 제품 : 혈압·혈당 모니터링 기기, 재활·이동 보조기구 등을 현지 맞춤형으로 보급해 만성질환 관리 및 생활 지원 수요를 충족

- 요양·웰니스 서비스 모델화 : 가정·커뮤니티 기반 요양 서비스와 맞춤형 피트니스·영양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제공, 구독형 모델로 시장 확대
- 보험·기관 연계 진출 : 민간 보험, 지방정부 건강 프로그램과 연계해 실버 전용 케어 패키지를 도입, 초기 보급 장벽을 낮추고 안정적 수요 확보
- 한국-아세안 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해 현지화된 실버 산업 솔루션 확보
 - 현지 R&D 컨소시엄 구축 : 한국 기업·대학과 아세안 의료기관·정부가 공동으로 고령친화 제품·서비스를 연구개발, 현지 적합성 확보
 - 저가형·현지형 솔루션 개발 : 전력·통신 불안정 지역을 고려한 저전력·간소화 기기 및 다국어 UI를 공동 개발, 접근성 확대
 - 규제·보험 연계 실증 : 공동 임상·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지 규제 허가와 보험 적용을 동시에 추진, 제도권 편입을 통한 점유율 조기 확산

전략 ⑥

SOC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본 생활 보장 및 회복력 강화



전략 수립 배경

- (현지 시장 동향 등 최근 상황 요약)
 - * 병원·학교·상수도 등 필수 SOC 인프라 부족 및 도시화·기후재난 대응 인프라 수요 급증
 - * MDB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며, PPP 법제 정비를 통해 민간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추세
- (우리 기업의 진출 시 강점 등 진출 Point)
 - * 한국 기업은 병원·상하수도·학교 등 SOC EPC 수행 경험과 ICT 융합 역량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SOC 구축과 재난 대응형 스마트 솔루션을 패키지로 제안 가능

□ 현지 동향

- MDB^{다자개발은행}의 기후 적응형 인프라 투자 확대와 회복력 중심 지원 강화
 - 기후변화로 아세안에서 각종 사회·경제적 피해 가중 및 난민 발생, 기후난민 급증은 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기본 SOC 수요 급증으로 연결
 - * 전 세계 기후 관련 이주자의 약 37%가 아세안에서 발생
 - * 아세안의 해안 저지대 인구는 전체의 약 46%로 기후 난민 위험성이 가장 큰 지역으로 분류
 - '24년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는 모든 신규 인프라에 기후 회복력^{Resilience} 요소를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으며, ADB^{아시아개발은행}는 아세안에 62억 달러 규모 SOC 프로젝트 승인
 - 아시아 지역은 연간 1,020억~4,310억 달러 규모의 기후 적응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며, 홍수·가뭄·태풍 등 자연재해 대비 시설^{배수·방재 ICT} 수요가 급증
- 아세안 정부의 SOC 투자 확대와 PPP 기반 민간 참여 본격화
 - 아세안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1.5개^{OECD 4.4개}로 공공병원·보건소 확충 수요가 크며, 세계은행은 보건 인프라 확대를 핵심 지원축으로 명시^{'24년}
 - 의료시설의 WASH^{급수·위생·폐기물 관리} 서비스가 여전히 미충족 상태로, WHO와 UNICEF^{유엔아동기금}는 아세안 국가 보건시설의 안전한 급수·위생 접근성 개선을 촉구
 - 각국 정부는 민간 재원 유입을 위한 법제 정비 가속화, 필리핀은 'PPP 코드 IRR'을 시행해 대형 병원·급수·학교 프로젝트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 추진

□ 유망 품목

- 공공병원·보건소 확충 및 모듈러 의료시설^{모듈러 병동, HVAC·열균 설비, MEP 설비}
 - 아세안은 병상 수가 OECD 평균의 약 30% 수준에 불과한 만큼, 공공병원·보건소 확충 수요가 지속 확대

- 단기간 설치 가능한 모듈러 병원·보건소는 감염병 대응·격오지 배치·재난 대응에 유리한 만큼, MDB 프로젝트에서 채택 가능성 높음
- 상수도·폐수처리 및 스마트 위생 인프라 스마트 미터링, SCADA 급수 제어, 누수 감지 센서
 - 아세안 도시 인구의 25% 이상이 안전한 식수 접근이 어려우며, 평균 누수율^{NRW}이 25~30%에 달하는 만큼, 개선 필요
 - 정수·하수처리 플랜트와 스마트 미터·SCADA 감시 제어 및 데이터 수집 등의 관리 시스템은 MDB의 보건·위생 최우선 의제인 만큼, ODA·PPP 프로젝트 핵심 품목으로 부상
- 재난 대응형 인프라 조기경보 시스템, AI 예측 플랫폼, 대용량 배수펌프, 스마트 수위·침수 센서
 - 홍수·태풍·가뭄 등 기후재해 피해가 GDP의 1~3%에 달해 재난대응 ICT·배수 인프라 수요 급증
 - 센서·AI 기반 조기경보, 대용량 배수펌프, 스마트 수위 모니터링 솔루션은 MDB의 회복력 평가 항목에 부합

□ 진출전략

- 디지털 트윈 실제 사물이나 시스템을 디지털 세계에 똑같이 복제하여 시뮬레이션하는 기술 기반의 선진 SOC 설계·관리 역량 확보
 - SOC 인프라 병원, 상수도, 학교 등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해 설계 단계부터 비용·재난 대응성·에너지 효율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 가능
 - 이를 통해 예산 낭비와 시공 리스크를 사전에 줄일 수 있으며,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정부 발주 프로젝트에서 첨단 기술력으로 차별화
- 지역 수용성을 강화하는 커뮤니티 연계형 인프라 모델
 - ‘보건소 + 학교 + 급수시설’ 등 소규모 필수 SOC를 묶어 마을·커뮤니티 단위 프로젝트로 제안
 - 주민 고용·운영 참여를 병행하면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고, 대규모 프로젝트 지연 리스크를 보완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받을 수 있음
- 재난 대응력을 높이는 이동형·모듈형 인프라 솔루션
 - 홍수·태풍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배치 가능한 ‘이동형 병원·급수·전력’ 솔루션 제공
 - 평상시에는 원격지·도서 지역에서 활용 가능해 다목적 수요를 충족시키며, AIIB·ADB가 강조하는 ‘재난 회복력 인프라’ 정책에도 직접 부합
-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스마트 거버넌스 인프라
 - SOC 구축과 동시에 교통, 보건, 위생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정부의 정책결정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디지털 솔루션 제공
 - 단순 인프라 공급을 넘어 ‘데이터 기반 행정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 장기적인 정부 협력 및 후속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높음

전략 7

BRICS 신개발은행 및 국내 정책자금 활용 진출



전략 수립 배경

- (현지 시장 동향 등 최근 상황 요약)
 - * 아세안, 대규모 전력·교통·환경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MDB, ODA 등 외부 자금 의존도가 높음
 - * 아세안 주요국이 BRICS에 참여함에 따라 NDB 자금을 활용한 인프라·에너지 프로젝트 확대 전망
- (우리 기업의 진출 시 강점 등 진출 Point)
 - * 한국은 ODA·정책금융(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과 연계한 패키지형 금융 제공 경험을 보유
 - * 국내 EPC·기자재 기업은 금융·기술·운영 패키지 제안이 가능, 정책자금과 연계해 경쟁 우위 확보

□ 현지 동향

- 아세안 지역의 인프라 및 개발 수요 급증
 - 아세안은 도시화·산업화 확대에 따라 도로, 철도, 발전소 등 하드인프라 수요가 크며 민간·공공 프로젝트 모두 대규모 자본이 필요
 - BRICS 신개발은행^{NDB}은 전통적인 다자개발은행^{MDB}, 국제기구와의 협업 가능성을 열어두며, 개발도상국 인프라 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 능력을 확대 중
 - * NDB : BRICS 5개국이 설립한 국제 개발 금융 기관으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및 지속가능 발전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
 - * 인도네시아는 BRICS 가입에 이어 NDB 가입 결정('25년 3월), NDB-아세안 연계 가능성 확대
- 한국 정부·금융 부문의 해외 개발 협력 강화
 - 한국 정부와 금융기관은 아세안 인프라·에너지 프로젝트 참여 확대를 위해 ODA^{EDCF·KOICA}와 정책금융(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결합한 패키지형 지원 체계 구축

우리 정부의 ODA와 정책금융을 결합한 패키지형 지원 현황('24년 이후)

국가명	주요 내용
베트남	• 부온호(Đắk Lắk) 도시 하수·배수 개선 : KOICA 무상 / 예산 공표 / '24~'25년 FS·설계 중 / 도시 배수·하수처리 용량 확충 / 한국 분리배수 설계·하수처리기술·감리단 투입 가능
인도네시아	• Karian-Serpong 광역 상수도 PPP : EDCF + 민자 혼합 / 약 2억 1,000만 달러 / 지속 집행 중 / 자카르타 수도권 대규모 정수·송수 시스템 구축 / 한국 펌프·관로·정수공정·SCADA 자동제어 납품 가능 • Balikpapan 정유 공장 업그레이드 RDMP : 한국수출입은행 금융 / 약 1억 달러 참여 / 단계 집행 중 / 정유·에너지 효율·환경설비 현대화 / 한국 화공플랜트·배관·제어설비 EPC 참여 가능
필리핀	• Laguna Lakeshore Road Network 1단계 : EDCF / 약 9억 달러 / '25년 집행 본격화 / 마닐라 남부 라구나호수 순환도로·교량 신설 / 한국 EPC·강재·프리캐스트·배수설계·공사감리 참여 가능 • Samar Pacific Coastal Road II : EDCF / 1억 1,140만 달러 / '24년 10월 대출 협정 / 교량 2개 포함 연안도로 확장·침수취약 개선 / 한국 교량 상부 구조·말뚝·강교자재·감리 참여 가능
캄보디아	• Provincial Road Improvement Phase 4 : EDCF / 1억 2,000만 달러 / '24년 5월 승인 / 6개 주 391km 지방도로·배수망 개보수 / 한국 도로설계·포장공법·아스팔트·플랜트장비·현장감리 참여 가능
라오스	• 국도 8호선 교량·도로 안전 개선 : KOICA 무상 / 약 1,300만 달러 / '24년 발표, '25년 착수 / 교량 6개 개량 + 도로안전 개선 / 한국 교량 설계·현장감독·건설안전 기술 참여 가능

- 또한 아세안 현지 정부와 양자 협력 MOU 체결 및 다자개발은행^{NDB·ADB}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기업의 EPC·기자재 수주 기대감 고조

* △ 베트남과 인프라 등을 포함한 10건의 MOU 체결('25년 8월), △ EDCF-ADB 협조융자 마련 등

□ 유망 품목

- 교량·도로 건설 자재 철강재,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고성능 아스팔트
 - 도로·교량 확충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며, 기후조건^{고온다습, 집중호우}과 중량화물 운송 증가로 내구성이 강한 고품질 철강재·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수요 확대
 - 한국산 건설 자재는 내식성·압축강도 등 품질 안정성이 높아 열대 기후·홍수에 강하며,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공사 지연 리스크 완화에 기여
- 철도·지하철 설비 전동차, 신호·통신 시스템, 궤도 부품
 - 아세안 주요국은 경전철·고속철도 프로젝트 추진 중, 한국은 KTX·도시철도 경험 기반으로 전동차 제작, 신호·통신 시스템, 궤도 기자재 등에서 강점 보유
 - 중국·일본 대비 가격 경쟁력은 제한적이나, 품질·안정성·시공 노하우를 무기로 EPC 컨소시엄 진출 가능성이 높음

- **상하수도 설비** 정수·하수처리 플랜트, 관로 및 펌프, 수처리 화학제
 - 아세안은 인구 증가·도시화로 깨끗한 물 공급 및 폐수 처리 수요가 급증한 반면, 상하수도 인프라가 미비하여 국제개발자금 활용 프로젝트 다수 계획
 - 한국 기업은 정수·하수처리 기술, 관로 시공, 화학약품 공급 경험을 보유하여 진출 기회가 다대

□ 진출전략

- ‘BRICS 신개발은행 및 국내 EDCF 공동 금융 패키지’ 기반 진출
 - NDB·AIIB 등 다자개발은행 자금에 EDCF·수출입은행 정책금융 연계한 패키지형 자금 조달 모델을 제시
 - 대규모 전력·교통·환경 프로젝트에서 금융·기술·운영이 결합된 통합 패키지를 제공하여, 한국 기업의 사업 참여 문턱을 낮추고 경쟁력 강화
 - 국내 중소·중견 EPC 기업 대상 프로젝트 컨소시엄 구성으로 기자재·엔지니어링·시공·IT 관리 등 역할별 참여 구조 설계
 - 특히 BRICS NDB 자금 중 ESG·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의 비중 확대가 예상되는바 저탄소 인프라 및 그린 빌딩 분야로 기회 집중 발굴
- 한국 금융기관·공기업과 협업해 금융 + 기술 패키지 수출 모델로 수주 경쟁력 제고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금융기관과 한국전력·한국도로공사·수자원공사 등 공기업과의 컨소시엄 형태의 협력 확대를 통한 진출전략 모색
 - 금융 안정성·신뢰성을 높여 현지 정부·MDB의 신뢰를 확보하고, EPC 수주 과정에서 가격 경쟁보다 품질·안정성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 필요

전략 ⑧

전력·에너지 인프라 협력 확대



전략 수립 배경

- (현지 시장 동향 등 최근 상황 요약)
 - * 아세안은 연평균 4%대 전력 수요 증가율 기록,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보가 국가 전략과제로 부상
 - * 탄소중립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원자력 도입 등 에너지 믹스 다변화 및 전력망 현대화 정책 추진
- (우리 기업의 진출 시 강점 등 진출 Point)
 - * 한국은 원전·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까지 아우르는 전 주기 기술력 보유, EPC·운영·관리(O&M) 경험 축적
 - * HVDC·스마트 계량·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첨단 송배전 기술은 아세안 전력 공급 안정성 제고에 기여 가능

□ 현지 동향

-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에너지 믹스 전환과 차세대 원전^{SMR} 각광
 - 동남아대양주 국가별로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발전원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SMR^{소형모듈원전}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될 예정
 - 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이 SMR 도입을 공식 검토 중, '50년까지 아세안의 원전 수요는 25GW로 확대되고 필요 투자 규모는 2,080억 달러에 달할 전망

아세안의 원전 및 SMR 도입 계획

국가	정책·계획	목표 용량·시점
필리핀	첫 원전 건설 프레임워크 공개	'32년(1.2GW), '50년(4.8GW)
인도네시아	'40년까지 원전 10GW 도입 추진	'25~'30년 계약 가동 목표 언급
태국	EGAT-KHNP(한국수력원자력) SMR 공동연구 MOU	초기 ~0.6GW 검토(정책 연구 단계)
베트남	'30~'35년 원전 재도입 포함 전력계획 개정('25년 4월)	'30~'35년 최대 6.4GW, 중장기 확대

자료: Sustainability Reporting in ASEAN, '25년 7월

- 송배전망 현대화와 역내 전력 연계 가속화
 - 노후화·투자 부족으로 아세안 전력망 송전 손실률은 평균 9% 수준, 이는 빈번한 정전^{계통 불안정}으로 이어지며, 산업 경쟁력 제약 요인으로 작용

국가별 전력 송·배전 손실률

국가	캄보디아	필리핀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호주	싱가포르	한국
손실률(%)	13.7	9.6	8.0	7.2	6.9	6.6	6.5	6.2	4.7	4.6	0.2	3.2

자료: WB(Electric Power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Losses(% of Output))

- 아세안은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송전망 확충 속도를 2배 이상 높여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국가 간 전력 연계망^{APG} 구축이 핵심 과제로 부상
- 스마트시티 확산에 따른 도시 전력 솔루션 수요 증가
 - '24년 아세안 26개 도시에서 도시 인구 밀집 및 전력 수요 급증 해결을 위해 에너지·교통·환경 통합 관리 프로젝트를 추진 중
 - 세계은행은 스마트 계량기·EMS^{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 전력 관리 솔루션 등 에너지 효율화 인프라가 향후 투자 우선순위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 유망 품목

- 미래 에너지원 기자재^{태양광 모듈·풍력 터빈·SMR 핵심 기기}

미래 에너지원 관련 실제 프로젝트·조달 사례

분야	국가	프로젝트·계약명	한국 기업 역할	시기	규모(MW)
태양광 (지붕형 산업단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땅그랑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구축	LG CNS,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PLN)과 에너지 PPA 모델 구축	'23년~	단계별 확장
풍력 터빈 공급	필리핀	Ilocos Norte 해상풍력 프로젝트	두산에너지빌리티 풍력 터빈 엔지니어링 기술 컨설팅 지원	'22년~	160
수력·배터리 연계	인도네시아	North Kalimantan Hydropower + ESS	HD현대건설·롯데케미칼 수력 + ESS 연계 산업단지 투자 참여	'24년	2,000

- '24년 아세안 전력 수요가 7% 증가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SMR 도입을 공식 추진 → 발전 기자재 및 원전 핵심 설비 수요 확대
- 태양광^{베트남·태국}, 풍력^{필리핀}, 지열^{인도네시아}, 수력^{라오스} 등 국가별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따라 관련 기자재·부품의 현지 맞춤형 공급 필요
- 송배전망 및 스마트시티·도시형 전력 관리 솔루션^{HVDC 변환기·변압기·ESS·스마트미터}

송배전·스마트그리드·HVDC 및 도시형 전력 솔루션 사례

분야	국가	프로젝트·계약명	한국 기업 역할	시기
스마트미터(AMI)	베트남	남부전력공사 EVNSPC AMI 구축	LS ELECTRIC 스마트미터·통신 인프라 공급	'20년~
전력 데이터 EMS·DR	싱가포르	SP Group Demand Response Program	삼성SDS 에너지 AI 최적화 솔루션 공급	'21년~
도시형 마이크로그리드	필리핀	오프그리드 섬 Microgrid 8개 지역 구축	LG CNS EMS + 에너지 저장시스템 공급	'22년~

- 아세안 전력망 손실률은 9% 수준으로, 송전 효율화 장비 수요 확대 및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위해 ESS·스마트미터·배전 자동화 시스템 수요 급증
- 아세안 26개 스마트시티 추진과 EV 보급 확산으로 EMS·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DR^{수요 반응} 등 전력 관리 솔루션과 충전소·마이크로그리드 수요가 본격 확대될 전망

□ 진출전략

- 재생에너지·SMR 등 미래 에너지원에 대한 건설·운영·관리 분야 진출
 - 한국 기업은 원전·재생에너지 분야에서 EPC^{설계·조달·시공}뿐 아니라 O&M^{운영·관리} 경험까지 보유하고 있어, 건설 이후에도 장기 운영 파트너로 자리매김 가능
 - 한국 기업은 현지 운영인력 교육, O&M 시스템 공급, 안전규제 대응 컨설팅 등 패키지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단순 EPC를 넘어 진출 효과 극대화 필요
- 발전·송전 프로젝트와 스마트그리드·HVDC 등 첨단 솔루션 공급 확대
 - 중국·일본 기업이 시장을 선점 중인 상황에서, 한국 기업은 안정성과 기술 신뢰도를 무기로 현지 정부와 MDB의 파트너로 차별화 필요
 - 단순 기자재 납품을 넘어, EMS, 스마트 계량기, 수요관리 프로그램 등 솔루션 패키지로 접근하여 수익성과 장기 협력 기반 확보



반도체 및 반도체 검사 장비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반도체 후공정 투자 확대와 정부 지원으로 패키징·테스트 등 OSAT·ATE 기반 산업의 성장, 관련 소재·장비·부품 수요 동반 증가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 후공정 산업은 글로벌 기업 주도의 경쟁 심화, 현지 생산 기반은 취약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非중국계 공급망 재편 가속화로 한국 기업의 반도체 장비·소재·테스트·패키징 기술에서 현지 협력 기회 전망 현지 AS·PoC 라인 제공으로 차별화, 글로벌 협력 확대 기대
유망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신재생에너지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전력구매제도(DPPA) 시행과 ESS 연계형 태양광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투자 확대 아세안 국가별 태양광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예정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전력구매제도(DPPA) 시행과 ESS 연계형 태양광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투자 확대 아세안 국가별 태양광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예정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기업의 현지 대규모 전력 소비자 대상의 통합 에너지 솔루션 제공 정부 지원 사업과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활용한 시장 진출 확대 현지 유통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입지 강화 가능
유망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ESS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EV 산업 육성 추진 중, 배터리·충전 인프라 투자 급증 이에 따른 배터리 셀 및 관련 부품에 관한 수요 확대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은 저가 모듈, 대규모 배터리 생산 역량 기반으로 충전 인프라 확충 등 ESS 시장 주도 중국 중심의 공급 구조 속 현지 시장 재편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고효율 모듈과 ESS 패키지 결합, 현지 EPC와 협업을 통한 차별화 추진 • 배터리·충전 인프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합작투자 형태 진출 확대 • 세제 혜택 활용, 생산 거점 확보 및 차량 유통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시장 입지 강화
유망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태국, 라오스

내연기관 차량 및 그 부품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국가와의 CEPA 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 내연기관 차량 부품 수입 의존도 증가 등으로 관련 시장 성장세 • 고급리로 신규 차량 판매는 부진하지만, 애프터마켓 수요 증가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과 중국 기업의 시장 주도 • 한국산은 해상 운송으로 재고 부담이 있으나, 일본·태국산 부품은 육로로 유입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성차·부품 합작투자에 관한 현지 세제 혜택을 활용, 현지 완성차 제조사 등과 협력 강화 • 현지 생산 기지 활용, 역내 공급망 강화 기대
유망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전기차 및 그 부품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대양주 전역에서 전기차 생산·충전 인프라 확충의 본격화로 전기차 생태계 확산 추세 • 국가별 세제 혜택, 보조금 정책을 통한 전기차·부품 산업 육성, 기업은 합작투자 등으로 대응 • 고속충전기·스마트 전력 관리·배터리 부품 등 관련 기술 수요 급증 •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제3국 공급 허브로 아세안 생산기지 활용에 따른 급속 충전기·전력변환장치·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고부가 부품 수요 증가 현상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기업이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 주도, 일본·미국·유럽 기업도 점유율 확대 중 • 글로벌 브랜드는 충전 인프라, 스마트 부하 관리 등으로 현지 시장 선점 중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전략사 및 전력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충전 인프라망·유지보수 서비스 확충 • 중·고가 시장 중심의 브랜드 신뢰도 및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 필요
유망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호주

의약품 및 의료기기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대양주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높은 수입 의존도, 경제 성장과 고령화로 인한 고품질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추세 • 각국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을 전략 분야 육성 및 연구·인프라 투자로 진단장비·영상의학기기 등의 고부가 의료 시장의 성장세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인도산 저가 제품과 유럽·일본산 고가 제품 공존의 경쟁 구도 형성 • 주로 다국적 기업이 의료 시장을 주도하며, 한국산 제품은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강점으로 CT·X-ray·초음파 등 진단장비 분야에서의 입지 강화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제약사 및 유통 업체와의 기술이전·합작투자 협력이 필수이며, 병원·연구기관과의 임상·R&D 협업을 통한 신뢰도 확보 전략 필요 • 치과장비·소모품 등 고성장 품목에 집중 • 전시회·학회·세미나 참여로 인지도를 높이고, 설치·AS 등을 포함한 통합 서비스 체계 유망
유망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뉴질랜드

화장품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와 한류 확산을 통한 K-뷰티 인기 상승 • 중산층 성장으로 프리미엄·기초·선헤어 제품 중심의 수요 증가로 한국산 화장품의 수입과 시장 점유율 확대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레알, 시세이도 등 글로벌 브랜드와 로컬 브랜드 간 경쟁 치열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해한 성분, 할랄 인증, 유기농 인증 취득 및 K-콘텐츠(비포&애프터, 스킨케어 튜토리얼 등) 기반 마케팅으로 브랜드 인지도 확산 필요 • 오프라인(세포라·편의점 등)과 온라인 채널(라이브커머스 등)의 병행한 채널 다각화 필요
유망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호주, 뉴질랜드

건설 자재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인프라 개발과 도시화 진전으로 철강, 시멘트, 목재, 알루미늄 등 건설 자재 수요 증가 • 가격 대비 품질 경쟁력이 높은 한국산 자재의 진출 가능성 증가 • 고급·상업용 건축 확대 및 품질·친환경 인증 자재에 대한 수요 증가로, 한국산 고급 자재의 경쟁력 확보 가능
-------------	---

경쟁동향	• 중국·태국 등으로부터 저가 수입품 의존도가 높아 가격 경쟁 심화 추세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구성·친환경 등 품질 경쟁력 기반으로 현지 인증과 규제 준수 강화하여 입지 확보 필요 • 현지 건설사·유통망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대형 프로젝트 납품 기회 확보 • 고기능·고품질 자재로 프리미엄 시장 공략
유망국가	• 싱가포르, 캄보디아, 미얀마, 뉴질랜드

소형 가전 전자제품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수준 향상, 1인 가구 증가로 편의성·효율성 중심의 프리미엄 소형 가전 수요 확대 • 스마트홈·IoT 연동 제품에 대한 관심으로 첨단 기술과 디자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가전의 시장 진입 기회 확대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브랜드의 시장 주도, 현지 기업과의 가격·서비스 경쟁이 치열 • 품질, 브랜드 신뢰도가 높은 제품이 경쟁 우위 확보 추세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렌드한 디자인·품질 중심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확보하고, 소형 주택 환경에 적합한 다기능·에너지 효율 인증을 통한 공략 • 오프라인 리테일, 온라인몰 병행한 유통 채널 다각화 필요
유망국가	• 싱가포르, 캄보디아

가공식품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윤리 소비 확산, 도시화 가속화 등으로 식물성·저칼로리·고단백 등 기능성 가공식품 시장의 빠른 성장 • 플렉시테리언(Flexitarian) 확산과 정부의 영양 규제 강화는 저나트륨·저열량 제품의 제품 수요 촉진 • 한류와 프리미엄 이미지에 기반을 둔 한국산 제품은 신뢰도·품질 경쟁력으로 입지 강화 중 • 발효·자연 원료 기반 제품군이 현지 웰빙 트렌드와 맞물려 지속적인 성장 전망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현지 대기업의 대체 단백질, 지속가능 식품, 과일 가공 등 라인업 확장으로 경쟁 심화 • 저당·무가당·클린라벨 등 건강 지향 제품 확산으로 영양·성분 표시 규제 대응 능력이 경쟁 우위 좌우 • 김치·스낵·즉석식품 등의 대표 품목은 현지 유통망 확대와 한류 시너지로 입지 강화 중

진출방안

- 저나트륨·고식이섭유 등 건강 중심 콘셉트로 현지 식문화와 입맛에 맞춘 현지화 중요
- 프리미엄 이미지와 현지 선호 입맛을 결합한 차별화, 위생·윤리 키워드 강조한 이미지 구축
- 현지 대기업과의 OEM·합작투자 등 협업을 통한 원가 절감과 인증(할랄 등) 선제 확보 필요
- K-콘텐츠와 연계, 체험형 마케팅(시식, 챌린지,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한 친숙도 강화 가능
- 리테일, 외식, B2B 시장 공략하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해 시장 확장 전망

유망국가

-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호주



디지털 헬스케어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주도의 의료 디지털화, 고령화·만성질환 대응 수요 확대에 AI 진단, 전자건강기록, 스마트 병원 등의 성장 의료 인력 부족,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진료·모바일 헬스 수요 증가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대기업이 의료기기, 진단·이미징 분야 주도하며, 현지에서도 디지털 헬스 생태계 구축 경쟁 본격화 현지 스타트업의 기술은 성장 중이나, 통합형 솔루션의 부족으로 협업 필요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진단, 웨어러블, 원격의료 등 통합 헬스테크 솔루션 역량 기반으로 경쟁력 확보 기대 현지 병원 및 관련 스타트업과의 협력, PoC 수행을 통해 신뢰성 있는 레퍼런스 구축 필요 현지 인증, 라벨링, 조달망 진입을 위한 제휴 및 합작투자 체결로 시장 접근 전략 요구
유망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 태국, 뉴질랜드

의료 서비스 솔루션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높아진 보건 의식으로 의료 인프라 개선 필요 의료 기록 관리, 질병 예방, 치료 효율성 향상을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수요 지속 확대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기업이 병원 시스템을 공급하나, 가격·현지화 문제로 중소형 병원 대상 솔루션 부족 외국계 민간 병원 진출, 대도시 중심의 민간 의료 확대에 시장 성장 중이나, 공공의료 인프라 한계로 의료 양극화 심화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클라우드 기반 SaaS형 EMR 솔루션 수출은 중소형 병원 접근성 향상·비용 절감 기대 가능 전문 진료과 중심의 병원 설립과 원격의료·진단장비 도입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 전망 중상위층 중심의 현지 의료기관과의 합작, 공동센터 설립 형태의 진출 기대
유망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교육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산층·고소득층 중심, 국제 학교나 해외 대학 진학 선호 수요의 꾸준한 증가세 현지 교육 인프라의 한계로 해외 연계형 교육기관·사교육 시장의 높은 잠재력
-------------	--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육과 유학 준비 수요가 개인 교습·전문 교육기관으로 집중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협력·CSR 연계 사업을 통한 교육 분야 실적과 신뢰도 구축 가능 • 현지 파트너·유학원과 협력, 상담·비자·진학 서비스 체계화와 설명회 등을 통한 투명성·전문성을 강화하는 접근 필요
유망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오스, 미얀마

에듀테크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정부 주도의 인적·기술 지원 활성화 • AI 기반 맞춤형 학습, 온라인 강의, STEM·코딩 교육 등의 수요 증가 • 학생 개별 성취도 분석과 교사 생산성 향상 목표를 위해 스마트 러닝 플랫폼 도입 활발 • 젊은 인구층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높아, 온라인 교육과 사교육 시장이 동시에 성장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현지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하나, 정책 지원 등으로 협력 기회 확대 중 • 스타트업의 활발한 진입에도 글로벌 기업의 품질 검증·신뢰성 우위 차지 • 맞춤형 학습 솔루션, 지역 맞춤형 콘텐츠의 부족으로 신규 진입 여지 증대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기업의 AI 기반 맞춤형 학습 플랫폼과 교사 지원 도구 중심의 수요 대응 기대 • 시범 사업 참여를 통한 학습 효과 인증, 초기 레퍼런스 확보 필요 • 현지 학교·교육기관과의 협력 및 모바일 중심 현지화 전략을 통한 접근성 향상 필요 • AI·모바일·맞춤형 학습 기술 결합 솔루션 등으로 시장 경쟁력 강화 전망
유망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금융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디지털 전환 추진, 비대면 금융 확산으로 결제·정산 등 관련 기술 수요 급증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주요 은행, 글로벌 금융기관, 핀테크 기업이 공존하며 경쟁 심화 • 결제·송금 등 핵심 서비스는 빠르게 확산 중이나, 리스크 관리·AML·KYC 분야는 아직 기술 격차 존재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핀테크 기반 결제·보험·할부금융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진출 가능성 • 현지 금융기관과의 공동 서비스 개발 및 기술 번들 제안으로 시장 접근성 향상 전망 • 규제·보안 인증 선제적 확보 및 투자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진출 기반 필요
유망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필리핀

소프트웨어

- 선정사유**
- 정부의 디지털 전환과 산업 현대화 흐름에 따른 클라우드·AI·보안 등 IT 솔루션 수요 확대
 - 금융, 물류, 공공 행정 등 산업 특화형 디지털 솔루션의 중요성 부각
- 경쟁동향**
- 글로벌 IT 대기업이 클라우드·AI 시장 주도, 현지 스타트업은 틈새 영역 중심의 경쟁 참여
 - 경쟁이 치열하나, 정부의 디지털화 촉진 정책과 산업별 맞춤형 수요 확대에 따른 신규 진입 기회가 꾸준히 발생
- 진출방안**
- 한국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와 AI 규제 준수를 기반으로 관련 IT 솔루션 제공 기대
 -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및 정부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시장 접근성 향상 가능
 - B2G·B2B로 단계적 시장 확대 추진과 사용자 언어·인터페이스 반영한 현지화 전략 필수
- 유망국가**
-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물류(콜드체인)

- 선정사유**
- 이커머스 성장과 유통채널 확대로 콜드체인 및 라스트마일 물류 수요 급증
 -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물류 자동화와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증대
 - 항만·내륙 거점의 디지털화와 통관 전자화 확대가 물류 인프라 고도화 중이며, ESG 경영에 따른 친환경·지속가능 물류 전환 적극 추진
- 경쟁동향**
- 대형 물류 기업과 중소 운송 업체의 공존 형태, 물류 효율화·디지털 전환 경쟁의 심화 추세
- 진출방안**
- 창고 입지 선정과 운영 효율화를 통한 정확한 콜드체인 관리와 물류망 최적화 기대
 - 제품 안전·데이터 보호·추적 기능을 강화한 규제 대응형 플랫폼 구축 필요
 - 현지화된 운영모델, 신속한 AS, 부품 공급 체계로 안정적인 서비스 가동률 확보 요구
 - AMR·AGV·IoT·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물류 기술을 이용한 진출 유망
- 유망국가**
- 베트남, 태국, 라오스, 호주

건설(EPC)

- 선정사유**
- 대형 교통·물류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으로 배후단지 개발 수요 확대
 - 정부의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으로 건설·개발 사업 참여 여건 개선
- 경쟁동향**
- 대형 인프라·상업시설 프로젝트는 글로벌 기업과 대기업 간 치열한 수주 경쟁
 - 소규모 주택·중소형 개발은 현지 기업 중심으로 프로젝트 성격에 따른 이원화 구조 발생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고속철, 항만, 공항 등 핵심 인프라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공급자 역할 기대 • 성능, ESG, 납기 신뢰성 등 차별화 전략 필요 • 고성능 자재·모듈러·디지털 솔루션을 활용, 현지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과 단계적인 대형 프로젝트 참여 방식이 유효할 것으로 예상
유망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뉴질랜드

친환경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달성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정부 주도의 녹색 전환 정책 강화 추세 • 친환경 건축,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등 녹색 인프라 분야 수요 지속 확대 • ESG 경영 확산과 녹색 금융 지원이 민간 투자 활성화를 견인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인프라 분야에서 글로벌·현지 기업 간 경쟁 과열 • 고효율 기술과 국제 레퍼런스를 보유한 기업에는 공공·민간 협력 기회 지속세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기업의 에너지 효율 기술, 친환경 자재, 스마트 그린 솔루션 기반 역량으로 녹색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기대 • 정부 및 공공기관 주도 사업 적극 참여로 레퍼런스 확보하는 것이 중요 • 현지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장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필요
유망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캄보디아

데이터 인프라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수요의 빠른 증가세, 전력·냉각·보안 등 통합 관리 서비스의 중요성 강조 • 스마트 기술과 IoT 기반 솔루션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며, 디지털 경제 부상 추세 • 에너지 효율성과 운영 안정성을 결합한 첨단 디지털 솔루션의 시장 잠재력 향상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IT·전력 기업이 EPC와 O&M 패키지 중심의 시장 주도, 에너지 효율(PUE)과 보안 인증이 주요 경쟁 요소로 작용 • 현지 기업들의 투자·운영 역량 강화로 시장 내 기술 표준과 서비스 품질의 빠른 향상세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기업의 AI 기반 전력·냉각 최적화 SaaS와 통합 솔루션 중심의 경쟁 우위 기대 • 보안·데이터 보호 규정을 충족, 현지 파트너와 협력한 운영 환경 구축 필요 • 파일럿 검증으로 확장하는 단계형 사업화와 컨소시엄 기반 제안 방식이 유효
유망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26년 동남아대양주 지역 KOTRA 주요 사업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아세안·대양주 내수 소비 시장 진출 지원	2026 베트남 프리미엄 소비재 무역사절단	3월/하노이·호치민
	전기차(모터쇼 연계) 사절단	3월/태국
	2026 베트남 엑스포 한국관	4월/하노이
	K-Lifestyle in Laos	4월(잠정)/비엔티안
	K-소비재·식품 쇼케이스	5월/자카르타
	소비재 무역사절단	5월/싱가포르
	2026 베트남 종합품목 무역사절단	6월/하노이·호치민
	2026 아세안 소비재 사절단	6월/쿠알라룸푸르
	2026태국 방콕 코스모프로프 전시회	6월/방콕QSNCC
	2026 대양주 소비재 무역사절단	6월/오클랜드
	진주시 종합 무역사절단	7월(잠정)/비엔티안
	2026 베트남 소비재 특화 사절단	8월/다낭
	2026 한-베 페스티벌 소비재 팝업스토어	8월/다낭
	서울 푸드 인 방콕(Seoul Food in Bangkok)	8월/방콕(QSNCC)
	2026 피지 한국 소비재 판촉전	8월/수바(피지)
	2026 1무역관 1유통망 협력사업	8월/오클랜드
	2026 동남아 기계부품 무역사절단	9월/하노이
	2026 할랄식품전시회(MIHAS)	9월/쿠알라룸푸르
	베트남 소비재 종합 판촉전(K-Festival 2026)	10월/호치민
	2026 코스모뷰티(Cosmobeaute) 전시회	10월/쿠알라룸푸르
	종합 품목 무역사절단	11월/싱가포르
	2026 아세안 K-소비재 사절단 및 유통망입점사업	11월/쿠알라룸푸르
	캄보디아 K-소비재 쇼케이스	11월/프놈펜
	한류 연계 호주 유통망 입점·판촉사업	3분기/멜버른·애들레이드
	지역 우수 식품 판촉전	상반기/싱가포르
	2026 아세안 조선해양 기자재 사절단	상반기/쿠알라룸푸르
	호주 국립박물관 연계 한류 소비재 사업	상반기/캔버라
	말레이시아 유통망 진입지원 사업(1무 1유)	상반기/온라인(말레이시아)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K-소비재 온라인 역직구 판촉사업	상반기/온라인(말레이시아)	
	2026 다낭 베이비페어 연계 판촉전	하반기/다낭
	인도네시아 온라인 유통망 입점지원(1무1유)	하반기/수라바야
	현지 e커머스 협력 입점 및 판촉 지원 사업	연중/온라인(싱가포르)
	미얀마 온라인 화장품 ODM 파트너링 사업	연중/온라인(미얀마)
한국 청년의 글로벌 취업· 창업 지원	해외취업 멘토링 간담회	3분기/양곤
	노무 및 인사관리 세미나	상반기/싱가포르
	취업박람회 연계 첨단산업 분야 해외인재유치 제도 홍보	상반기/싱가포르
	졸업 멘토와 찾아가는 취업 멘토링	하반기/싱가포르
	인재유치 채용 상담회	하반기/싱가포르
	베트남 안전·취업박람회	미정/하노이
	베트남 기취업자 간담회	미정/하노이
	베트남 기취업자/유학생 간담회	미정/다낭
아세안·대양주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지원	싱가포르 해양산업 전시회	3월/싱가포르
	2026 한-말 스마트팜 로드쇼	4월/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정보통신전시회	5월/싱가포르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인 캄보디아	5월/프놈펜
	한-라 넷제로 파트너십	5월(잠정)/비엔티안
	한-인니 AI시티·팜 파트너십	6월/자카르타
	한-필 AI시티·스마트팜 시장개척 로드쇼	6월/마닐라
	캄보디아 AI + 현장 데이터 마케팅사업	6월/프놈펜
	2026 Korea-Asean Maritime Week	7월/발리
	동남아 스마트팜 수출상담회	8월/호치민
	2026 한국형 스마트농업 파트너링	8월(잠정)/비엔티안
	자카르타 수처리 전시회	9월/자카르타 JIEXPO
	2026 OGA 전시회 연계 수출상담회	9월/쿠알라룸푸르
	ICT 라오스 진출 사절단	9월(잠정)/비엔티안
	한-필 인프라 협력 포럼	10월/마닐라
	라-베 프로젝트 파트너링 구축사절단	10월(잠정)/비엔티안
	동남아 녹색산업 수출상담회	11월/호치민
	2026 아세안 조선해양 무역사절단	11월/수라바야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스마트시티 + 에듀테크 데이	상반기/태국	
	2026 한·말 스마트시티 로드쇼	하반기/쿠알라룸푸르
	호주 스마트팜 진출 로드쇼	연중/멜버른
	2026/27년 '디지털 기반 신사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KSP 프로젝트	연중/비엔티안
	플랜트 수주지원협의회	연중/하노이
	AW & ELECS 2026 전시 연계 수출상담회	연중/호치민
국내 기업 투자 진출 및 경제 협력 지원	호주 Austrade 정례협의회 개최	3월/시드니
	2026 베트남 진출기업 경영지원세미나	4월/하노이
	2026 대양주 종합 무역사절단	4월/오�클랜드
	베트남 진출기업 경영지원 설명회	5월/호치민
	2026 세미콘 전시회 연계 한·말 반도체 협력 세미나 및 수출상담회	5월/쿠알라룸푸르
	2026 메탈텍(Meraltech) 통합 한국관	5월/쿠알라룸푸르
	동남아 의약품·의료기기 수출로드쇼	5월(잠정)/비엔티안
	베트남 환경에너지산업전 연계 수출상담회	6월/하노이
	2026 아키덱스(ARCHIDEX) 통합 한국관	7월/쿠알라룸푸르
	의약품·의료기기 수출로드쇼	8월/프놈펜
	싱가포르 Medical Fair	9월/싱가포르
	싱가포르 SWITCH	10월/싱가포르
	경영지원세미나	10월/마닐라
	METALEX(기계전시회)	11월/태국
	2026 한-말 의료기기 협력 세미나 및 수출상담회	상반기/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할랄 산업 합동 설명회	상반기/온라인(말레이시아)
	2026 DSA 연계 사전 온라인 상담회	상반기/온라인(말레이시아)
	스마트의료 진출사업	하반기/태국
	하반기 진출기업 간담회	하반기/양곤
	투자진출기업 정례 세미나	분기 1회/비엔티안
	투자유치 사절단	연중/싱가포르
	필리핀 유통망 입점지원 사업	연간/마닐라
	무역투자뉴스레터 발간(온라인)	연중/온라인(미얀마)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현장정보 웨비나(온라인)	연중/온라인(미얀마)	
	호주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 지원사업	연중/멜버른
	Meet Korea 2026	미정/하노이
양자·다자 FTA 활용 방안 지원	한-필 FTA 설명회 및 필리핀 투자진출 설명회	4월/마닐라
	FTA 활용 세미나	4월 및 10월/프놈펜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정례협의체	6월 및 11월/프놈펜
	베트남 FTA 활용 수출 확대 전략 설명회	연중/호치민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필리핀) ASEAN Tourisam Forum	1월	-
(라오스) 국회의원 선거	2월	제10대 국회구성
(베트남) 제16대 국회와 각급 인민위원회 선거	3월 15일	임기 '26~'31년
(베트남) 제16대 국회 1차 정기회의	선거 후 60일 이내	국회의장·총리 선출
(호주) '26년 남호주 주(州) 선거	3월 21일	-
(말레이시아) UMNO(통일말레이국민조직) 지도부 선거	3월	-
(라오스) 주석 선출	3월	국회 선출(간접선거방식)
(라오스) 라오스 정기국회(1차)	3~4월	-
(필리핀) EITI Global Conference	6월	-
(뉴질랜드) 55대 뉴질랜드 총선	10월	-
(호주) '25년 빅토리아 주(州) 선거	11월 28일	-
(라오스) 라오스 정기국회(2차)	10~11월	-
(베트남) 제14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	상반기	5년마다 실시
(태국) 방콕시장·시의회 선거	상반기 예상	'26년 전후 실시 예정
(태국) APEC 정상회의	하반기 예상	의장국 : 중국,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
(태국) 하원 총선(조기해산 시)	연중	현 하원 조기 해산 시 왕실이 선거일 지정
(태국) ASEAN 정상회의	연중	
(필리핀) ASEAN Summit	연중	연2회(상하반기)
(필리핀) ASEAN 외교장관회의(AMM)	연중	연2회(상하반기)
(필리핀) ASEAN 경제장관회의(AEM)	연중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호주) 의무적 합병 통제 제도 시행	1월 1일	'25년 7월 1일부
(싱가포르) 싱가포르 정부 예산안 발표	1분기	-
(호주) '26/'27년 연방 예산안 발표	5월	-
(뉴질랜드) 뉴질랜드 예산안 Budget 2026 발표	5월	-
(베트남) 2026 베트남 통계연감 발간	6월	-
(라오스) 17th 라오스 비즈니스 포럼	상반기	-
(라오스) 제10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2026~2030)	상반기	-
(필리핀) 2027 예산안 발표	3분기	-
(말레이시아) EU-말레이시아 FTA	연중	'26~'27년 타결 목표
(말레이시아) EFTA-말레이시아 경제동반자 협정 발효	연중	'25년 6월 23일 서명
(호주) '26년 금리 결정	연중	연간 8회 발표
(태국) EFTA -Thailand FTA 발효 대기 중	연중	'25년 1월 23일 서명 완료
(필리핀) EU-필리핀 FTA	협상 진행 중	'26년 체결 목표

유망 전시회 캘린더

산업	전시회명	일자/장소
종합	Inalight	4월/인도네시아
종합	Malaysia International Halal Showcase	9월/말레이시아
종합	Halal Expo Philippines	7월/필리핀
종합	2026 미얀마 양곤 태국 상품 전시회	6월/미얀마
종합	Made In Laos 2026	9월/라오스
종합	시드니 보트쇼(Sydney Boat Show 2026)	7월/호주
종합	2026 뉴질랜드 아마겟돈 엑스포(Armageddon Expo)	4월/뉴질랜드
종합	2026 뉴질랜드 허치윌코 보트쇼(Hutchwilco boatshow)	5월/뉴질랜드
종합	2026 뉴질랜드 고그린 엑스포(Go-green Expo)	5월/뉴질랜드
항공	싱가포르 항공 에어쇼	2월/싱가포르
항공	싱가포르 항공산업 전시회	3월/싱가포르

산업	전시회명	일자/장소
ICT	2026 베트남 하노이 전자제조 전시회(NEPCON VIETNAM 2026)	9월/베트남
ICT	Lab Indonesia	4월/인도네시아
ICT	싱가포르 정보통신 전시회	5월/싱가포르
ICT	Lao Digital Week 2026	4월/라오스
가공·포장	ProPak Asia 2026(가공·포장)	6월/태국
건축·건설	싱가포르 건축기자재 전시회	3월/싱가포르
건축·건설	ARCHIDEX 2026	7월/말레이시아
건축·건설	Philbex Davao	5월/필리핀
건축·건설	Cebucon Build Expo	6월/필리핀
건축·건설	2026 미얀마 양곤 건설 전시회	3월/미얀마
건축·건설	시드니 건축 박람회(Sydney Build Expo 2026)	4월/호주
광업	국제 광업 및 자원 컨퍼런스 & 엑스포(International Mining and Resources Conference & Expo(IMARC) 2026)	10월/호주
기계·장비	2026 베트남 호치민 기계 전시회(MTA VIETNAM 2026)	7월/베트남
기계·장비	2026 베트남 하노이 스마트 제조 및 로봇 전시회(VME 2026)	8월/베트남
기계·장비	Indonesia International Auto Parts Accessories & Equipment Exhibition	5월/인도네시아
기계·장비	METALTECH 2026	5월/말레이시아
기계·장비	INTERMACH 2026(기계·제조)	5월/태국
기계·장비	ProPak Philippines	2월/필리핀
기계·장비	호주 제조 산업 전시회(National Manufacturing Week 2026)	5월/호주
기계·장비	장애 산업 전시회(Sydney Disability Connection Expo 2026)	6월/호주
기계·장비	2026 뉴질랜드 오클랜드 전자기계 전시회(EMEX)	5월/뉴질랜드
농업	ILDEX Philippines	8월/필리핀
농업	캄보디아 농업 전시회(Agri Cambodia)	9월/캄보디아
농업	2026 뉴질랜드 필데이즈(Fieldays)	6월/뉴질랜드
물류·운송	호주 운송 장비 및 기술 전시회(CeMAT Australia 2025)	6월/호주
방산	Defence Services Asia(DSA 2026) / MITEC	4월/말레이시아
방산	PHILMARINE(Naval Defense Philippines)	6월/필리핀
보안·안전	보안 산업 전시회 및 컨퍼런스(Security Exhibition and Conference 2026)	9월/호주

산업	전시회명	일자/장소
뷰티·패션	2026 베트남 호치민 코스모뷰티 전시회(vietbeauty & cosmobeaute 2026)	7월/베트남
뷰티·패션	Malaysia International Beauty Expo	6월/말레이시아
뷰티·패션	beautyexpo & Cosmobeaute Malaysia/KLCC	9월/말레이시아
뷰티·패션	Cosmobeaute Philippines	6월/필리핀
뷰티·패션	호주 뷰티 엑스포(Beauty Expo Australia 2026)	8월/호주
서비스	Franchise Asia Philippines	4월/필리핀
서비스	시드니 프랜차이즈 엑스포(Franchising Expo Sydney 2026)	5월/호주
섬유	Indo Intertext	4월/인도네시아
섬유	캄보디아 봉제산업 전시회(Cambodia International Textile and Garment Industry Exhibition)	8월/캄보디아
섬유	2026 미얀마 양곤국제의류 및 봉제산업 전시회	12월/미얀마
섬유	Lao Handicraft Exhibition	11월/라오스
수자원	싱가포르 국제 워터 위크	6월/싱가포르
수자원	Asia Water 2026 / Kuala Lumpur	4월/말레이시아
식품	2026 베트남 호치민 식음료 및 식품가공기기 전시회(Viet Food and Beverage Propack 2026)	8월/베트남
식품	Food, Hotel & Tourism Bali(FHTB)	4월/인도네시아
식품	Food + Beverage Indonesia	5월/인도네시아
식품	싱가포르 식품 및 호텔 전시회	4월/싱가포르
식품	WOFEX(World Food Expo)	8월/필리핀
식품	캄보디아 식료품 전시회(CamFood)	8월/캄보디아
식품	외식 및 푸드 서비스 전시회(The Restaurant & Foodservice Show 2026)	5월/호주
식품	호주 식품 전시회(Fine Food Australia 2026)	9월/호주
식품	2026 뉴질랜드 오클랜드 푸드쇼(Auckland Foodshow)	7월/뉴질랜드
에너지	Battery & Energy Storage Indonesia	4월/인도네시아
에너지	2026 Oil & Gas Asia(OGA) / KLCC	9월/말레이시아
에너지	ASEAN Sustainable Energy Week 2026(에너지·환경)	7월/태국
에너지	PhilEnergy Philippines	4월/필리핀
에너지	Solar & Storage Live Philippines	5월/필리핀
에너지	Oil & Gas Philippines	6월/필리핀

산업	전시회명	일자/장소
에너지	Offshore Wind Asia	6월/필리핀
에너지	스마트 에너지 엑스포(Smart Energy Expo 2026)	5월/호주
에너지	호주 풍력에너지 전시회(Australia Wind Energy 2026)	7월/호주
에너지	호주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전시회(REGEN 2026)	7월/호주
의료	2026 베트남 하노이 의료기기 전시회(VIETNAM MEDIPHARM 2026)	5월/베트남
의료	2026 베트남 호치민 치과 전시회(VIDEC 2026)	8월/베트남
의료	2026 베트남 호치민 의료, 병원 및 제약 전시회(Vietnam Medi-Pharm Expo 2026)	8월/베트남
의료	2026 베트남 하노이 치과의료기기 전시회(VIDEC 2026)	8월/베트남
의료	싱가포르 의료기기 전시회	9월/싱가포르
의료	PhilMedical	9월/필리핀
의료	PHIL DENTAL	9월/필리핀
의료	호주 의료기기 박람회(AusMedtech 2026)	5월/호주
자동차	Indonesia International Motor Show(IIMS)	2월/인도네시아
자동차	Manila Auto Show	4월/필리핀
자동차	Vientiane International Motor Expo	3월/라오스
자동차	Vientiane Motor Expo	9월/라오스
전기·전자	Inatronics	4월/인도네시아
전기·전자	Semicon Southeast Asia	5월/말레이시아
전기·전자	EMAX Philippines(Electronics Manufacturing Expo)	10월/필리핀
조선해양	싱가포르 조선 및 해양플랜트 전시회	3월/싱가포르
조선해양	싱가포르 조선 해양 전시회	11월/싱가포르
홈·리빙	2026 베트남 호치민 국제 반려동물용품 전시회 PET(FAIR VIETNAM 2026)	6월/베트남
홈·리빙	2026 베트남 호치민 국제 베이비&키즈 전시회(Vietnam HCMC Int'l Maternity, Baby & Kids Fair 2026)	6월/베트남
홈·리빙	2026 베트남 호치민 펫 산업 전시회(International Pet Festival & Expo VietNam 2026)	8월/베트남
홈·리빙	Indonesia International Furniture Expo(IFEX)	3월/인도네시아
홈·리빙	The Lao Home & Living Fair	7월/라오스
홈·리빙	생활용품 전시회(Life Instyle Sydney 2026)	2월/호주

산업	전시회명	일자/장소
홈·리빙	2026 뉴질랜드 아동용품 전시회(Baby Expo)	3월/뉴질랜드
홈·리빙	2026 뉴질랜드 오클랜드 홈쇼(Auckland Homeshow)	9월/뉴질랜드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이병탁	차장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84-(24)3946-0511 내선번호: 511	bt.lee@kotra.or.kr
2	서진원	대리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84-(24)3946-0511 내선번호: 211	seoperior@kotra.or.kr



2026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